

교과서연구

제 36 호

2001. 6

자 레

- 발행인 / 김효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재복
- 위원 / 박상돈, 김만근, 김정호,
송정현, 이경환, 최봉규
- 간사 / 최해홍

권두언

교과서관의 변화에 대한 기대/이경환4

특 집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8

총론 / 김정호, 영어 / 진경애, 한문 / 박삼서,
과학 / 이범홍, 사회 / 노희방, 체육 / 최성식,
음악 / 양종모, 미술 / 박은영, 기술·가정 / 이춘식, 윤기숙,
컴퓨터 / 김동원

현장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현/한인성57

논 단

직업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개선/이종성63

교과서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최용기67

나의 제언

밀레니엄 시대의 교과서/신동한73

연 제

아랍국가의 교육제도의 원칙과 현실/이희수78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단상

종이로 된 교과서의 운명/김만곤	8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의 문제/이찬희	88
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개혁되어야 하나?/허 강	93

편수 행정의 발자취

화학과 교과서편/김동식	97
음악과 교과서편/최종진	101
수산·해운 교과서편/김동규	106
1977년 6, 7, 8월의 편수관실/박용진	111

연구 과제 소개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117
한국 편수사 연구(Ⅰ)	118

자 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운영	119
-------------------------	-----

● 연구재단 소식	120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21
● 원고 모집	122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123

교과서관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 경 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어느 학생의 하소연

다음은 지난 3월 초에 교육부 소리함에서 발견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다.

「전 이번에 2학년에 올라갑니다. 딱 1년 차이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지요. 정말 화가 나네요.

올해 1학년들은 전면 컬러에 훨씬 쉽고 즐거운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뭘니까? 국어 시간에 1학년들이 god의 ‘어머님께’를 읽고 있을 때 저희는 길기만 한 시를 외웠고, 기술 시간에 1학년들이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저희는 베이직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영어 시간에 1학년들이 ‘Hello, hi’를 배우고 있을 때 저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과학 시간에 1학년들이 ‘빛’을 배우고 있을 때 저희는 시험 한 번 치면 까먹는 모스 경도계를 외고 있었고, 수학 시간에 1학년들이 생각하며 푸는 문제를 저희는 무턱대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돌아가며 풀었습니다.

교과서뿐이 아니죠. 올해는 대부분의 복잡 규정이 좀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새까만 단발로 1학년을 보낼 때, 그 아이들은 브

릿지 넣어서 묶고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죠? 그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 학생의 이러한 글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교과서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토가 이어질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다.”

“초등 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대학 교수인 나도 가르치지 못하겠더라.”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으레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그들이 학교 다닐 때의 기억으로 이야기하고, 오래 전에 보았던 교과서에 대한 인상만으로 우리 교과서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 학교 교과서는 가르치기가 쉽고, 대학교재는 가르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쉽게 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 교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초등 학교 교사는 전문성도

교과서관이 변하였다.
종래의 교과서가 보배로운 지식이 가득 담겨진 ‘聖典’이었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그림 몇 개밖에 없는 교과서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시간을 가르칠 수 있어도, 대학 교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대학 교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교사는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진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과서는 정말 지금도 어려운가

오늘날의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읽고, 밑줄 긋고, 쓰고, 외던’ 단순한 지식만 담겨 있지 않다. 오늘날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 지식 기반 사회로 바뀌어 오면서 지식의 정의도 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과서에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종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지식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보는 활동 중심의 지식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치로운 지식을 많이 외우도록 잘 설명해 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고력, 창의력, 비판

력, 판단력 등 고등 정신 기능을 가지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최근에는 자기 주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과서가 이러한 관점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교과서라면 당연히 외워야 하는 지식들이 담겨 있고, 그 중에서 더욱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추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뭐 이런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교과서나 간에 대학 교수나 학부모나 아무나 보고 “나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교수나 교사를 보고 전문가라고 하겠는가? 유치원 교사는 유아 교육의 전문가이고, 대학 교수는 대학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른바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 변하였으므로 당연히 교과서의 위상도 변하였다. 종래의 교과서가 보배로운 지식이 가득 담겨진 ‘聖典’이었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편찬을 맡은 기관, 학자, 교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참고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와 같다.

【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

구 분	전통적인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
교과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과옥조’형 교과서 ·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 지향 ·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 배양 강조
교과서진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 강의 요강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실, 사례 제시형 · 학습 과정(절차, 방법) 중시형 교과서
단원전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 적용
내용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중심, 교사 중심의 내용 선정 · 교과서 내용의 실생활과의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 중심, 학생 중심 내용의 선정 ·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 강조 ·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
내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직 · 문장과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 ·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
연구·개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가 소홀히 된 교과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를 중시한 교과서 개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과서 개발

교과서의 활용 관점에 대하여

2000 학년도는 중학교 1학년용 교과서의 검정이 출판계나 학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검정에서는 새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참신성과 독창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검정 실무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 판단의 대상인데, 이 판단은 주로 현행 교과 수업

상황의 문제점 개선을 겨냥하여 가름하였다.”(김정호, 2000.)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를 바람직한 교과서로 보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에서 종전의 관점을 고수하여 교과서를 집필한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일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학교 1·2학년의 교과서 분량이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내용이 많고, 교과서의 난이도가 학생 발달 수준에 비해 부적절한 내용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과대·과밀 학급 해소 등 교육 환경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의 많은 부분이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학습 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분명치 않다.”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많고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적을 수도 있으며, 한 학교에서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할 수 있고 그 옆의 학교에서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학습 내용의 양을 줄였고 수준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교과서의 내용량과 난이도의 수준에 대하여는 각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학생들의 특성 등)에 맞추어 그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교과서가 활용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그냥 있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학부모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하기 이전에 학부모부터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학교 교육을 전개할 때가 되었다. 학부모 핑계를 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뒤로 미룬다면, 언제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전

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교과서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교과서가 이렇게 개발된 데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학생수가 바라는 대로 줄어 들지 않으면 계속하여 주입식으로 가르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여져야 하겠지만, 활동이란 개별적인 것도 있고 소집단, 대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으며 집단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전개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이 많다는 지적은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인 경우가 많으며, 이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운영과 고등 학교 2·3학년의 과목 선택 교육과정이 그 핵심이며, 이는 수업 혁신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의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지름길은 교과서를 학습 자료로 보고 학생과 함께 설정한 수업 주제에 따라 수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²³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

총론/영어/한문/과학/사회/체육/음악/미술/기술·가정/컴퓨터

총 론

김 정 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1. 교과서와 검정 제도의 의의

교과서를 해체하라.’ 또는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폐지하고 자유 발행제를 하라.’ 등과 같은 교과서 자체와 발행 제도에 대한 쟁론은 그만큼 교과서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학교 문화에서 교과서가 해야 할 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그만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이다. 불교 선종의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見性成佛)론도 문자를 아예 무시해 버리라는 뜻보다는 문자에 얽매어 현상의 본질을 놓쳐 버리는 잘못을 경계한 것일진대, 교과서를 없애거나 누구든지 만들면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는 소박한 이상론일 뿐, 오늘의 학교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을 위한 해체이며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 학교의 교수·학습 상황은 교과서 문화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사나 학습자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어야 진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수·학습 방법도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한다. 시험 문제를 교과서에서 내다가 보니까 학습자는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암기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면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사교육이 창궐한다. 이렇듯 수업이나 시험 또는 사교육 문제까지도 그 배경에는 교과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정이나 검인정 제도에 따른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연결시키는 의사 소통의 매체로 교과서를 활용해 온 전통적인 학습 문화에 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해체하기보다는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며, 검인정이나 자유 발행제의 제도 문제도 어느 제도가 교과서의 질 향상에 더 유리한가로 판단할 사항이다. 교과서의 질이란 교수·학습 과정이나 평가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

원래 교과서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소재를 제공하는 과목별 교수·학습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다양

한 자료 중의 한 가지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재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는 현재 국정이나 검인정 제로 되어 있다. 검인정은 좋은 교과서와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선별해 내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면 개발자의 자유는 보장될지 모르지만 교과서 질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자유보다는 상품의 질적 보증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검인정 제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교사 개개인이 만드는 자료보다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검증받은 교재의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국정이나 검인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검인정 과정의 합법성과 공정성 및 타당성 향상에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검인정 제도는 여러 저작자가 제작한 교과서를 평가하여 잘잘못을 가려 내는 여과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출원 교과서나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지만 학습 개선에 어느 것이 더 많이 기여할 것인지는 가늠할 수는 있으므로 검인정은 그 자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단일종인 국정제보다 저작자의 창의성을 살린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도록 여러 가지 유형의 질 높은 교과서를 선정할 때 비로소 검정 제도의 합목적성이 살아날 것이라는 점은 더 이를 나위도 없다.

2. 교과서 특징 분석의 관점

교과서 저작자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요소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과 활동을 연계시키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게 된다. 편집자는 내용 구성 체제를 현대적

인 감각에 맞추어 디자인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내용과 외형 체제의 종합 예술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하는데에는 다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내용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논의코자 한다.

가. 교과서 구성 체제

교과서 구성 체제는 일반적으로 단원별 완결형을 전제로 하여 도입과 학습 목표, 내용 전개 및 정리·평가로 전개된다. 이 체제 자체는 어느 책이나 유사하지만 각 부문에 어떤 자료를 넣어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따라 책의 독창성이 살아날 수 있다.

○ 목표 진술 :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하는 목표는 그 중심 요소와 학습 활동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목표의 방향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와 활동을 보면 그 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습 요소의 중요성과 포괄성 : 단원(주제)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선별하여 학습 목표로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단원 전체를 포괄하려고 자칫 추상성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세부 요소를 내세우면 환원주의 오류에 빠져 전체를 놓칠 수 있다.

－ 학습 활동의 다양성 : 볼륨의 목표 분류론에 따른 활동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학습의 다양성 정도를 알 수 있다. 만일 목표를 ‘……안다, 이해한다, 파악한다’는 정도로 제시한다면 그 교과서에 따른 수업은 설명·암기·이해 방식이 될 것이지만, ‘……분석한다, 종합한다, 해결한다’ 등으로 제시하면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수준 높은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 내용의 유형 : 교과서에 제시할 학습 내

용은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책에 따라 다를 바 없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구성 양상에 따라 지식 중심, 탐구 중심, 사고 중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식 중심형 : 학습 목표를 교과별 배경학문의 이론 이해에 두고, 교과서에 사실·개념·원리·법칙·이론 등으로 제시하는 유형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은 교사가 설명하고 학습자가 암기하는 방식이 된다. 지식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지식의 내용에 따라 학습의 의미 정도가 달라진다. 사실이나 개념을 나열하는 형식이면 학습자는 지식의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기도 어렵다. 사실과 개념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시키면 비록 형식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지식 중심형 교과서는 저작자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탐구 중심형 : 탐구 중심형도 학문 중심의 교과관에 터하기는 지식 중심형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학습 목표를 과학적 방법 활용에 두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구별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교과서는 학습자가 사실의 관찰, 측정, 분류, 추론, 기록, 추정(계산), 실험 등과 같은 과학적 탐구 과정과 방법을 익히고 실제 해 보아서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과 연계된다.

— 사고 과정 중심형 : 이 유형의 교과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심도 있는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탐구형

과 같지만, 그 활동과 사고의 주제를 학문적인 이론의 체계성보다는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엄밀한 과학적 탐구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 또는 합리적 의사 결정 학습을 하는 데에 적합한 유형이 바로 사고 과정 중심형이다.

○ 내용의 구성 :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 각 영역의 내용을 따로 나누는가, 관련 있는 것끼리 따로 모아 놓는가에 따라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은 달라진다. 이 문제는 주로 과학과, 사회과, 기술·가정과와 관련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회과를 보면 세부 영역인 지리와 역사 및 일반 사회 내용을 각각 나누어 별도 단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형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아서 구성하는 통합형이 있다. 분과-통합의 구성 체제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분과형이라 하여도 저작자가 이를 재구성하면 통합형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다.

○ 전개 과정 : 어느 교과서이든지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문제, 과제)을 모두 포괄하지만, 그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이 달라진다. 이 전개 체제는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거나 응용하도록 하기 위해 과제를 제시하는 연역식과, 먼저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호기심을 일깨운 뒤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뒤에 실어 주는 귀납식으로 나뉜다. 연역식은 학습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반면에, 귀납식은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질문 내용 : 교과서에는 내용 전개의 중간이든 끝 부분이든 여러 곳에 질문을 제시하는데, 그 양보다는 질적 의미가 중요하다. 질문은 사고를 자극하는 개방형 질문과 지식의 기억을 묻는 폐쇄형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해 놓아야 학습자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물론 개방형 질문이라도 해당 학년의 학습자가 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학습 활동 : 현재 우리 중등학교 수업의 전형인 ‘강의-경청-정답 평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배운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수동형 학습은 정보 사회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자가 자기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이나 조사 및 만들기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구현하려면 교과서에 그러한 활동을 제시해 놓으면 된다. 한 교과서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 활동 방법은 달라지므로, 얼마나 많은 활동을 내용과 적절하게 연계시켜 놓았는지 보면 교과서의 교육적 의미를 평가하기 쉽다. 다양한 활동 방향을 제시해 놓으면 현재 학교 여건상 실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황만 고려하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 형편에 맞는 것만 선별해 지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학습 활동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무엇을 해 보자는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으므로 초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활동에 사용할 소재를 제

대로 선정해야 그에 따른 활동이 의미를 갖게 된다.

- 그림·사진 : 그림과 사진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이지만, 내용과 별 관계 없는 장식용보다는 그 자체를 바로 학습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삽화는 다양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서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문제 : 단원 중간이나 말미에 제시하는 평가 문제는 요구하는 대답에 따라 학습 내용 확인형, 새로운 지식 창출형으로 나눈다. 교과서에 제시하는 평가 문제라면 학습 내용을 기억해서 답하는 단순 내용보다는 배운 것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문장 진술 : 교과서 문장은 문법에 맞고, 전개 과정이 논리적이며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과서에는 가급적 학습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과도한 장문을 피해야 한다.

나. 난이도 문제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난이도 문제이다. 교과서 난이도는 학생의 흥미 유발과 가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재미없고 어려운 교과서라는 문제도 학생 수준보다 더 어려운 교과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려운 교과서의 배경에는 정제하지 않고 사용한 어휘와 내용 자체의 어려움 및 글의 논리적 혼란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 쓸 용어를 미리 조사하여 이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저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 생기는 우연적 난해성, 문단의 어느 한 부분을 삭제하

는 경우인 논리적 난해성 및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상황적 난해성 등이 교과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어휘의 난도 : 어휘(용어, 개념)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인데,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어휘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교과서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우리 교과서가 어렵다는 이유는 주로 이 어휘가 어렵기 때문인데, 주로 한자어로 된 어휘를 한글로만 표기하거나 현재 사회에서 자주 쓰지 않는 말을 쓰거나 이중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설명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 내용 자체의 난도 :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과 생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선개념과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주로 교과 배경 학문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나 외래어), 인지 발달 수준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체가 교과서를 어렵게 만든다. 주로 배경 학문의 이론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여 교과서 분량과 학습 시간에 맞추어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문장 진술의 난도 : 교과서 문장을 학생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숙한 소재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전개 과정에서 어느 부문을 지나치게 생략해 버리는 경우 또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면 내용과 관계없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교과서는 많은 내용 요소를 적은 분량에 담기 위하여 요약형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리적 난도를

유발하게 된다.

검정을 거친 교과서라면 어느 책이든지 위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였으리라 보아도 된다. 그러므로 검정 교과서의 다양성은 탐구 과제나 학습 활동의 소재, 평가 문제, 전개 체면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술할 수밖에 없는 검정 교과서를 비교하여 내용 자체가 유사하다고 하여 다양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분석 관점의 한계에 따른 견해라 할 수 있다.

3. 중학교 1학년의 검정 교과서 특징

검정은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만큼 교과서 저자는 이를 준거로 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 걸쳐 자기 주도적인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실용적 교육관을 천명하고 학습 내용을 정선·경감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주문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과 과정을 준거로 하여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는 학습을 말한다. 처음 배우는 내용은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학습 동기 즉, 왜 이런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강하게 느끼고 공부하는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즉 개인이나 사회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때 학습자는 관심을 가지고 흥미 있게 학습할 것이라는 점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는 대체

로 기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우선 학습량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선별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내용의 유형도 탐구·사고 중심의 교과서상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학습 활동 소재를 여러 가지 도입하여 새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바를 해석하여 제각기 독특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저작자마다 교과에 대한 관점과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환경 교과서를 보자. 교육과정 1단원 ‘인간과 환경’ 중 ‘환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제제 중 ‘환경이란 무엇인가’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교과서 : 공부할 시작하기 전의 질문－학습 목표－내용－읽을거리(이스터 섬 이야기)－활동 마당(조사·토의 : 집 주변의 환경 둘러보기, 소음 측정하기 / 토의 : 자원 이용의 불평등 / 시쓰기·그림 그리기 : 생태 시 감상)－심화 학습(환경에 대한 견해의 차이)－내용 정리－익힘 문제
- B 교과서 : 학습 목표－내용－읽기 자료(녹색 마당 : 낙하산을 탄 고양이)－학습 활동(조사 관찰 : 우리 마을의 환경 요소 찾기 / 토의·토론 : 아폴로 13호의 교훈)
- C 교과서 : 학습 목표－내용－연구(산소의 필요성)－학습 활동(야외 실습 : 자연 관찰 일기 쓰기)－탐구 활동(사람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피해)－사례 연구(황사)－되돌아보기(복습 평가 문제)－읽을거리(인디언 부족의 땅)－사례 연구(외래개구리)－이 단원을 마치면서(사람과 환경 간의 영향, 귀화 생물의 생태계 교란)

환경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은 같지만 전개 과정과 학습 활동 및 그에 대한 자료가 다르듯

이 삽화·사진과 통계 자료 또한 같은 것이 없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다양성은 학습 내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에는 학습 내용까지 국가 수준에서 정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겼던 미국이나 영국도 지금은 국가(또는 주 정부) 또는 학회 수준에 표준 내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국가 차원의 공론(실제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교사 개인의 자율성에 맡길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교과서와 다른 관점에서 가르칠 수도 있으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여러 가지 변용할 수도 있다. 교사의 자율성은 이런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 교과서와 같이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 또는 실제 체험 등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점이 또한 이 검정 교과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학생이 직접 경험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소재로 놓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배경을 조사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아가는 학습이야말로 학생 중심·실생활 중심의 열린 교과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편집·디자인까지 보면 중학교 1학년 검정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변혁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 그 속에 진리를 체득토록 하거나 삶을 대신하는 신령스러운 힘이 들어 있지는 않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라는 다리를 밟으며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교과서를 보되 교과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마치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건널 뒤에는 버려야 하듯이 교과서라는 창(窓)을 넘어서서 세상과 우리 삶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영 어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1.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특징

제 7차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초등 학교에서 영어가 도입된 이래 처음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된 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되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6차 교과서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초등 영어 교육과정 및 학생들이 이미 영어를 접하고 배우는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의 수준이 6차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초등 영어에서 강조하는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음성 언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읽기, 쓰기와 같은 문자 언어도 균형 있게 도입하고 있다.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초등에서 도입했던 노래와 챗트를 도입한 교과서도 있고 활동 위주, 흥미 위주, 그리고 학습자 중심인 점에서 초등 영어의 성격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되어진 교과서는 대부분 제7차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이다.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인데 수준별 교육 과정은 크게 단계형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형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년 개념에서 학년을 학기로 나누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7a 단계와 7b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일부의 교과서는 7a 단계와 7b 단계의 수준에 차이를 두어서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각 단원의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되어지되 나선형으로 반복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단계형과는 달리 심화·보충형 학습은 거의 모든 교

과서가 도입하여 각 단원마다 심화·보충 학습을 제시한 것이 6차 교과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교과서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을 4차시와 8차시에 제시한 경우도 있고 단원말에 제시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심화 학습은 조별 활동, 탐구 학습, 유창성의 강조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보충 학습은 단원의 내용을 재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학습, 보충 학습과 연계하여 대부분의 교과서가 수행 평가의 문항과 활동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과거와 같이 각 기능을 분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읽기, 듣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 읽기와 말하기 등 단원의 구성 체계 자체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원의 목표인 의사 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듣기 활동을 먼저 하여 단원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듣기 활동은 교과서의 삽화나 Pre-listening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듣기 내용에 익숙하게 하였고, 말하기 활동은 기계적 연습에서부터 실질적인 의사 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다양한 학습자 활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읽기 활동은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그리고 읽기 후 활동을 단계별로 제시한 교과서도 많이 있다. 쓰기 활동은 다른 기능을 통하여 습득한 언어 형식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말 혹은 도입 부분에 단원 목표인 의사 소통 기능과 연계된 문장 형식을 제시한 경우가 많이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4기능을 통합한 프로젝트 활동을 포함하기도 하여, 의사 소통 활동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2. 책간 체제 비교

책 이름	제 목	학습 목표	구성 체제	학습 방법
동화사	5 과. Welcome to my house	1. 초대와 관련된 말과 글을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2. 일기문의 형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ok and Listen -Activity -Listen and Say -Activity -Let's talk -Checkup -보충학습 1 -심화학습 1 -Read and Understand -Activity Read and Write -Activity -Patterns in Use -Checkup -보충 학습 2 -심화 학습 2 Ch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을 보고 대화를 들으며 주제와 상황을 추측함 -각 언어 기능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 -원어민의 발음 듣고 따라 말해 보기 -각 언어 기능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 -의사 소통 기능을 심화 연습 -학습자들의 수준을 점검하도록 구성 -음성 언어 학습 후 수행 -음성 언어 학습 후 수행 -단락을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 도모 -배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 -structure와 sound로 구성 -문자 언어 학습 후 수행으로 정리 점검 -문자 언어 학습에 대한 게임이나 활동 -문자 언어 학습에 대한 게임이나 활동 -노래와 챗트를 한 단원씩 번갈아 가며 제시
천재	5 과. On the Sub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cus On -Warm Up -Listen and Do -Dialogue -Let's talk -Sounds -Hello, Everyone -Read and Think -Let's Write -Play and Talk -Do It Yourself -Can you do it? -Make Up -Extend It -Culture to Culture -Focus on 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개,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 언어 형식 소개 -단원과 관련된 기본 내용 -뒤에 나올 Dialogue와 관련된 내용을 선행 학습 -듣기, 말하기 훈련을 위한 상황 중심의 대화문 제시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해당하는 중요표 -글자와 소리, 이어말하기, 문장 강세를 익히기 -다양한 읽기 자료 -주제 및 요지 찾기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제시 -읽기 자료에 근거한 사실적인 질문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 또는 언어 형식 학습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알아보는 문제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과 언어 형식 진단 -미진한 부분 보충 -심화형 문제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문화 차이 -배운 언어 형식들

대한교과서	5과. At the Fun Park	1. 상황을 묘사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정도를 묻고 답할 수 있다. 3. 장소를 묘사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장소를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Goal -Look and Think -Listen and Find -Listen and Do -Say it Right -Talk and Practice -Pair work -Group Work -Read and Think -Vocabulary Song -Think Back -Work Together -Study Note -Level Study -Study Diary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알아보기 -그림을 보고 배울 내용을 생각해 보기 -녹음을 듣고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보기 -녹음을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해 보기 -올바른 발음을 익히기 -영어 대화 표현을 알아보고 연습하기 -상황에 맞게 짝과 영어로 대화 -주어진 과제에 맞게 영어로 조사 활동 -다양한 글을 읽으며 독해력과 사고력 신장 -리듬에 맞춰 단어 익히기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 -간단한 글을 영어로 써보기 -공부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재미있는 놀이 해보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 선택하여 공부 -학업 성취도 점검하고, 노래를 부르며 학습을 마무리
학문출판사	5과. Fly Cyber !	꿈속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이버 세상을 접해 보고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며, 허락 요청하기, 약속 제안하기, 놀람 표현하기 등을 익힌다.	-Listen and Think -Listen and Do -Listen and Say -Let's Speak/ Speak More -Communicative Activity -Let's Have Fun -Let's Read -Read More -After Your Read -Let's Write -Write More -Review	-녹음을 듣고 내용을 생각해 보기 -녹음을 듣고 지시에 알맞게 활동 -녹음을 듣고 따라 말하기 -친구와 함께, 또는 조별로 말하기 활동 -단원에서 배운 의사 소통 기능을 활동 중심으로 학습 -읽기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점검 -글이나 그림 등을 읽고 쓰기 활동하기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디딤돌	5과. Can you send some Gimbab over the Internet ?	의사 소통 기능 1. 요청하기 2. 기억 여부 묻기 3. 기억 여부 답하기	-Warm up -Listen and Check -Listen and Act -Let's Talk 1 & 2 -Dialogue -Work together -Read & Think/ Read & Act -Write it Right -Work together 2	-단원 전체에 대한 사전 활동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을 이용한 간단한 듣기 활동 -의사 소통 예시문을 이용하여 다양한 듣기 활동 과제 수행 -실제 경험을 활용한 말하기 활동 -듣기, 말하기 영역을 통합하는 활동 -듣기, 말하기 영역의 모둠 활동 및 수행 평가 -실제 생활에 근거한 다양한 읽기 활동하기 -통제 작문에서 자유 작문까지 다양한 쓰기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nguage Focus -Self-Check -Your Choice -Life and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쓰기 영역의 모둠 활동 및 수행 평가 -의사 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정리 -수준별 학습을 위해 진단 평가 실시 -해당 단원의 보충·심화 활동으로서 수행 평가 가능 -해당 단원과 관련된 영미 문화 이해
청색	5 과. Shopping	원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대화와 길을 묻고 안내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며 말할 수 있고 장소를 찾아가는 약도를 글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 Ready -Let's Listen 1,2 -Let's Talk 1, 2 -Let's read 1, 2 -After Reading -Give it a Try -Team up -Do it yourself at Home -The Story So Far -Let's Chant & Let's 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의 개략적인 내용을 영어 테이프를 들려주기 -질문과 대답을 통한 선수 학습 -주요 의사 소통 기능을 말해보고 반복하여 연습 -단어와 숙어의 뜻을 파악하면서 전체 내용 이해 -본문의 읽기 후 통 내용 점검 -심화·보충 학습을 하는 종합 연습 문제 코너 -조별 활동의 게임을 통한 듣기와 말하기 학습 -가정 학습 또는 개별 학습으로 부과 -각 단원의 주요한 내용을 복습 -챗트와 노래
두산 (김성곤 외)	4 과. I Love Cook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과의 주제 및 언어 기능 등을 대강 파악한다. 2. 음식 재료와 음식 이름, 요리법을 말할 수 있다. 3. 원하는 음식을 묻고 대답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4. 평서문의 억양과 연습 현상을 연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rm up -Let's go -Listen and Talk -Read and Think -Study Point -Let's Write -Project Work -On Your Own -review -Check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짐작하는 활동 -날말이나 표현 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히기 -Look & Say에서 말하기 연습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한 읽기 활동 -어법들을 정리, 활용 연습 -단원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쓰기 연습 -모둠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스스로 확인 -관련이 있는 3개의 단원을 종합적으로 복습 -한 Unit을 끝내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

지 학 사	5 과. How Often Do You Watch TV ?	TV는 우리 생활의 중요 한 일부분입 니다. TV의 좋은 점과 나 쁜점을 알아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t's Listen -Listen Activities -Sounds -Let's Talk -Talking Activities -Functions -Interactions -Let's Read -Reading Activi- ties -Let's Write -Writing Activities -Interactions -Challe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듣기 -듣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 -발음 -말하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 -의사 소통 기능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한 학습 활동 -읽기 -읽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 -쓰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학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충·심화 학습 활동
교 학 사	5 과. A Father's Love	아 버 지 가 자식을 진정 으로 사랑하 는 마음이 어 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 제 해결 과정 과 불가능 표 현하기, 의견 문기, 의무, 금 지하기, 등의 표현들을 익 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n Up -Let's Listen -Word Bank -Let's Read -Let's Talk -Let's Write -Review -I Can Do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에 관련된 학습 활동 방향 설명 -듣고 행동하기 듣고 응답하기 등의 활동 -읽기 이전 활동으로 어휘 학습 -두 개의 읽기 자료를 이해하기 -말하기 연습과 의사 소통 활동 -쓰기 활동 -학생이 선택하여 복습과 보충 학습 -각 과별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
대 일	5 과. The Birth- day Party.	학생들에게 어려움에 처 한 친구를 돕 는 아름다운 품성을 갖게 하고, 생일에 관한 소재를 가지고 축하, 동정 표현하 기, 권유 등의 의사 소통 기 능문을 다양 한 활동을 통 해 익힐 수 있 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 Ready -Listen to the Dialogue -Listen and Practice -Reading Part Let's Practice -Language Points -Sounds -평가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Game과 인터넷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Dialogue의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 소통 기능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 -짧은 essay 형식이나 conversation 형식 -그림에 제시된 상황에서 대화체로 연습 -sentence pattern, 문법, 표현을 복습하고 정리 -과에서 나오는 연음 발음 강세를 연습 -학생의 실제 생활에 적용는지 확인 -재미있게 각과의 주요 내용 다시 복습 -심화·보충 학습 -실제로 사용하는 communicative activity.

두산 (장영희 외)	A New Friend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ting Line -Listen and Draw -Read and Talk -talk and Talk -How to Say It -Words, Sounds -Grammarin Action -Think and Make~ -Write and Talk -Break Time -Finish Line -One More Step -DIY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의 topic과 학습 목표에 대한 warm-up -주로 듣기 학습 -다양한 소재 및 실용적인 형태의 글 -말하기 활동 -pattern practice와 대화 형식으로 연습 -단원에 나오는 주요한 어휘와 발음 연습 -문법의 의사 소통 기능을 설명 -task 중심 학습 -단계별로 된 쓰기 연습 -2개의 게임으로 구성. -연습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 -자기 주도적 보충과 심화 학습 -자기 주도적 reading 학습
중앙 교육 진흥원	What's Your Favorite Musi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아하는 것 묻기 -주의끌기 -놀람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Just Listen -Listen and Speak -Read and Think -Wright Right -Culture Tips -Review -On Your Ow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pre-listening과정 -대화를 다양하게 반복 연습 -다양한 소재의 읽을거리 -과정 중심의 단계별 쓰기 활동 -영어권의 생활 양식과 문화 -발음, 강세, 연음, 억양 학습 -본 단원 학습 형성 평가
금성	It looks like a Turtle.	우리 문화 유산이나 역사를 어떻게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살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 -Let's Listen -Let's Talk -Let's Read -Let's Write -Let's Enjoy English -Summing up -Test Yourself -Building Up Your Eng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도입부로 학습 목표 설정 -듣기를 통한 영어 이해 교육 -듣기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훈련 -듣기와 말하기를 바탕으로 한 읽기 학습 -듣기, 말하기, 읽기를 바탕으로 한 쓰기 -노래, 퍼즐 등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그 동안 학습한 바에 대한 총정리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 -보충·심화 학습

3. 교과서 활용 방안

이번에 채택된 교과서의 활용 방안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단원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매 차시 제시되어 있는 학습 내용이 학습 목표의 의사 소통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단원의 초기 단계에서 의사

소통 기능뿐 아니라 단원의 소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제와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읽고 쓰기 등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넷째, 말하기의 경우 기계적 연습(Mechanical Drill), 의미적 연습(Meaningful Drill), 그리고 의사 소통 활동(Communicative Activity)의 순으로 제시하

되 반드시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의사 소통 활동의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짝별, 조별 활동을 반드시 수업 시간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되, 수행 평가 형식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여섯째, 심화와 보충 학습은 4차시 혹은 8차시에 심화와 보충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심화 혹은 보충 그룹에 속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한다. 일곱째, 단원 말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 형식도 간과하지 않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무의식적 학습과 의식적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기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여덟째, 각 단원 혹은 몇 개 단원을 학습한 후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시하여 그룹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단원의 내용을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 문

박 삼 서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1. 교육과정 및 집필 방향

제 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교육과 언어 생활과의 관련성 및 실용성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 체계를 위계를 세워 구체화하였으며, 한자·한자어·한문 영역의 유기적 관련으로 한문 능력 신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더욱 다양화·상세화하여 교육과정의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한문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될수록 동어가 반복되는 목표나 내용 진술

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내용 체계와 내용을 구조화하면서 영역별 내용과 수준의 체계가 동시에 파악되도록 하였고, 내용 진술을 학습자 중심으로 하여 ‘내용+행동’ 형식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자·한자어·한문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교육이 통합적, 총체적으로 수행되어 학습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육과정 정신이 그대로 교과서 편찬에 반영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동북아 문화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다.

2. 한문 교과서 특징

가. 시각적·미적 감각이 가미된 외형 체제

먼저, 한문 교과서는 외형적인 면에서 6차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국판에서 4×6 배판으로 판형이 커졌고, 단색에서 2도 색도를 높여 교과서의 외형에 시각적, 미적 감각을 가미하였다. 그리하여 그림, 사진,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삽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삽화 내용과 학습 활동과의 유기적 긴밀성을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삽화 배치를 다양하게 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였다. 더불어 지면 활용을 창의적으로 하여 학습의 과정을 도식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단원 구성

(1) 사고력 신장의 효율적 진작

학습 내용과 활동의 전개에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설명과 진술 형식을 취하고, 탐구 과정을 도입하는 등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학습 내용을 설명하거나 답을 제시하는 교과서 전개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학습 목표 진술을 학습자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면 학습 안내를 쉽고 자세하게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기초 한자와 한자어의 습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출 한자 목록을 작성·제시하고, 학습하는 방법과 과정을 유형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자연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였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 것을 확인만 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3) 학습 흥미와 동기 유발 제고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습의 흥미를 증진하고, 만화, 삽화, 사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학습 요소를 제공하였다. 특히, 기본적으로 한문 교육이 주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교훈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제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학습 요소에 흥미를 촉발할 수 있는 시각적 구성을 시도하여 교과서라는 경직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과서의 탄력적 활용 고려

학습 전략과 평가의 방법을 안내하여 교과서의 신축적 활용을 돕고, 중학교용 900자 목록을 제시하여 낱자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량 활동 시간의 선택 과목임을 감안하여 학습량과 진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년별 교과서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과서의 탄력적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다. 교과서별 단원 구성의 실제와 특징

(1) 박영사

단원의 체제를 ‘본문-길잡이-이해와 활용-실력다지기’ 순으로 잡고, 학습자가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세워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오른쪽 날개 지면을 할애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낱말이나 용어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학습 요소를 재 강조하기도 하고, ‘보충 학습’에서는 고사나 성어를 만화를 이용하여 재미있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단원마다 ‘단원 정리’ 단계를 두어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였다.

(2) 문원각

‘본문-학습 활동-함께 하는 열린 교실-다지기’ 순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학습 목표를 ‘배울 내용’이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단순히 목표만 제시한 것에서 탈피한 점이 특징이다. 몇 단원에서는 본문을 시각적·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일견하여 학습에 이해를 돕도록 하고, ‘함께 하는 열린 교실’ 단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실용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생각해 보자’에서 이를 스스로 찾아보고 사고하는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설명이 요점적으로 이루어져 여유 있는 지면의 활용이 돋보인다.

(3) 청색

‘본문-도움 마당-생활 마당-풀이 마당-쓰기 마당’ 순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대단원마다 ‘단원을 배우기 전에’를 두어 학습할 내용을 만화를 통하여 스스로 미리 알아보고 머리에 상기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본문에서는 학습 내용과 삽화를 교육적으

로 연결시켜 교육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면 활용을 창의적으로 하였다. ‘풀이 마당’에서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실제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있다. 특히, 단원의 끝에 ‘이야기 속의 한자’ 난을 두어 고사나 성어를 풀이하거나 한자어와 관련한 내력을 설명하여 학습에 흥미를 돋우도록 하였다.

(4) 한국교육미디어

단원 체제를 ‘본문-스스로하기-(함께 해보기)-한 걸음 더-학습 평가’ 순으로 하고, ‘단원의 길잡이’에서 단원의 내용을 미리 전체적으로 상기해 보게 하거나, 소단원에서 ‘학습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학습 목표나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특히, ‘탐구 1~4’의 단계를 두어 각 단계마다 학습 내용을 달리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타 교과서와 다르다. 즉, 설명 방법만으로 학습 내용을 안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고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5) 한서출판

‘다가서기(본문)-꼭 알고 가기-쓰임 익히기’ 순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각 부분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학습이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가서기’에서는 학습 목표를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배울 내용을 낱말의 구조나 낱말군의 예를 들어 학습할 요점의 이해를 돕고 있다. ‘Q & A’와 ‘교실 밖 한문 여행’에서는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설명의 방법을 달리하여 전개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단원 말미에 ‘토론 활동’ 난을 두어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금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6) 지학사

‘본문-터담기-다지기-한 걸음 더’ 순으로 단원 체제를 잡았다. 낱개에 학습 요소와 이에 필요한 도움말을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돋보기’ 난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고사나 성어를 자세하게 풀이하여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스스로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고문, 연설문, 일기, 소설 등의 문장 유형을 통하여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사용에 실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 걸음 더’에서는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사고력을 증진하는 학습 활동을 간단하게 요구하였다.

(7) 동화사

단원 체제를 ‘본문-본문 연구-한 걸음 더-확인 학습’ 순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낱개에 보충 설명을 하여 학습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본문에서나 설명 과정에 삽화나 사진, 그림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미적 효과를 배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읽고 생각하기’ 난에서는 한자나 한문 공부에 필요한 상식적인 예화를 들거나 아니면 고사나 성어 등을 풀이하여 스스로 학습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바르게 읽고 쓰기’ 단계에서는 한자, 한자어를 필순까지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한자를 쓰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한자 쓰기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유도하였다.

3. 교과서 활용 방법

○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 수립

한문 교과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지양하

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 스스로 또는 교사의 안내를 받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문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 열린 교과서관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
중학교 한문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교과서 활용 방법을 포함하여 새로운 학습 자료를 개발, 이용하는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교수·학습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중 하나라는 열린 교과서관을 가지고 학생의 능력,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도입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보충·심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자, 한문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은 천차만별이므로 교실 상황에서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학생들이 한자, 한문 학습에 흥미를 갖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문화를 고양하는 학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다.

○ 교실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과서 활용
아무리 참신한 체제로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해도 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교수·학습 상황을 설정하느냐, 교과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학습 상황을 설정해 주는 등 한문 교육 패러다임의 발상적 전환에서부터 교실의 변화가 시작됨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과서의 질에 좌우되며, 나아가 교실의 변화는 교과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교사에

달렸다는 소박한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 학

이 범 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2 001년부터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갓 선보인 새 교과서는 이전에 사용해 왔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새 교과서가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같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새 교과서에서 동원하고 있는 소재, 내용 이해를 위한 방법 그리고 동원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을 종적(6, 7 차 비교), 횡적으로(7 차 비교) 살펴보아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1종과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1 종, 횡적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 3 종이었다. 한편 교과서 내용의 분석에서는 7 차 교육과정과 6 차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개념 이해를 요구하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국한하였다.

1. 교과서 내용 제시 비교 분석 준거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6 차와 7 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서 사이에, 그리고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 사이에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데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소재
- 나. 쪽당 제시한 문장의 비율(종적인 분석에만 적용)
- 다. 전체 쪽수에 대한 주어진 내용에 할애한 쪽수 비율(횡적 분석에만 적용)
- 라. 쪽당 제시하고 있는 삽화와 사진 수
- 마. 활동의 수와 유형
- 바. 내용 이해를 위한 설명 방식
- 사.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제시한 사항
- 아. 기타 특징적 사항

2. 종적 분석 결과

위와 같은 분석 기준에 따라 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와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표 1>에서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활용 소재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6차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소재를 동원하고 있다.

둘째로 쪽당 문장 비율면에서 6차 교과서에서는 설명식 문장이 40%를 차지하는 반면 7차 교과서에서는 그 비율이 26% 정도로 매우 작아졌다.

셋째로 쪽당 사진 삽화 수를 보면 6차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의 경우 더 많은 사진과 삽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시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의 크기가 커졌고 외국의 것을 빌려오기보다는 직접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며 질도 매우 높아졌다.

넷째로 7차 교과서에서의 활동은 그 수도

많고 내용도 매우 다양해진 한편, 6차보다 오히려 절차에 따라 활동을 하게 하고 그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어 과학적 방법의 체득이나 스스로 과학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로 설명 방식은 6차 교과서가 논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 방식이라면 7차의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 방식을 가능한 한 지양하여 학생 스스로의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로 6차 때의 교과서는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은 매우 적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서는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3. 횡적 분석 결과 비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를 위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에서 보면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이지만 내용의 구성이나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개념 이해를 위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서 A와 B는 실생활 관련 소재를 가급적 많이 활용하여 개념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C는 정확한 과학 개념에 초점을 두어 실생활 관련 소재를 중시하지만 이보다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관련 개념에의 접근성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활용 소재에서는 교과서 A와 B가 C에 비해 다양성이 컸다. A와 B는 관련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반면 C는 관련 과학 개념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고 있다.

둘째로 문장 제시 비율에서 보면 C가 가장 낮았고 B가 가장 높았다.

셋째로 사진 삽화 수에서 보면 A가 가장 많은 삽화를 제시하고 있었고 B와 C는 그 수가 비슷하였다.

넷째로 활동의 수와 유형을 보면 교과서 A와 B는 교과서 C와 구별되었다.

다섯째로 설명 방식에서는 교과서 A와 B는 그 방식이 비슷하였지만 교과서 C는 A와 B에 비해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일반화 정도가 대체적으로 더 높았다.

여섯째로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 제시 사항을 보면 A와 B는 실생활 내용을 가급적 많이 넣어 학생의 경험과 밀접히 관련됨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C의 경우에는 학습 결과가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제시하여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글은 교과서 분석을 위해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교과서를 일별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보다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1】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분석 결과

구분	제 6 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제 7 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비고
1. 활용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액체, 기체가 함께 놓여 있는 주방 ○ 기차 레일 ○ 수은, 알코올 온도계 ○ 찌그러진 공 ○ 컵에 담아 놓은 물 ○ 산소, 수소, 납 ○ 요오드 ○ 스케이팅 ○ 옷장 속의 나프탈렌 ○ 물이 든 컵을 겨울날 밖에 놓아 둔 상황 ○ 드라이아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 눈이 쌓여 있는 강 주위 환경 ○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 ○ 얼음 가게, 해수욕, 화재 장면 ○ 광석으로서의 금과 금괴 ○ 초와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녹는 현상 ○ 버터를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하는 장면 ○ 사물놀이 장면 ○ 페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장면 ○ 포크에 묻어 있는 물방울 ○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 사막과 물 ○ 막걸리의 증류 ○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 ○ 열기구 ○ 요오드 ○ 방충제 ○ 드라이아이스 ○ 초를 녹인 다음 물감을 타서 다시 굳혀 초를 만드는 장면 	

2. 쪽당 문장 비율	40 %	26 %	지시문이나 실험 절차 등은 문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3. 쪽당 삽화· 사진 수	1.4 개	2.4 개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음.
4. 활동	수	4 가지	9 가지 (보충·심화에 제시한 활동 포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액체, 기체의 공통점 찾기 ○ 요오드 상태 변화 관찰 ○ 드라이아이스의 부피 변화 관찰 ○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와 조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실험) 6 개 ○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고 결과를 제시하는 활동 3 개
5. 설명 방식	○ 연역적 설명을 주로 하여 내용 전개	○ 연역적 설명과 귀납적 설명으로 내용 전개	
6. 흥미 관심 관련 내용		○ 대부분의 소재를 실생활 관련 내용으로 하여 학생의 경험과 밀접해지도록 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음.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접시 저울 사용법 제시 ○ ‘활동’을 상징 그림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집원(에듀넷) 소개 ○ 자원 재활용 기호 ○ 관련 선수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결과 확인을 유도하는 지시문과 질문 제시 ○ 보충·심화 활동 제시 	

【표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구분	교과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1. 활용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잠수 장면 ○ 모터보트 놀이 장면 ○ 빙벽 등반 장면 ○ 자동차-구조, 에어백 ○ 수레 ○ 쇳물 붓는 장면 ○ 마가린 녹이는 장면 ○ 에탄올의 상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 눈이 쌓여 있는 강주위 환경 ○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 ○ 얼음, 가게, 해수욕, 화재 장면 ○ 광석으로서의 금과 금괴 ○ 초와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녹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와 그림자 ○ 물체의 질량 비교 ○ 주변의 물체(수저, 컵, 에탄올, 기름, LPG,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등) ○ 구슬, 물, 공기 ○ 주위 물질 중 고체, 액체, 기체 ○ 연필, 물, 공기

1. 활용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제 (드라이아이스와 에탄올의 혼합물)를 이용한 물 얼림 ○ 물감물의 건조 ○ 무대 장식(드라이아이스 이용) ○ 유리창의 김서림 ○ 서리 ○ 초의 녹음 ○ 초콜릿의 녹음 ○ 드라이어에 의한 머리 말림 ○ 물의 끓음 ○ 냉동실 안에서 물을 얼림 ○ 화채 그릇 곁에 생긴 물방울 ○ 아이스크림의 녹음 ○ 아세톤의 상태 변화 ○ 책, 물, 풍선 속 물질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터를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하는 장면 ○ 사물놀이 장면 ○ 페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장면 ○ 포크에 묻어 있는 물방울 ○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 사막과 물 ○ 막걸리의 증류 ○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 ○ 열기구 ○ 요오드 ○ 방충제 ○ 드라이아이스 ○ 초를 녹인 다음 물감을 타서 다시 굳혀 초를 만드는 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 ○ 오로라 ○ 물의 상태 변화 ○ 얼음을 넣은 컵 표면의 물방울 ○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 ○ 요오드의 가열 ○ 나프탈렌과 드라이아이스 ○ 눈 ○ 고드름 ○ 초 ○ 동결 건조로 만든 야채 스프와 커피 	
2. 문장 비율	15 %	26 %	10 %	
3. 사진· 삽화 수	3.2 개	2.4 개	2.4 개	
4. 활동	수	13 가지(보충·심화 활동 포함)	9 가지(보충·심화에 제시한 활동 포함)	7 가지(보충·심화 활동 포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를 위한 활동 1 가지 ○ 절차와 조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 4 가지 ○ 간단한 관찰이나 놀이를 통한 활동 8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와 조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실험) 6 가지 ○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사고 결과를 제시하는 활동 3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와 조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하는 활동(실험) 4 가지 ○ 간단한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토의 3 가지
5. 설명 방식	○ 귀납적 설명+연역적 설명	○ 귀납적 설명+연역적 설명	○ 활동 결과를 일반화하는 설명	
6. 흥미, 관심 내용	○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재를 학생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제시하여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시한 대부분의 소재를 실생활 관련 내용으로 하여 학생의 경험과 밀접해 지도록 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음.	○ 학습과 관련되는 실생활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 과학 학습 결과의 유용성을 강조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개에 앞서 실생활 소재를 동원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학생의 관심을 촉구 ○ 소단원 전개에 앞서 목표 제시 ○ 낱말 채워 넣기 퍼즐 제시 ○ 문장 대신 여러 가지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기호(아이콘)를 만들어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집원(에듀넷) 소개 ○ 자원 재활용 기호 ○ 관련 선수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결과 확인을 유도하는 지시문과 질문 제시 ○ 보충·심화 활동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내용을 물음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을 진행하도록 구성 ○ 내용 관련 정보 수집원(인터넷 사이트 소개) ○ 학습 결과의 자가 진단 문항 제시
-------	--	---	--

사 회

노 혁 방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사회 I 교과서의 공통적 특징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중학교 사회 1 2종 교과서는 현재 6책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가. 친근한 교과서를 추구하였다. — 생활과 연계된 사례 중심의 교과서

딱딱하고 개념 중심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보다 재미있고, 친근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안내에서는 본문 내용 및 학습해야 할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의 경험,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대·중·소단원 별로 단원을 여는 도입글을 생활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사례(예를 들어 축제 이야기, 생각열기 등)를 문제 제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학습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본문 내용은 핵심 개념 중심으로 최소화하

고, 이와 관련 있는 유용한 읽기 자료들을 ‘도움 자료’, ‘자료 상자’,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였으며, 그 구성은 여행기, 경험담, 편지글 형식을 취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은 가상 여행기 제작, 신문 제작, 도시 탐구, 지역 여행, 나의 역사 쓰기, 역사 속의 인물과의 인터뷰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삽화로 구성하거나, 사진이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풍부히 제공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사진은 가능한 크게 편집하여 학생들이 지리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 친절한 교과서를 추구하였다. — 교육 과정의 안내자로서의 교과서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가장 친절한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교과서마다 ‘활동’, ‘탐구 활동’, ‘활동 과제’의 형식으로 다양한 학생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실이나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탐구, 정보 수집, 토의, 토론, 역할극, 시뮬레이션, 가상 인터뷰, 의사 결정, 문

제 해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념을 습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 과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기본 학습 요소는 본문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보충·심화 과정을 위하여 별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보충 과정의 내용이 교육 과정에 따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단원 혹은 대단원별로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 혹은 ‘단원 정리’ 등의 내용 정리 및 문제 해결 학습을 배치하였고, 백지도를 활용하여 보충 학습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심화 과정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실행 과제를 주었다. 이때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고려하고, 사회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듈별 활동 과제를 두기도 하였으며, 심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도 성취 기준이 높은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간형 구현을 위하여 각 단원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여 ICT 활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진이나 그래프는 본문 내용과 연계된 학습 자료로서의 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명을 첨부하거나 과제를 두었고, 특히 사진의

경우 그 위치를 안내하는 삽입 지도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 장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호감가는 교과서를 추구하였다. — 디자인과 편집이 참신한 교과서

다매체 시대, 컬러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된 사회1 교과서는 디자인과 편집에서 이전의 교과서와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우선 판형이 커지고, 종이의 재질이 좋아졌으며, 칼라화되는 등 교과서의 외형 체제가 개선되었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세련되고 감각 있는 북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어 신선하고도 다양하며, 창의적인 편집 기법이 돋보이고 있다.

지리, 역사, 일반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사회 교과서에서의 사진, 지도, 도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부분 교과서에서 보다 크고, 선명하며, 유용도가 높은 자료들을 본문과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배치하였다. 이러한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의 변화는 시대와 학생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책간 체제 비교 — ‘6. 유럽의 생활’ 사례

구분	출판사	특 성
제목	고려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원명부터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서술형 문장을 제시함. 소단원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함. 예) ① 서부 및 북부 유럽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땅은 어떤 곳인가? <input type="checkbox"/> 서부 및 북부 유럽으로 가는 길 — 런던의 히드로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제목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원명에서는 주제어를 제시함. 소단원명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의문형 문장을 제시함. 예) 1. 근대 산업의 요람지 □ 서부 및 북부 유럽에서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배경은 무엇인가?
	동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단어들을 제시함. 예) 1. 자연 환경의 특색 평야와 빙하 지형의 발달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단원명은 교육과정에 준하고, 중단원부터는 주제 중심으로 지역의 사실적 특성과 의미를 내포하는 은유적 표현 혹은 주관적 해석을 혼합함. 예) 유럽 평원은 기름진 곡창, 라인 강은 젖줄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원은 내용의 요지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어로 제시한 후, 소단원은 내용의 요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제시함. 예) 1. 자연 환경 유럽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을 쉽게 풀어 써서 제시함. 하위 주제의 제목은 서술형으로 제시함. 예) 1. 자연 환경 중부에는 평야가, 남부에는 산지가 발달하였다.
목표	고려출판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성취 기준 형식으로 제시함.
	금성출판사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세분하여 제시하고, 하위 주제의 학습 목표는 제목으로 제시함.
	동화사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의문형의 문장으로 제시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디딤돌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하나의 문장형으로 제시하되, 주로 인지적 영역 목표를 제시함.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성취 기준 형식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지학사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성취 기준 형식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구성 체제	고려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안내 : 대단원 도입글을 제시하고, 중단원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배치하여 학습 목표를 기술함. 본문 : 학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사례로부터 본문 전개를 시작함. 그림 지도를 활용하여 이해를 도움. 학습자 중심의 해결 과제 제시-개념 학습 유도. 지역 이해를 위한 자료 구성. 주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문 내용 구성 심화 과정 : 단원 끝에 배치. 사례를 통한 개념 이해. 양면 구성. 교육 과정 이외의 심화 활동 구성 학습 정리 : 대단원의 주요 내용, 학습 문제, 인터넷 자료 제시

구성 체제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안내 : 대단원 도입글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하고 대단원 전체에서 학습해야 할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 소단원 별로 ‘생각 열기’를 두어 흥미 유발 • 본문 : 본문 내용 진술과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활동의 과제가 구체적임. 활동이나 사진 자료와 연계하여 내용을 진술함. 사진과 도표, 지도 등의 자료가 크고 선명함. 활동을 통한 개념 이해 학습 제시. 다양한 편집 기법, 세련된 북 디자인.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읽기 자료 제시. 사진의 위치를 삽입 지도에 표시함. • 심화 과정 : 도입글, 단원 끝에 배치, 단면 구성 • 학습 정리 : 대단원별로 제시. 지도 정리. 내용 정리. 퍼즐 형식의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
	동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안내 : 중단원별로 도입글을 제시하고, 지역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 있는 읽기 자료(예 : 독일의 맥주 축제)와 사진을 본문 측면에 배치 • 본문 : 본문에서 내용 서술을 줄이고, 사진과 도표,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주요 내용은 붉은 글씨 처리. ‘활동 과제’를 두어 학습자가 수행하도록 함. 본문과 사진을 다양하게 편집함.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소개하여 지역 이해를 도움. 재미있는 삽화의 적절한 활용 • 심화 과정 : 단원 끝에 편집, 양면 구성, 대화체 자료 제시, 캐릭터 활용 • 학습 정리 : 대단원별로 구성 - 지도를 이용한 내용 정리와 문제 풀이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안내 : 단원 도입에 주제를 확인하는 도입글 제시. 그림 지도 이용 • 본문 : 차시별 주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집. 본문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자료를 이용한 학습 강화. 학습 목표를 탐구 활동의 학습을 통해 성취하도록 구성. 학습 목표에 제시된 내용이 생략된 경우가 많음. 여백을 고려한 북 디자인.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적절히 배치함.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도시 탐험’ 등의 자료 구성. ‘도시 탐험’ 등의 아이디어적인 기획 편집 • 심화 과정 : 본문 중 관련 내용이 제시된 다음 페이지에 ‘더 생각해보기’ 형식으로 편집. 모둠 활동 강화 • 학습 정리 : 내용 정리 구조화. 문제 풀이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안내 : 대단원 안내 - 세계 지도 배치. 도입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제시. 중단원별로 문제 제기형 도입글 제시 • 본문 : 본문 내용 기술시 제시된 사진이나 자료들을 연계하여 설명.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활동 강화 - 사진과 그래프에 자료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활동 제시. 시사적인 자료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읽기 자료 구성. 다양한 탐구 활동과 문제 해결 과정 제시. 사진을 지도에 표시함. 수행 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제시. 멀티미디어 학습을 위한 CD-ROM 활용 코너 구성 • 심화 과정 : 중단원별로 단원 끝에 편집. 교육 과정에 제시된 이외의 심화 학습 활동 제시 • 학습 정리 : 중단원별로 보충 학습을 위한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 코너 배치 - 백지도와 문제 풀이 제시. 대단원 - 내용 정리 및 문제

구성 체제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안내 : 중단원별로 도입 내용에 한 면을 할애하여 그 지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제시함. 소단원별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함. • 본문 : 지도와 그래프에 관련 문제 제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 제시. 선명하고 유용도 높은 사진 자료 배치.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고려한 학습 활동 지도 자료에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질문 제시. 지역간 비교를 통한 지역 이해 방법 이용. ‘자료 상자’, ‘생활 속으로’ 등의 읽기 자료 제공. 본문 진술시 자료를 활용함. ‘지리 여행’ 코너 구성 • 심화 과정 : 자료 제시 후 과제 수행 - 자료와의 연계성에 바탕을 둠. • 학습 정리 : 중단원별로 보충 학습을 위한 ‘스스로 학습’을 ‘본문 내용 확인하기’, ‘생각하기’, ‘활동하기’로 구분함. 대단원 마무리 - 내용정리, 시사초점, 퍼즐 학습, 정보 활용, 보고서 만들기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고려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활동 구성. 추론과 분석을 통한 탐구 학습. 토의 및 토론 학습 활동 제시
학습 방법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서 제시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 방법 제안. 사진, 그래프를 활용한 탐구 학습, 백지도 활용 학습, 토의 및 토론 학습, 여행 계획 세우기 등의 프로젝트 학습 등의 활동 제시
	동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마다 사진, 그래프를 이용한 탐구 학습, 자료 조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모듈별 협력 학습, ICT 활용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방법 제안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자료를 활용한 탐구 학습, 그래프 활용 학습,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학습, 역할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등을 본문 전개나 ‘탐구 활동’의 과제 형태로 제안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그래프 등을 이용한 문제 해결 학습, 다양한 형태의 탐구 활동을 통한 탐구 학습, 역할 학습, 신문 제작 학습, 관광 자료 구성 학습, 지역 이해 학습, 토의·토론 학습, 신문 활용 학습 등의 학습 방법 제안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학습, 토론 학습, 조사 발표 학습,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학습, 자료 해석 학습, 모듈별 협력 학습, 가상 여행기 작성 등의 프로젝트 학습, 역할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 제안
평가 자료	고려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중의 활동 내용을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문제 풀이를 이용한 형성 평가 가능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수행을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하거나 과제에 따라 형성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
	동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지도, 도표 등에 제시된 문제를 이용한 평가, 활동 과제에 제시된 과제의 수행 평가, 학습 정리의 자료를 이용해 확인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활동의 활동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모듈별 협력 학습 활동 평가, 백지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 가능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별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의 백지도를 활용한 평가 및 학습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 대단원 정리의 수행형 평가, 탐구 활동의 수행 능력 평가 가능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활동의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거나 ‘스스로 학습’을 이용한 형성 평가 가능

3. 교과서 활용 방안

새로이 개발된 사회 1 교과서는 주제 혹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제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새로운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이념과 목표, 내용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지역과 학교의 실정 및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학습, 지식 이해 학습, 자료 활용 학습, 인터넷 활용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학습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형태의 활동, 탐구 활동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보충 과정이나 심화 과정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활용하거나 교사가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또, 생활 속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된 단원 안내의 도입글 등을 활용하여 문제 의식을 갖게 하고, 각종 읽기 자료,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체 육

최 성 식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의 안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과 교과서의 질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6차 체육 교과서는 교과서의 외형 체제뿐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선정된 체육 교과는 학생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시켜 개인의 기능과 체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체육학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시켜 운동 상황이나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고, 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회적·윤리적 규범을 체득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와 같은 체육 교과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금번에 집필되는 체육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체제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독창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 교과서의 판형은 국판(148×210mm)이다. 이와 같은 크기는 면이 좁아 펼쳐서 보기가 불편하고 편집의 다양성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금번에 판형을 4×6 배판(187×257mm)으로 확대하고, 색도를 2도에서 4도로 늘려 다양한 편집 체제를 도입하고, 충실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행 체육 교과서는 8개 영역에서 34개 단원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습량은 현실 여건상 이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의 내용과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 필수 학습 요소(필수 내용)만을 선정,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학년별로 기초, 복합, 경기 기능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 구성을 종목별로 기초, 복합, 경기 기능을 모두 익히도록 하였다.

현재의 체육 교과서는 각 영역별로 대부분 6~12차시 동안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수량 또한 현실 여건을 수용하지 못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단원의 구성을 나열식으로 하지 않고 영역별로 구성하여 교사가 지역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 제7차 체육 교과서의 특성

가. 새로운 체육 교과서는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체육 교과서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학생 자신의 능력이나 향상도 또는 자기 평가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워크북의 형태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나. 체육 교과서의 내용은 영역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영역별 제시 방식은 학교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려서 학교 및 교사 또는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계절이나 학교 행사 등의 일정에 따라서 체육 교과서의 내용을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각 영역의 내용을 시기별로 조정하여 각 영역의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수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 여건,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실질적인 학습 도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다. 제7차 중학교 체육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체육 교과서에 필수와 선택 활동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학년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최소 필수와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학생들의 선택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체육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는 필수 내용은 반드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 내용은 각 학교의 현실 및 교사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1학년 2종 교과서의 체제 비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 교과서는 그 내용 체제에 있어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내용 선정에 있어 다소 융통성을 두고 편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형 또한 4×6 배판으로 하여, 다양한 편집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선에서도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는 도서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이에 1학년 2종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6권의 책 중 두산동아(이후 두산), 천재교육, 보진재 출판사의 체육 도서의 체제를 비교해 보고, 이에 따른 교과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가. 단원의 구성

이 세 권의 단원은 크게 이론, 실기, 보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책의 서두에 들어가기와 책 끝 부분의 부록, 찾아보기 및 인용 및 참고 자료로 지면을 할애했다. 도서별 지면의 할애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도서별 지면 할애율

구분	두산	천재교육	보진재
들어가기	6(3.45)	9(5.14)	7(4.60)
이론	24(13.79)	23(13.14)	15(9.87)
실기	108(62.07)	96(54.86)	106(69.74)
보건	34(19.54)	36(20.57)	22(14.47)
부록		4(2.29)	
찾아보기	2(1.15)	5(2.86)	2(1.32)
인용 및 참고 자료		2(1.14)	
전체 쪽수 쪽수(비율)	174(100)	175(100)	152(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쪽수는 두산과 천재교육이 각각 174, 175 쪽, 보진재는 152 쪽으로 하여, 보진재의 전체 쪽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 외의 두 도서는 1 쪽 차로 유사했다. 들어가기의 전체 면에 대한 할애 비율은 두산이 3.45 %, 천재교육이 5.14 %, 보진재가 4.60 % 정도로 되어 있다. 이론은 두산이 13.79 %, 천재교육이 13.14 %, 보진재가 9.87 %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실기편은 두산 62.07 %, 천재교육 54.86 %, 보진재 69.74 % 정도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보건편은 두산이 19.54 %, 천재교육이 20.57 %, 보진재가 14.47 %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부록과 인용 및 참고 자료는 천재교육만이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찾아보기는 두산이 1.15 %, 천재교육이 2.86 %, 보진재가 1.32 % 정도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상의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책의 구성이 책별로 주안점을 달리 두어 다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의 수업에 주안점에 맞추어 적절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세부 단위

전체 단원의 세부 단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세부 단위

구분	두산	천재교육	보진재
이론	1. 체육의 본질 2. 체육의 가치	1. 체육의 본질과 가치	1. 체육의 본질 2. 체육의 역사 3. 철학적 가치 4. 체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실기	1. 육상 2. 체조 3. 수영 4. 태권도 5. 핸드볼 6. 축구 7. 무용 8. 체력 운동	1. 체력 운동 2. 체조 3. 육상 4. 수영 5. 태권도 6. 스키 7. 탁구 8. 핸드볼 9. 축구 10. 무용	1. 체력 운동 2. 육상 3. 체조 4. 수영 5. 태권도 6. 탁구 7. 스케이팅 8. 축구 9. 핸드볼 10. 창작 무용
보건	1. 건강한 생활 2. 공중 보건 3. 성의 이해	1. 건강과 공중 보건 2. 질병과 건강 3. 청소년과 성 4. 우리가 가꾸는 환경	1. 공중 보건 2. 환경과 보건 3. 성장과 성의 이해

내용에 있어서 이론편은, 두산과 천재교육은 체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진재는 그 외에 역사를 첨부하였다. 실기편은 필수 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 핸드볼, 무용, 체력 운동 이외에 선택 종목으로, 두산은 축구와 태권도를, 천재교육은 태권도, 스키, 탁구를, 보진재는 태권도, 탁구, 스케이팅을 각각 채택하였다. 보건편은 공중 보건과 성, 환

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표와 같이 선택 종목에 의한 다양화된 교과서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역 환경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단원별 내용의 구성 체제

단원별 내용의 구성을 비교함에 있어, 이론 편 첫 소단원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전체 구성을 단원의 도입 방법, 본문, 보충 및 심화, 정리,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단원 내의 체제

구분	두산	천재교육	보진재
단원의 도입	학습 목표	학습 목표	학습 목표
보충 및 심화	박스, 생각해 보자, 조사해 보자, 이야기해 보자.	박스, 더 알아보기, 토의하기	박스 학습 자료 탐구 과제
정리	학습 내용 정리	학습 정리	학습 정리 단원 정리 퍼즐
평가	자기 평가 (질의 응답, 활동 과제)	점검하기 학습 평가 발전 과제	확인 학습 자기 평가 보고서

단원의 도입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주제를 명시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두산은 질문에 의한 동기 유발 방법으로, 천재교육은 질문과 명제 방법으로, 보진재는 설명에 의한 명제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충 심화 부분은 좌우단, 하단 부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산은 생각해 보자와 제목은 달지 않았으나 단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박스로 제시하고 있으며, 천재교육은 더 알아보기, 토의하기의 방법과 박스로, 보진재는 학습 자료, 탐구 과제의 형식으로 내용을 편성하였다.

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과 천재교육은 소단원 마지막 부분에 각각 학습 내용 정리와 학습 정리의 형식으로, 천재교육은 학습 정리와 단원 정리 퍼즐의 형식으로 하였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 다음에 이어서 두산은 자기 평가와 본문 중간에 조사해 보자, 이야기해 보자의 방법으로 질의 응답과 활동 과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재교육은 본문 중간에 점검하기 형식의 형성 평가와 단원 마지막 부분에 학습 평가와 발전 과제의 형식으로, 보진재는 단원 마지막 부분에 확인 학습과 자기 평가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사진과 그림에 의한 설명으로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 원리와 실기 동작의 설명에 있어서 실기 동작을 연속된 사진으로 제시하거나 그림으로 정확한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있다. 또한, 운동 기능의 이해를 중요시하는 과정 중심, 게임 중심의 내용 체제로 구성하여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많은 그림을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라. 제언

위에서 간단히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체제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전공과 지역 환경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

도록 하고, 교과서의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가 따로 필요가 없을 만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자기 학습이 가능해졌으므로, 교과서를 이용한 이론의 강화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음 악

양 종 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는 최종 9종이 선정되었다. 검정 심사를 신청한 음악 교과서가 31종이었으니 합격률은 29%이다. 최종 9종은 정규 검정 심사에 5종과 재검정 심사에 합격한 4종을 합친 수이다. 정규 검정 심사에 합격한 5종은 2001년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재검정 심사에 합격한 4종은 2002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규 검정 심사에서 합격한 5종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금번 교과서의 공통적인 특징과 책별 특성에 두고자 한다

<표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최종 합격본

연번	출판사	저 자	비 고
1	두산	이흥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정규 검정 심사
2	아침나라	윤경미, 문진	정규 검정 심사
3	성안당	최필립, 김영재, 신금식, 유제향	정규 검정 심사

4	지학사	윤명원, 김영희	정규 검정 심사
5	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정규 검정 심사
6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재검정 심사
7	교학연구사	조창제	재검정 심사
8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재검정 심사
9	동진음악출판사	김준수, 동훈	재검정 심사

1.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공통적인 특징

가. 교과서 구성의 특성

(1) 제재 악곡 중심의 단원 구성

금번 교과서 검정을 위한 『제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한 2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교육부, 1999)』의 ‘단원 구성’에는 “제재 악곡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내용은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다양한 악곡이나 학습 자료를 제시한다.”라고 쓰고 있다. 즉 단원은 제재 악곡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제재 악곡을 단원의 맨 앞쪽에 배치하고 그와 관련된 가창, 감상, 기악,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악곡이나 이론을 그 다음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는 단원 구성에 약간의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각 단원에 ‘봄 노래’, ‘흥겨운 우리 음악’ 등의 별도의 제목을 만들어 하위 내용으로 가창, 기악, 감상곡을 배치하여 구성하거나, 가창곡과 감상곡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악곡들 간의 관련성을 높이려고 했다면, 후자의 경우는 가창 악곡과 감상 악곡을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각 악곡의 특성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평가 구분 제시
각 단원은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평가가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한 2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5종의 교과서의 학습 목표, 활동,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은 그 구조가 유사하다. 즉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그리고 학습 평가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하여 학습 방법과 평가는 깊은 관련성을 가져, 학습 과정이 유의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 목표로 ‘악곡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 두 도막 형식을 이해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 활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재 악곡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그림을 제시하고 평가에서는 악곡 구조에서 중시되는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에 관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교과서는 모든 단원에서 이러한 구성 형식과 내용이 맥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교과서의 내용적 특성

(1) 한국 전통 음악 강조

모든 교과서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드러난다. 모든 교과서는 제재곡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제주도 등의 지방 민요를, 기보법으로 정간보를, 감상곡의 30~50%를 한국 전통 음악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악 이외에도 12율명, 긴 자진 형식, 우리 나라 음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금번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는 특히 가창, 기악, 감상 부분에 한국 전통 음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음악 사용

교과서의 제재 악곡 중 민요만 보더라도, 과거 교과서에서는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서방 선진국 민요를 위주로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의 교과서에는 이념적 차이로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던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국가인 터키, 잠비아, 이스라엘 등의 민요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금번 교과서가 다양한 지역의 음악을 싣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제시된 악곡의 시대를 살펴보면, 한국 전통 음악의 풍으로 현대 작곡된 다양한 창작 전통 음악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대중 음악, 서양의 대중 음악, 그리고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세 음악도 나타나고 있어 금번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음악은 과거 전통 음악 위주의 음악에서 보다 폭넓은 시대의 음악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번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가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음악을 싣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표 2>는 각 교과서에서 사용한 제재곡의 지역과 시대를 조사한 것으로 그 다양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3) 다양한 교수·학습과 평가 제시

금번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다양한 교수·학습과 평가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학습 활동과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정간보를 이해하는 것을 만화로 제시하거나(천재 교육, 17), 음표의 길이를 사물의 소리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지학사, 7), 그림을 소리로 만들어 보게 하거나(지학사, 61/아침나라, 53), 음악을 그림으로 개념화하거나(지학사, 70), 영화 음악 만들기와 같이 아주 새로운 창작 형태를 제시하거나(성안당, 61), 음악의 형식을 기차로 표시하여 구분하게 하거

〈표 2〉 각 교과서의 지역과 시대 특성

출판사	지역	시대	특성
천재교육	한국, 서방 선진국, 보 헤미아, 한 국, 중국 등	중세, 조 선 시대 부 터 현대 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 고려
지학사	한국, 서방 선진국, 러 시아, 중 국, 이스라 엘, 스페인 등	고전, 조 선 시대 부 터 현대 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 고려
아침나라	한국, 서방 선진국, 중 국, 터키, 잠비아, 이 스라엘, 헝 가리 등	고전, 조 선 시대 부 터 현대 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 고려
성안당	한국, 서방 선진국, 보 헤미아, 터 키, 러시아 등	중세, 조 선 시대 부 터 현대 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 고려
두산	한국, 서방 선진국, 이 스라엘, 보 헤미아 등	고전, 조 선 시대 부 터 현대 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 고려

나(아침나라, 13, 55) 등의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평가 방식 역시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자기 취향대로 멋을 살려 세마치 장단에 맞춰 이 곡을 노래해 보자”와 같이 배운 곡에 대하여 개인적 취향대로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학생들이 직접 교과서에 답을 쓸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하기도 하며,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평가나 감상문을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 기록지 형태(두산, 17/아침나라 68, 69)나 감상문 쓰기 양식(지학사, 67)을 제시하기도 한다.

2. 책간 체제와 내용 비교

가. 단원 제목

단원 제목 제시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제재 악곡들을 묶어 별도의 단원 제목을 만든 경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제재 악곡의 곡명을 단원 제목으로 쓰는 경우이다.

제재 악곡명과는 별도로 단원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봄의 노래’, ‘흥겨운 우리 음악’, ‘정다운 친구’ 등 음악의 개념보다는 제재 악곡의 내용이나 제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두산), ‘계절을 노래하자’, ‘사랑을 노래하자’, ‘소리의 울림을 즐기자’ 등 음악적 개념보다는 음악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자극하는 경우(아침나라), ‘봄’, ‘전통 음악’, ‘합창’, ‘돌림 노래’, ‘혼성 합창’ 등 음악의 장르나 활동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성안당)로 나눌 수 있다. 제재 악곡의 곡명을 단원 제목으로 쓰는 경우는 5개 출판사 중 2개로 나타나는데, 2가지 교과서는 가창 제재곡의 제목을 단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목표

모든 교과서는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 방식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양하게 진술되어 있다.

예컨대, ‘가사의 내용에 따른 가락의 흐름을 뚜렷이 나타내며 노래 부른다’(두산), ‘제재곡을 타령 장단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다’(아침나라), ‘타령 장단을 익힌 뒤에 장구 장단에 맞춰 노래한다’(성안당), ‘풍물놀

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불러 본다'(지학사),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 부른다'(천재교육) 등 출판사에 따라 목표를 '~부를 수 있다'로 수준을 정해 주는 형태와 '~ 노래한다', '~ 부른다' 혹은 '~ 불러 본다'와 같이 행동의 수준보다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목표 진술로 나눌 수 있다. 목표 내용은, 모든 교과서는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제시되는 목표는 '노래하기'와 '이해하기'이며, 창작과 관련한 '만들어 보기', '지어 보기'는 드물게 나타난다.

다. 구성 체제

단원 구성 체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 단원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두산/아침나라), 둘째, 음악의 활동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성안당), 셋째, 각 단원을 1개의 제재곡과 활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지학사/천재교육)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우, 음악 장르나 개념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제재 악곡의 제목이나 음악적 느낌을 중심으로 제재곡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느낌을 중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우, 음악의 활동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 교사는 활동별로 된 단원에서 악곡을 선택하여 적절한 시점에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의 개념이나 활동 중심으로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할 것이다. 셋째 경우, 제재곡을 묶지 않고 1개의 제재곡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면, 교사의 재량으로 음악의 감정, 음악 개념, 혹은 활동 방식 어떤 것이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어 교과서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좋은 형태가 될 수 있다.

라. 특정 내용

(1) 두산

두산의 특정 내용은 학습 자료와 용어 해설을 교과서 맨 뒤쪽에 한꺼번에 배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발성 연습곡을 실어 발성 연습을 악보와 함께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듬, 가사, 신체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즉흥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세계의 민요와 대중 음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아침나라

아침나라의 특정 내용은 일본 전통 음악 연주 사진, 헝가리 음악, 평가 기록지, 음가에 맞춰 춤추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림, 칸딘스키 그림 등이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음악은 싣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사진을 실어 음악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헝가리 음악은 코다이의 3성부 작품으로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그룹이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에 따라 연주하게 함으로써 악보 이외의 자료를 통한 표현력을 확대시키려한 노력도 보인다. 그리고 박자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실제 학생들이 간단한 율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칸딘스키 그림 작품을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성안당

성안당의 특정 내용은 영화 음악 만들기, 보고부르기, 듣고적기, 외워적기, 노랫말에 가락 붙이기, 음악가 만화 그리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음악 만들기는 영화 포스터를 구해 영화 줄거리를 만들고 줄거리에 적당한 주제곡과 삽입곡을 기존에 나와 있는 음반에서 골라 녹음하거나 직접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부르기와 듣고적기, 그리고 외워적기는 독

립적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위적기’라는 특징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 특이하다. 노랫말에 가락 붙이기는 음가를 제시하여 음높이만 작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을 단계적으로 지도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가 만화 그리기는 미술과 통합 학습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음악가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만화를 그리도록 되어 있다.

(4) 지학사

지학사의 특정 내용은 물체의 소리와 음가, 평가 기록지, 민요풍의 가락 짓기, 그림 보고 연주하기, 소나타 형식 그림으로 제시, 평시조 그래픽으로 제시, ‘검은 고양이 네로’ 악곡 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물체의 소리가 악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계 기차 등의 물체가 내는 소리와 4분음표 16분음표 등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록지’는 평가 요소와 단계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연주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요풍의 가락 짓기’는 민요풍의 음계를 학습한 이후 민요풍으로 작곡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림 보고 연주하기’는 다양한 그래픽을 제시하고 그래픽에서 주는 느낌을 소리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나타 형식, 평시조 등의 형식과 가락을 그래픽으로 제시하여 소리의 개념을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은 고양이 네로’와 같은 대중적인 음악을 싣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천재교육

천재교육의 특정 내용은 정간보를 만화로 설명, 국악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간보로 기보된 ‘동창이 밝았느냐’, 단계적인 시창청음, ‘산호의 생명체들’이란 악곡, 중세 시대 작곡가 라모의 돌림노래 등을 꼽을 수 있다. 정간보를 만화로 설명한 부분은 학생들이 접근하기를 꺼

려하는 정간보를 친숙한 만화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악 음계에 대한 악보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이 책에서는 각 음계에 대한 설명을 말주머니로 붙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동창이 밝았느냐’를 정간보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창청음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악곡으로는 ‘산호의 생명체들’, 라모의 돌림노래 등을 들 수 있다.

3. 교과서의 활용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5종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단원의 체제와 내용면에서는 각 교과서의 특성들이 드러난다. 단원 구성면이나 각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목표 제시 방식,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도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5종의 교과서의 체제 악곡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제시되는 악곡은 이흥렬 작곡의 ‘어머니의 마음’ 한 곡 정도이다. 한 곡마저도 4개의 출판사에서는 F조이며, 다른 한 출판사에서는 D조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교과서는 체제 악곡을 특징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 역시 나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 교과서는 학교의 재량으로 선택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흥미, 관심을 보다 더 깊이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곡을 소개하고,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의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간 다른 교과서를 선정하였을 때,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음악에

접근함으로써, 학생들간의 소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혹, 전학 온 학생들은 그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음악을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새로운 교과서 활용에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한 이후, 출판된 다른 교과서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배우며 각각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 9종은 모두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교과서가 다양해도 모든 교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교사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교수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특성을 수렴할 수 있는 교과서는 타인이 만들어 줄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초로 학생 수준과 흥미, 그리고 교사의 능력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교과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술

박 은 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제7차 미술 교과용 도서의 특징

올해부터 제7차 미술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미술 교과서는 검정 결과 총 6종이 선정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정신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내용 선정과 내용 체계가 도서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명을 교과용 도서의 단원 또는 제재명으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차례가 거의 유사하였던 것에 비해, 새로운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 중 영역 내용의 필수 학습 요소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단원 또는 제재명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독자적인 내용 체계를 세우고 있다.

둘째, 내용 구성 영역이 통합, 축소되었고 영역별 도입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다. 제6차 미술 교과서 내용의 6개 영역이 제7차 적용 교과서에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축소되었고, 각 영역은 통합되어 제시되었으며, 서예 영역은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지 않고 미술 교과서의 한 영역에 포함시켰다. 또, 단원별 활동은 제6차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에서는 표현 활동 과제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제7차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에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의 도입 부분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교수·학습 유형과 다양한 형태의 평가 변화이다. 이전의 교과용 도서에서는 교사 중

심의 교과서 내용을 읽고 설명하기와 학생 중심의 표현·감상 활동이 주된 교수·학습 형태였으나, 새로운 미술 교과용 도서에서는 기존의 교수·학습 형태 외에 조사 과제, 토론 과제, 감상문 작성, 미술관이나 박물관 방문 과제, 보고서 작성 과제 등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를 유도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창의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제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교과용 도서에서는 미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수·학습과 평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법이 활용되었고, 학생 간 상호 비교 평가보다 개별적 과정 평가 중심의 계획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타 부록의 활용과 편집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록의 활용이 돋보였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정리해 놓거나, 용어 설명, 인명 사전, 재료 및 용구에 대한 참고 자료 등을 따로 부록으로 제시해 놓은 교과용 도서가 많았다. 편집과 관련해서 제 7차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는 각각의 독특한 편집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술 교과용 도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생동감 있는 학생들의 활동 사진들이 제시되었고, 작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사각형의 틀을 과감히 깨어 버린 예들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단원 구성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부분적인 이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한국 전통 미술과 국제 문화 이해 교육이 강조되고, 구성 작품과 참고 자료 및 삽화 등이 제 6차에 비해 많아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 도서의 인쇄 상태가 과거보다 양호해졌고,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2. 제 7차 미술 교과용 도서의 책별 특징

앞서 정리한 제 6차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와 제 7차 중학교 미술 교과용 도서의 특징 비교 이외에 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 선정된 중학교 미술 1학년 교과용 도서 각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학연구사의 중학교 미술 1

(1) 차례에 나와 있는 단원은 13개이지만, 각 단원과 관련된 활동들이 2~3개씩 제시되어 있어 총 31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들은 토론, 발표, 표현, 감상 등 다양한 형태로, 계획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제시하였다. (2) 단원 선택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지도안에 심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3) 내용 진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 중심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발문과 함께 평이하면서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4) 활동 과제를 살펴보면, 미적 체험 활동에서도 표현 활동(~그려 보자.)이 이루어지고, 표현 활동에서도 다양한 활동(~상상해 보자, ~토의해 보자.) 등이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과제가 제시되고 있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5) 지도서에서는 각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론 학습지 및 기록지, 조별 작품 감상 보고서, 탐색 활동 기록지, 디자인 과정 조사 기록지, 나의 작품 소견서 등 여러 가지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교학사의 중학교 미술 1

(1) 학습해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작품의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본문에 설명되지 않은 참고 작품은 그 작품 아래에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 핵심적인 이해 내용이나 활동 과제, 표현상의 유의점 등은 박스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제시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부록을 잘 정리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교사나 학생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학습 정리’에서는 소묘·채색화·볼록 판화·조소의 재료와 용구는 물론, 디자인 제도 용구와 채색 도구 등을 설명 자료, 참고 작품,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박물관·미술관 찾기’와 ‘교과서에 나온 미술 인명 사전’에서의 작가 소개, ‘교과서에 나온 미술 용어 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지도서에서는 단원별로 실기 평가 도구, 표현형 평가, 서술형 검사법 등 평가 도구들의 예를 1~2 개씩 제시하고 있다.

다. 대한교과서의 중학교 미술 1

(1) 차례에 나와 있는 단원은 14 개이지만 각 단원의 하부에 활동이 1~3 개 정도로, 총 34 개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2) 활동 수는 많지만 지도서의 연간 지도 계획에 의하면 단원의 하부에 있는 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하여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3) 다른 교과서에 비해 학생 작품을 많이 수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4) 표현 활동 관련 단원에서는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표현 활동 관련 단원에서도 표현 이외에 ‘~알아보자, 토론해 보자, 감상해 보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6) 지도서에서는 특징적으로 수행 평가의 방법과 그 예로서 실기 평가, 서술형 검사법, 감상 기록지 작성 등을 소개하고 있다.

라. 두산의 중학교 미술 1

(1) 교육과정의 대영역 수준에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즉, 10 개의 단원을 선정해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 1 학년에서는 생활 주변과 현장 학습을 통한 미적 체험 영역에 중점을 둬서

학생들의 활동 사진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3) 보충, 심화 학습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 및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각 단원에서의 학습 평가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5) 표현 활동에서도 ‘~이야기 또는 알아봅시다.’ 등 다양한 활동과 탐구 학습과 토의 학습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부록으로 ‘특색 있는 미술관·박물관·전시관’, ‘회화의 재료와 사용법’ 등과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7) 지도서에서는 특히 단원별로 평가 관점과 상, 중, 하의 평가 척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수행 평가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마.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학교 미술 1

(1) 이 교과서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단원마다 토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단원에서 서로의 작품이나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나 감상 후의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사진 자료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품 제목, 작가에 대한 소개 아래에 함께 제시하고 있어 참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3) 각 단원 또는 하부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면, 토론 과제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쉽게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지도서에서는 수행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개략적으로 하고, 단원별 지도안에서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방법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지도서의 부록에 판화와 조소의 용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다.

바. 지학사의 중학교 미술 1

(1) 이 교과서에서는 활동 과제와 평가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단원마다 제시하고 있다. (2) 각 단원의 사이사이에 우

리 고장의 미술 체험, 학습 정리, 도자기의 발자취 등 내용을 정리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활동 과제를 살펴보면, 표현 활동에서도 표현 과제 이외에 ‘~스크랩해 보자, 알아보자, 이야기해 보자.’ 등의 다양한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 참고 자료로 학생 작품이 많이 실려 있으며, 제작 과정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이 제시되어 있다. (5) 부록에서

는 ‘인터넷에서 미술관 가기’를 통해 인터넷 활용 및 인터넷을 활용한 감상문 작성 방법을 소개하였고, ‘용어 정리’를 해 놓았다. (6) 지도서에서는 각 영역별로 수행 평가 예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책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출판사 특징		교육연구사	교육사	대한교과서	두산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지학사
내용 선정	교육과정 관련	중영역에서 재구성	중영역에서 재구성	중영역에서 재구성	대영역에서 통합, 재구성	중영역에서 재구성	중영역에서 재구성
	단원 수	13	25	14	25	23	25
내용 구성		• 활동 중심 〈지도서에 선택 및 심화 활동 제시〉	• 활동 중심	• 활동 중심 〈지도서에 각 단원 내에서 선택 활동을 하도록 시 간 배당〉	• 활동 중심 • 보충, 심화 학습 자료 제시	• 활동 중심 • 단원마다 토론 과제 제시	• 활동 중심
참고 자료	학생 작품	68	64	117	59	72	103
	작가 작품	76	67	44	47	65	54
	기타 자료	150	227	174	188	170	173
	학생 활동 사진	9	4	9	18	6	3
	제작 과정	4	7	10	6	6	11
	인터넷 관련 자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교수·학습 유 형(활동 과제)		조사, 토론, 보고서 작 성, 탐색, 관 찰, 발표, 감 상, 표현	조사, 토론, 보고서 작성, 관찰, 발표, 감상, 표현	조사, 토론, 발표, 감상, 탐색, 표현	조사, 토론, 탐색, 발표, 표현, 감상, 자료집 만들 기	발표, 조사, 토론, 관찰, 표현, 감상, 감상문 작성	조사, 토론, 자료집 만들 기, 표현, 감 상, 감상문 작성, 발표, 전시

평가	없음<지도서에 평가 관점, 방법 및 도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제재에 평가 내용 제시<지도서에 평가 관점 및 도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 제시<지도서에 평가 관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 제시<지도서에 평가 기준 제시> 	없음<지도서에 평가 방법 및 항목, 도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 제시<지도서에 평가 방법 및 항목, 도구 제시>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상식 • 미술 연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정리 (내용 요약,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 인터넷에서 박물관, 미술관 찾기 • 인명 사전 • 용어 해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 있는 미술관·박물관·전시관 • 회화의 재료와 사용법 • 용어 해설 • 작가 소개 • 인터넷 사이트 안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서 미술관 가기 • 용어 정리

3.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 활용 방안

앞에 제시한 미술과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친절하게 반영하면서 여러 수준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학교 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주변에서 다양한 미적 체험 자료들을 준비하였다면, 이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서 단원별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6종의 교과서가 각각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들도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 적

합한 학교 수준의 미술 교육과정을 실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술·가정

이 춘 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윤 기 숙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1’ 교과서는 기술과와 가정과가 통합되어 교과 내용이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의 기술·가정은 초등 학교의 실과,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과 연계하여 국민 공통 교육 10개 과목으로서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중 1 기술·가정 교과서는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미래의 기술’, ‘제도의 기초’, ‘컴퓨터와 정보 처리’ 등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가정 교과서의 특징, 책별

체제 비교, 교과서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1.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쓰여진 교과서는 외형 체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 이외에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다양해졌다. 새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 구성을 일률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책의 서두에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기술·가정과의 성격과 특징을 앞부분에 다루어 과목의 특징을 알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에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에 수록하고, 학생들은 직접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단위마다 학습 목표를 진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단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도입 부분에 생각 열기, 먼저 읽기 등을 통해 흥미 유발을 돕고,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도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의 흥미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활동 주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여 수준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의 외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으며, 있더라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새 교과서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제시, 만화, 삽화, 사진, 그

림, 읽을거리, 참고 자료, 용어 정리, 인터넷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더 해보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차, 개인차를 극복하고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단원이 끝나면 단원을 정리하고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배운 후에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술·가정과에서는 주로 활동과 실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하나의 활동이 끝나면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새 교과서는 중단원이 끝나면 탐구하기, 활동 과제, 보충 학습, 심화 학습, 개념 익히기, 되짚어보기, 탐구 문제, 내용 정리를 위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후, 대단원이 끝나면 단위 학습 정리, 단위 요약, 단위 확인 학습 문제, 단위 종합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있다. 평가 방법도 형식적으로 선다형의 문제나 주관식 문제를 답하지 않고 퍼즐, 예·아니오, 인터넷 활용 과제, 수행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책별 체제 비교

지면 관계상 모든 단원을 분석할 수는 없고, 이전의 교과서와 내용의 변화가 적은 ‘체도의 기초’ 단원을 분석해 보았다.

〈표 1〉 ‘체도의 기초’ 단원의 내용 분석

출판사	활동 명칭	활동 과제	도면그리기 과제	평가 유형	비고
교학사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도면을 분류하고 토의 • 움직이는 장난감을 스케치하기 • 다목적 시계의 구상과 스케치하기 		선택형 단답서술형 완성형	아이디어의 형성과 스케치

교학사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투상도를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로 그리기 • 제 3 각법으로 물체의 정투상도 그리기 	편지함	평가 척도 미제시	기법을 추가 강조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꽂이 도면 그리기 			
교학 연구사	이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마우스의 스케치를 축소·확대하여 그리기 •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를 등각투상 용지에 그리기 • 물체를 축적, 배척으로 그리기 	CD꽃이	단답서술형 실습형 평가 척도 제시 (우수, 보통, 미흡)	물체를 스케치하는 과정 제시
	조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드를 활용하는 직업 세계 조사하기 			
	실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입체 모양 만들기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도와 정투상도를 연결하기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투상도를 등각투상도로 그리기 • 주택 평면도 그리기 			
금성 출판사	열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선긋기 • 치수와 치수 기입하기 • 정투상도 그리기 	CD꽃이	단답서술형 실습형 완성형 평가 척도 제시(예, 아니오)	소단원별 탐구 과제 제시
	모듬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투상법에서 정면도의 선정과 이유 토의 			
	개별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도면, 주택 평면도, 전기 배선도 읽기 			
대한 교과서	수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를 제 3 각법,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로 그리기 • 연필꽃이를 전개도로 그리기 • 가스 밸브 도면의 용도에 따른 선 이름 쓰기 • 책꽂이를 제 3 각법으로 그리기 	CD꽃이	단답서술형 실습형 자기 평가 척도 제시 (상, 중, 하)	학습 시작 전에 준비 활동을 제시함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개의 면을 통해 물체 보기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투상법으로 나타내기 			
동화사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용지의 크기 조사하기 	책받침대	단답서술형 완성형 평가 척도 제시(수준 미제시)	학습 시작 전에 ‘먼저 읽기’란과 ‘생각해보기’란을 제시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선긋기 • 기계 도면, 주택 평면도, 전기 배선도 읽기 			
	활동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투상도와 등각투상도 그리기 • 캐비닛도 그리기 			

두산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조사 • 제도 용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선과 호 그리기 • 출입문과 창문의 기호 조사 • 정오각형 그리기 • 정투상도 그리기 • 주택 평면도, 전기 배선도 읽기 • 여러 가지 물체 스케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필 꽃이 도면 그리기 (선택 1) • 간단한 기계 부품 도면 그리기 (선택 2) 	<p>실습형 수행 평가 과제 탐구 문제</p> <p>평가 척도 제시 (영역별 상, 중, 하)</p>	<p>학습 시작 전에 ‘만화로 여는 생각’을 제시</p>
업투	활동/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를 사투상도, 등각투상도, 투시투상도로 그리기 • 사투상도의 치수 기입하기 • 아라비아 숫자와 영자 쓰기, 선긋기 • 정투상도로 그리고 치수 기입하기 	메모꽃이	<p>자기 평가 척도 제시 (상, 중, 하)</p>	<p>단원 정리와 평가 문항 미제시</p>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각투상도의 치수 기입하기 • 건축, 전기 배선도에 쓰이는 기호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의 좁은 부분의 치수 기입하기 			
지학사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자로 여러 가지 각의 빗금긋기 • 선분 나누기와 정오각형 그리기 • 정투상도를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로 그리기 	CD꽃이	<p>단답 서술형 평가 척도 미제시</p> <p>선택형 실습형 연결형</p>	<p>단원 마무리에 ‘인터넷 활용’란을 제시</p>
	실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긋기 • 정투상도 그리기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제도 용구 • 정투상도에서 입체로 읽기 • 물체의 윤곽 나타내기 순서 			
천재 교육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의 표준 규격 기호 조사 • 여러 가지 글씨체 조사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자를 이용하여 선긋기 • 물체를 제 3 각법으로 그리기 • 탁상을 제 3 각법으로 그리기 			
	탐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의 용도에 따른 이름과 종류 찾기 • 기계 도면의 기호를 찾고, 건축 평면도, 전기 배선도의 정보 찾기 			
	보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투상도 완성하기 (선택형, 보충형) 	90° 모서리장	<p>자기 평가 제시 (A, B, C, D, E)</p>	<p>‘열린 교실’란에서 도면 기호를 찾게 함.</p>
	심화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를 제 3 각법으로 나타내기 			

형식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상법의 종류별로 도면 스크랩하기 • 가는 실선으로 선긋기 연습하기 • 정투상도에 치수 기입하기와 건축 기호 그리기 • 물체를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로 그리기 	구체적인 물체의 미제시	선택형 완성형 연결형 평가 척도 미제시	‘도면 그리기’ 주제에서 투상법을 제시함.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와 정투상도 연결하기 • 정투상도, 등각투상도, 사투상도 그리기 			

〈표 2〉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내용 분석

출판사	제목(대단원, 중단원)	구성 체제	학습 방법	평가 자료
교학사	나와 가족의 이해 • 우리들의 성장 발달 • 성과 이성 교제 • 건강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중단원 끝-연구 문제, 수행 평가 • 대단원 끝-단원 정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연구, 체험 활동, 자료실, 심화 학습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끝-연구 문제, 수행 평가 • 대단원 끝-익힘 문제, 총괄 평가 등
교학 연구사	나와 가족의 생활 • 청소년기의 특성 • 청소년기의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안내 • 교과 내용 전개 • 소단원 끝-탐구 활동 • 중단원 끝-보충 학습, 심화 학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을거리, 탐구 활동, 조사 활동, 토의 활동,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끝-보충 학습, 심화 학습, 평가(문장 완성하기, 의견쓰기, 퍼즐, 대화법 익히기 등)
금성 출판사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안내 • 교과 내용 전개 • 대단원 끝-단원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열기(도입), 개별 탐구, 사례 제시, 신문 열기, 일의 세계, 모듬 탐구, 정보 마당, 생활 속에서, 열린 실습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 개별 탐구 • 중단원 - 열린 실습 탐구 과제 • 대단원 - 단원 마무리
대한 교과서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성 • 청소년기의 심리적·사회적 발달 •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대단원 끝-단원 학습 정리, 단원 총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준비 활동(매시간), 수행 활동, 보충 학습, 심화 학습, 가정 실천 학습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끝-형성 평가 • 대단원 끝-단원 총괄 평가

동화사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대단원 끝-단원 학습 정리, 단원 확인 학습 문제	• 먼저 읽기, 생각해보기, 보충 학습, 참고, 활동 과제, 사례, 해보기, 조사하기, 꼭 알아두기 심화 학습, 시청각 자료, 읽을거리, 인터넷 안내 등 활용	• 대단원 끝-단원 확인 학습 문제 (서술식, 단답형, 퍼즐 등)
두산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중단원 마무리-개념 익히기, 되짚어보기, 탐구 문제 • 대단원 마무리	• 만화로 여는 생각, 하나 더 알기, 해보기, 조사해보기, 토의하기, 내다보는 세상, 쉬어가기 등 활용	• 중단원 끝-탐구 문제 • 대단원 끝-수행 평가 과제, 인터넷 수행 과제 등
엽투	나와 가족의 이해 • 나의 발견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토의, 실습, 활동, 심화 학습, 참고, 보충 학습, 인터넷 안내 등 활용	없음
지학사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청소년의 성과 우정 • 나와 가족 관계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중단원 마무리-확인 문제 • 대단원 마무리-학습 정리, 종합 문제, 퍼즐 여행, 인터넷 활용	• 탐구 활동, 자료 창고, 보충 학습, 해보기, 읽을거리,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 활용	• 중단원 끝-확인 문제 • 대단원 끝-종합 문제 (서술식, 퍼즐 등)
천재교육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기의 이해와 발달 특성 • 청소년의 성과 이성 •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내용 전개 • 중단원 마무리-학습 포인트 • 대단원 마무리-보충 학습, 심화 학습, 종합 문제	• 여기서 잠깐, 아하! 그렇구나, 사례 등 활용	• 중단원 끝-탐구 과제 • 대단원 끝-종합 문제 (서술식, 완성형, 요약형 등)
형설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 대단원 안내 • 중단원 전개 • 중단원 마무리-탐구하기 • 대단원 마무리-단원 요약, 단원 종합 평가	• 한 걸음 더, 해보기, 탐구하기, 읽을거리, 퍼즐 등 활용	• 대단원 끝-단원 종합 평가 (서술형, 선다형, 완성형, 연결형 등)

3. 새로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새 교과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교과서 간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채택 교과서 외의 비채택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한다. 각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현장 상황이 다양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단원 학습 내용의 비중, 지도 순서, 실습 과제의 선택 등 실제로 지도할 형태의 교과서로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활동 내용을 실생활과 관련지어 재구성한다. 남녀 학생들 모두 관심을 갖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을 과감히 실생활의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각자(또는 모듈별로)의 흥미와 관심 분야의 것을 소재로 삼아 실습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컴퓨터

김 동 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1.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 교과는 정보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으로, 컴퓨터와 인간 생활과의 관계 및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를 이해하고 조작 방법을 익혀서, 컴퓨터에 대한 친숙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학교 컴퓨터 교과는 초등 학교 5~6학년의 실과 교육을 바탕으로 남녀 구분 없이 중학교 1~3학년에서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02시간 정도 확보하여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고등 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정보 사회와 컴퓨터」 과목과 연계된다.

지도 내용은 인간과 컴퓨터, 컴퓨터의 기초, 워드프로세서, 멀티미디어, PC 통신과 인터넷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컴퓨터가 일상 생활 속에서 다루게 되는 일반적인 도구로 바뀌어 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시에는 실습으로 익힌 체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하도록 편찬한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활용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

-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이나 고도의 기술 중심의 내용은 지양하고 정보 사회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선정
- 정보 환경의 변화와 수준에 맞는 최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되,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의 응용이 가능해야 하며 발전하는 정보 환경에 낙후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선정

나.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교과서를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

- 본문의 내용은 수행 목표와 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기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부록은 수행 목표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및 과제 해결 과정을 기술하고 정보 환경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개정하기 쉽도록 구성

다.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계층적 모듈 형태로 구성

- 수행 과제 중심의 단원을 구성하되, 기초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하고 선택 영역의 내용을 수준별로 계층 모듈화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토록 함.
- 교과에 배당된 시간과 학생의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점진적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듈 형태로 교과 내용 구성, 특히, 워드프로세서, PC 통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영역은 단위별로 통합된 실습 과제를 선정하고, 중·소단원별로 부분 실습 및 그룹 실습이 가능하도록 계층적인 모듈 형식으로 구성

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 구성

-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의 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단원을 구성하되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열
- 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 제시
- 다양한 예시, 삽화·사진, 용어 해설 및 학습과 관련된 읽을거리 등을 풍부하게 제시

2.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구현 및 특징 비교

제 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1 학년도 중학교 1 학년부터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교과

중 컴퓨터 과목을 선택하여 지도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컴퓨터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기술한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 2001 학년도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산, 영진, 학연사 등 3 종류의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미래 지향적인 활용 중심 내용

- 정보 사회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정 교과서의 내용 중 ‘멀티미디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바탕 화면을 멋있게 꾸미고, 비디오 CD를 감상하고, 음악 CD를 컴퓨터용 음악 파일로 만드는 등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소리, 그림, 동영상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운영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멀티미디어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활 주변의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익혀 자신의 앨범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여, 소리와 그림에 대한 기초 개념과 원리, 간단한 활용법, 그리고 그림과 소리가 포함된 카드 제작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리 자료와 그림 자료 만들기 및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혀, 생활 주변의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컴퓨터를 주요한 생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교과서를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

○ 교과서를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하여 본문의 내용은 수행 목표와 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부록은 수행 목표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및 과제 해결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검정 교과서의 내용 중 ‘PC 통신과 인터넷’ 관련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환경 보전 보고서 만들기’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실습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직접 해 보기’에서는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부록】의 해당 부분에서 본문에 제시된 예제를 풀기 위한 실습 과정(에듀넷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보고서로 작성)을 화면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본문】에서 ‘학급 신문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해 봐요’라는 수행 과제(웹 에디터 실행 → 실습 내용(글, 그림) 입력 및 저장 → 하이퍼링크 만들기 → 홈페이지 실행)를 5개 하위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록】에서 상세하게 화면과 함께 제공함.

－【본문】에서 ‘PC 통신 활용관’이란 주제로 PC 통신 공개 자료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방법,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푸는 방법, PC 통신 전자 우편 등 우리가 PC 통신을 사용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의 해결 방안을 실습 과제로 ‘차근차근’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부록】에서 상세하게 화면과 함께 제공

함.

다. 교과 내용의 계층적 모듈 형태

○ 검정 교과서의 계층적 모듈 구현의 형태가 서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행 과제 중심의 단원을 구성하여 학생의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검정 교과서의 내용 중 ‘워드프로세서’ 관련 내용의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워드프로세서를 학습하기 위하여 ‘학급 신문 만들기’라는 대단원을 도입하여 직접 학급 신문을 만들어 가면서 워드프로세서의 사용 방법을 익혀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 소식, 상식 마당, 알림 마당, 율타리 소식 등의 하위 모듈을 구성하여 단위 기능에 관한 관련 메뉴와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모으면 최종적으로 학급 신문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다.

－‘캠프 운영 계획서 만들기’ 단원에서 환경 사랑 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자료들을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익한 정보로 가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캠프 일정표 만들기, 캠프촌 약도 만들기, 캠프 포스터 꾸미기, 캠프 광고 문안 만들기 등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워드프로세서를 학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능(간단한 문서 작성 및 편집, 그리기, 표만들기, 표계산하기 등)을 소단원으로 제시하여 익히도록 하고 종합적인 활동인 ‘학급 신문 만들기’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 구성

○ 검정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보면,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의 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자율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하였으며, 검정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단원은 실생활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소단원 예제로 제시한 ‘차근차근’에서는 기능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중단원 과제로 제시한 ‘한 걸음 더’에서는 보충·심화 예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준별 학습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단원에서는 ‘마무리하기’를 통해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 성취도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이론적인 설명 등을 만화 형태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였으며, ‘Tip’ 코너를 이용하여 관련 지식을 보완토록 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기초 지식 익히기’를 통해 과제 실습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단하고 쉽게 풀이하였으며, ‘반짝 토론’을 실어 모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개 부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예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예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실습 과정 소개’를 통해 본문에 제시된 실습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무리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다시 한 번 복습의 기회로 ‘해보기’ 등이 있고, 그 외 작은 사전, 이야기 교실, 숨은 열쇠 등을 통해 컴퓨터 상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록 하였다.

—본문 부분은 중단원, 소단원, 학습 제재 등의 체계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개념, 원리, 사실 등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 삽화, 표는 물론 필요한 경우 만화적 기법도 활용하였으며, 토론 및 조사 활동의 경우 ‘생각해 봐요’, 실습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는 ‘직접 해 봐요’를 통해 실습 제재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학습 정리’는 본문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중 핵심적 개념을 요약하였으며, ‘익힘 문제’는 학생 개개인 또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 과제’는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 성취도를 평가해 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컴퓨터 교과서의 활용 방안

학교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교과는 독립된 교과로서의 기능보다는 모든 교과에서 교수·학습의 매개체로써,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일상 생활 수단으로써의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대처하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재의 선정

교과서를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부록의 경우 정보 환경에 맞게 수시 보완토록 하였으나, 이에 못지않게 교사 자신의 부단한 교재 연구로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 요구됨.

나. 수행 과제 중심의 창의적인 교과 운영

학교 및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실감나는 수행 과제의 발굴과 적용을 위한 교사들의 부단한 연구가 요구됨.

다. 정보 통신 기술 매체의 수업 도구화에 따른 정보 소양 능력의 신장

컴퓨터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 매체는 모든 교과에서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의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정규 컴퓨터 교과 시간 외에 학교 교육과정,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운

영시 정보 통신 기술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보 소양 능력을 신장시켜야 함.

라. 범교과적인 정보 윤리 의식의 강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술 매체는 학교에서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생활 수단의 일부임을 감안하여 범교과적인 지도 영역으로 확보하여 정보화 사회의 일원으로써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현

한 인 성

논산 대건고등학교 연구부장

I. 시작하며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 현실 속에서도 단위 학교 현장에서 다양성과 창의력을 키워 나가는 교사들의 노력은 교사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한 요소가 된다. 본교는 시골에 있는 비평준화 학교로 학생 개개인의 학력차가 매우 심하다. 때문에 이 학생들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한다는 것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의 혁신과 교재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본교는 학습자 개인 간의 다양한 개인차와 다양성에 걸맞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활동이 되게 하고, 나아가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오늘날 복잡하게 엉켜 풀기 어려운 교육 문제이지만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본교의 교육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실현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기초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학업의 흥미를 상실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영어, 수학의 경우는 학습자 간의 학력차가 심해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습 의욕을 되찾게 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과학을 통해서도 창의력을 키우는 데 교수·학습 활동의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가. 모든 교과 교수·학습 활동의 File화

- (1) 모든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 자료를 그 교과 담당 교사가 파일 자료로 만들었다.
- (2) 교사가 제작한 교수·학습 활동 파일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활용하여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접근하였다.
- (3) 학생들은 파일 자료를 파일 철에 보관하고 이를 학습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부교재 등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정리된 학습 자료를 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4) 절약된 판서 시간을 통해 여유 있는 토론 활동과 발표 시간이 되게 하였다.

나. 영어과 : 단계별 이동식 수업

영어과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학력차가 매우 커서 같은 교재로 같은 수준의 수업이 진행될 경우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기초에서 고급까지의 8단계 교재를 만들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 학력 배양에 충실토록 하였다.

우선, 1학년의 모든 학생이 본교에서 만든 교재 Step 1에서 출발하고, 5주 후 통과 시험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시 Step 1을 복습한다. 이 과정에서 반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단계별로 흩어져 자기 수준에 맞는 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이른바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 1							
단 계	Step 1에서 출발하여 Step 4까지 1 단계에 5주 학습 후 Test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며,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2주 반복 학습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학급	1	2	3	4	5	6	7	8
담당 교사	이영순	이옥희	서우식	길연섭	배오현	유승호	박혜정	한희정
학생 수	38	38	38	38	38	38	38	38

	고 1							
단 계	Step 5(일부는 3~4 단계 출발)에서 출발하여 Step 8까지 1 단계에 5주 학습 후 Test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며,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2주 반복 학습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학급	1	2	3	4	5	6	7	8
담당 교사	이영순	이옥희	배오현	유승호	한희정	박혜정	길연섭	서우식
학생 수	37	37	37	37	37	37	37	37

다. 수학과 : 수준별 이동식 수업

학생 개개인의 학력차로 인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준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 결국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실력을 측정한 후 수학 교과와 특성상 4개 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이동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수준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1 학 년	교실	1-1	1-2	1-3	1-4	1-5	1-6	1-7	1-8
	반	기초반	보통 2반	보통 1반	심화반	기초반	보통 2반	보통 1반	심화반
	지도 교사	김규조	유왕성	이정원	김도은	김승욱	손석환	김은경	이종영
2 학 년	교실	인 문 계				자 연 계			
		2-1	2-2	2-3	2-4	2-5	2-6	2-7	2-8
	반	심화반	보통 1반	보통 2반	기초반	심화반	보통 1반	보통 2반	기초반
	지도 교사	김승욱	이정원	김규조	이종영	손석환	김은경	유왕성	김도은

라. 사회 과학의 이동식 열린 교육

창의력과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1 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8시간씩 사회 과학 과목의 열린 수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토의와 실험 보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탐구력, 창의력, 발표력, 표현력, 보고서 쓰기 등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1) 운영

(가) 대상 학년 : 1 학년 8 학급

(나) 수업 시간 배당 : 학급당 주 8 시간(사회 4 시간, 과학 4 시간)

(다) 전체적 시간 구성

- ① 3월 1주 : 교과서를 통한 각 교과목의 전체적 흐름 안내 및 전체 고공표 작성
- ② 3월 2주~익년 2월 : 교과서 진도에 따른 수업 전개
- ③ 수시 : 조별 탐구, 과제 발표 및 설명
- ④ 보충 시간 : 총정리

(라) 수업 방법

- ① 2시간 : 교과별 2시간 연속 수업으로 타학급 학생으로 동일한 내용의 수업 전개
- ② 강의실 : 각 교과 영역별 고정(자료 보관 용이)
- ③ 초반부 설명 후 각자 개별적 목표 과제 성취도 평가

(마) 수업 전개

- ① 수업 전개 모형

단 계	교수-공학 매체	내 용
도 입	OHP	1. 고공 학습표 제시-학습 내용의 전체적 흐름 제시 2. 학습 목표의 제시 3. 본시 학습에 대한 개괄적 내용 강의 및 조별 토의 주제 배정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point • Presentation • Internet • VTR 	1. 토의 : 조별로 주어진 학습 주제를 토의하고 발표자를 선정한다. 2. 발표 : 각 조별로 토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대표가 발표 3. 교사 : 개인의 성취 과정, 결과에 대한 수행 평가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HP • Computer 	1. 교사는 조별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시 학습의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학생들의 발표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Powerpoint, Presentation, Internet, OHP 등을 통해 제시한다. 2. 형성 평가 및 수행 평가 3. 차시 학습 예고, 과제·준비물 안내

② 사회과, 과학과 수업 전개 방법

- ㉔ 학습 과제 안내 및 자료의 제시 → 개별 혹은 조별 자료 탐구 → 질의, 응답 → 개별 탐구 과제(연구 과제) 해결 → 제출 및 점검 → 자율 심화 학습
- ㉕ 수업 모형 운영 계획 및 전개 방법 안내 → 단계별 역할 부여 → 파트별 역할 활동 → 자기 입장 선택 작업 → 토론 활동 → 대안 제시 및 결론 유도 → 평가 및 차시 예고
- ㉖ 보충용 유인물 자료 제공(지도 교사 제작, 사전 배부) → 구조 및 요점 정리(설명) → 질의 응답 및 토론 → 탐구 과제 토론 → 개별 보충 및 자율 학습
- ㉗ 동기 유발 → 주제 선정 → 방향 제시 → 자료 조사 → 주제 발표 → 질의 응답 → 요점 정리 → 내면화
- ㉘ 사회 과학 열린 교육 시간표
- － 화요일과 목요일 반복 운영

	월	화	수	목	금	토
1		공		공		
2		통		통		
3						
4						
5		사과				
6		회학				
7				사과		
8				회학		

㉙ 참여 교과

- － 사회과 : 공통 사회(일반 사회, 한국 지리), 윤리, 국사
- － 과학과 : 공통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참여 과목 : 8 과목

㉔ 사회, 과학 이동식 열린 교육을 위한 고공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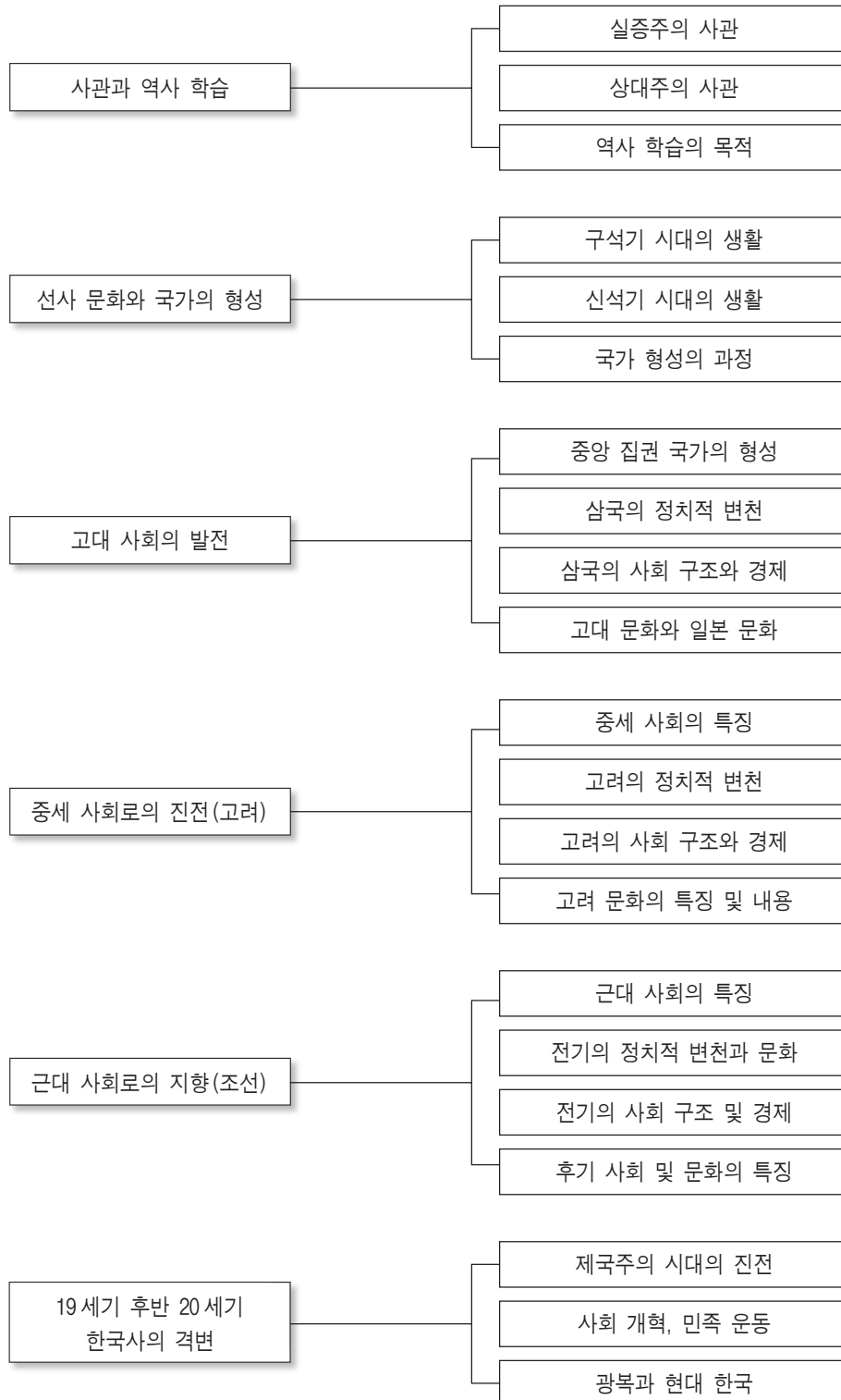
고공 학습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팀별 과제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공 학습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표 : 국사과 고공 학습표 참고). 이를 통해 전체 내용 속에서 이 시간에 배울 내용과의 유기적인 관계 파악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며,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있다.

Ⅲ. 맺음말

그간 우리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기른다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 보니 전인적인 인격 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하여 유명 학교, 좋은 성적, 지식 습득, 지적 능력을 높이는 것, 지식량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왜곡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지적, 육체적 수련과 더불어 개인적 사회 윤리 완성에 있다고 본다. 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번뇌에도 곱힘 없이 꿋꿋하게 살며, 자신의 행보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정의감에 사는 인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사는 인간, 박애 정신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본교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에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이외에도 인간다운 인간 육성과 21 세기를 선도하는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매주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고 인성 교육에 힘 쏟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화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간 교육과 학력 신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㉕

【표】 국사과 고공 학습표



직업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개선

이 종 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으로 단정지어 말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충실하게 숙지하였으면 교육이 잘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만큼 우리의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것으로써 교과서가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직업 교육은 학교 외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추적인 역할이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 교육을 실업계 고등 학교 교육으로 제한하여 본다면, 교과서가 직업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전체적인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 교육이 갖는 특성에 의하여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다소 다르거나 강조하는 면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직업 교육의 특성과 교과서

직업 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광의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고, 협의의 의미

로 정의되기도 한다. 직업 교육을 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거나 현재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식(formal) 또는 비형식(informal) 교육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단순 기능공으로부터 은행원, 교사, 의사, 변호사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전문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습득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광의의 정의든지 협의의 정의든지 어느 것이나 학습자를 학생이나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습 장소도 학교 또는 산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 교육을 협의의 정의로 보고 학교 교육, 특히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에 국한하여 그 특징과 교과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직업 교육을 시대적 변천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인력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 단능공으로부터 숙련공, 다능공에 이르기까지 기능의 숙련에 강조를 두어 왔으나, 1990 년대에 이르러서는 교양 교육의 강화와 함께 전문 기초 능력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 왔다. 2000 년대에

**보다 나은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즉, 교과서는 학습을 위한 필요 자료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교과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의 습득과 엄청난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 기초 능력의 강화와 직업 생활에서의 문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직업 교육은 지금까지 무엇을 어느(what to know)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what to do)에 중점을 둔 능력 중심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 또는 performance based education)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능력 중심 교육이란, 어떤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즉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판단력 등을 의미하지만, 확인된 직무로부터 내용이 추출되고, 성취 수준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준거와 조건이 제시되고, 교수·학습은 ‘어떻게’, ‘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며, 학습자의 성취 능력은 집단이 아닌 개인이 평가를 받고 피드백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의 핵심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인지적(認知的)·정의적(情意的)·기능적(技能的)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종류의 교수·학습 경험의 계획이라 할 때, 직업 교육의 교육과정은 특히 보통 교육에 비하여 기능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능력 중심 교육과정은 의사 소

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정보 처리 능력 등과 같은 직업 기초 능력의 강화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능의 숙련보다는 산업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통 교과는 초·중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교양 교육의 범주에서 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논할 수 있으나 전문 교과는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와 관련지어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직업 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교과라 할 수 있다.

강대구는 ‘농업 교사의 교수 방법 선택 실태와 관련 변인 연구’에서 전문 교과의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교과 내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 교과의 내용은 보통 교과의 내용에 비하여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기 기능이 강조되어 실습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둘째, 교수·학습 산출에도 차이가 있다. 보통 교과에서 중요시하는 산출 행위는 교과 내용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지식, 이해 능력, 적용 능력, 분석 능력, 종합 능력, 평가 능력 등의 인지적인 사고력인 반면에 전문 교과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산출 행위는 인지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기능, 기민성, 지각 속도, 지

각 정교성, 신체적 강인성 등 심리·운동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 중 후자의 산출 행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 수업 과정 중 학습 결과 확인의 곤란성에 차이가 있다. 보통 교과와 교수·학습 결과는 비가시적인 반면에 전문 교과와 결과는 직접 확인 가능한 것이 많다.

교육과정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로는 교과서를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 학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 교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론 중심의 교과서로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다른 하나는 실습 중심의 교과서로 실습을 위한 사항 즉, 실습 목표, 실습 재료 및 도구, 안전 사항, 실습 순서, 필요한 도면이나 기타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실습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한 교과서와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면서 제시된 상황이나 문제를 실제적인 체험이나 실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교과서를 들 수 있다. 마지막 하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서로 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에 실습을 하는 분리형으로 종전의 이론 교과서와 실습 교과서를 물리적으로 통합한 교과서와 하나의 과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어서 관련된 실습을 한 후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다음의 과제로 넘어가는 완전 통합형을 들 수 있다.

II. 직업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교과서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교과서에 대한 관념에 관한 것이

다. 교과서는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자료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학습은 반드시 교과서에 의해야 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더 나은 방법과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교과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등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전문 교과서는 주로 산업 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업 사회와 직무 내용이 바뀌게 되면 바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교과서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학문적인 체계와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셋째로는, 교과서의 구성 체계이다. 전문 교과서는 학습자가 직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다양한 직무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틀로 짜여져 있으므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친숙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는, 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이다.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기술하고, 이를 쉽게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하고 인쇄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전문가,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사, 학문에 관한 전문가, 편집 디자인 전문가 및 인쇄 출판 전문가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대학 교수를 포함한 학문에 관한 전문가들이 교과서 개발을 관장함

으로써 각각의 역할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섯째로는, 교과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전문 교과서는 대부분 1종 도서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편찬토록 되어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1종 도서가 있는 한 이를 사용토록 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엄청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사회와 기술의 내용을 국가에서 편찬하는 교과서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선으로부터 교과서 편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산업 사회와 괴리된 또는 낙후된 교과서로 학습할 수밖에 없다.

실업계 고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문 교과서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초기에는 학교별로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한 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청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사들의 능력이 신장되어 산업 사회의 요구를 즉시 수용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충실한 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실업계 고등 학교의 목적, 역할과 기능의 변화와 함께 점차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여 나가는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 학교 수준의 학습자는 분리하여 학습한 이론과 실기 내용을 스스로 통합하여 소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은 실업계 고등 학교 졸업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올바르

게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보통 교양 교육을 위한 교과서와 전문 교과서의 통합도 점차 추진하여야 한다. 보통 교양 교육을 위한 내용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 교육의 내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과서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업계 고등 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농수산 및 가사 계열로 구분되고, 이들이 과로 세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는 계열 및 과를 초월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과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아직도 유사성을 가진 교과서들이 계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개발되어 있어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교과서 선택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첩된 내용을 통합하여 교과서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대의 모든 인쇄 매체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제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기억을 용이하게 하거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보조적인 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3

교과서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 용 기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1. 머리말

우리 국민들은 교과서 문장을 모두 옳은 문장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과서에 있는 문장에 젖어 글을 쓸 때에 이런 교과서 문장을 본받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문장은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모범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과서 문장이 신문이나 잡지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표기나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문장이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의 글쓰기 습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교과서 문장의 잘못된 점을 찾아보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 바른 문장의 조건

글은 남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때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바른 문장이란 문법에 맞고 의미의 전달이 분명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말한다.

바른 문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문법적인 문장이어야 한다.
- 논리적으로 의미 전달이 분명해야 한다.
-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 어문 규범에 맞아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교과서 문장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먼저, 문법적이라는 말은 국어의 문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내게 걸맞는 일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형용사 ‘걸맞다’의 관용형은 ‘걸맞은’이라고 써야 하는데,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언제나 문법만 잘 지켰다고 해서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하려고 책을 사러 서점에 가 고자 집을 나섰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없지만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데 무척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들과 연락을 일체 끊고 산

다.”라는 문장은 ‘일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 이 문장은 부정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절’이라고 써야 한다.

넷째, 국어 어문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글 전체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 문장이 이룬 문단들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화려한 문장들은 글의 성격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 교과서 문장의 실태

3.1. 국어 표기의 문제

교과서 문장의 표기는 문법이나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문장을 살펴보면 틀린 부분이 많다.(* : 잘못된 표기이거나 비표준어 표시임.)

(1) ㄱ. 뿐만 아니라

ㄴ. *그리고는, *그리고 나서

(1ㄱ)의 ‘뿐만 아니라’를 흔히 접속어처럼 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뿐만’은 의존 명사나 조사로만 쓰이므로 접속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갈 뿐만 아니라 오기도 한다.”나, “철수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 한다.”처럼 쓰인다. (1ㄴ)의 ‘그리고는’과 ‘그리고 나서’와 같은 잘못된 표기도 교과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는 접속어이므로 ‘그리고는’과 ‘그리고 나서’와 같은 구성이 불가능하다. 각각 ‘그리고는’과 ‘그리고 나서’로 바꿔 써야 한다.

(2) ㄱ. 맞히다/맞추다, 알아맞히다/*알아 맞추다

ㄴ. *삼가해 주십시오.

(2ㄱ)의 ‘맞히다’와 ‘맞추다’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퀴즈의 정답을 맞추다.”는 ‘맞히다’를 잘못 쓴 것이다. “한국 양궁, 금메달을 맞추다.”는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주문했다.’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린다. ‘적중하다’는 ‘맞히다’이고 ‘견주어 보다’는 ‘맞추다’이다. 이런 점에서 *알아맞추다’는 존재하지 않고 ‘알아맞히다’만 가능하다. (2ㄴ)의 ‘삼가해 주십시오’의 *삼가하다’도 잘못된 표기이다. ‘삼가다’로 끝나는 말이므로 ‘삼가하다’로 쓸 이유가 없다.

(3) ㄱ. 장밋빛/*장미빛, 수돗물/*수도물

ㄴ. 머리말/*머릿말, 초점/*촛점

ㄷ. 시곗바늘/*시계바늘

사이시옷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3ㄱ)의 ‘장밋빛/*장미빛’은 표준 발음이 [장밋빼ㄷ/장미빼ㄷ]이므로 ‘장밋빛’으로 적어야 한다. (3ㄴ)의 ‘머리말’은 표준 발음이 [머리말]이므로 ‘머리말’로 적어야 하고, ‘초점(焦點)’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3ㄷ)의 ‘시곗바늘’은 ‘시계’와 ‘바늘’의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띄어쓰기 문제 또한 복잡하고 어려워서 교과서 문장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교과서 간에 일관성도 없고, 같은 교과서 안에서도 띄어쓰기가 다른 곳도 있다.

(4) ㄱ. 왜냐하면/*왜냐 하면

ㄴ. 태산만 하다/*태산만하다, 믿을 만하다/*믿을만하다

ㄷ. 색 다른/별 다른/또 다른/또 다시/좀 더

ㄹ. 아이스크림, 홈런, 골인, 드라이아이스, 홈페이지

(4ㄱ)의 ‘왜냐 하면’은 문법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을 ‘왜냐 해서’, ‘왜냐 하고’, ‘왜냐 하니’와 같은 구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절과 음절 사이에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는 단어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은 부사어이므로 한 단어로 처리해야 한다. (4ㄴ)의 ‘태산만 하다’를 ‘태산만하다’로 잘못 쓴 경우가 있는데 ‘태산만 못하다’를 볼 때 ‘만하다’는 접미사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태산만 하다’, ‘믿을 만하다’처럼 써야 한다. (4ㄷ)은 교과서 문장에서 붙여 쓰고 있는데 모두 띄어 써야 한다. (4ㄹ)은 외래어 중에서도 붙여 써야 하는 예들이다.

- (5) ㄱ. 잘하다/*잘 하다, 잘못하다/*잘 못하다
 ㄴ. 전 세계/*전세계, 지구 상/*지구상
 cf. 전설상
 ㄷ. 축하받다/*축하 받다, 칭찬받다/*칭찬 받다
 ㄹ. 출장 중/*출장중, 화재시/*화재 시
 cf. 은연중

(5)는 그 동안 교과서에서 혼란이 있었던 예들이다. (5ㄱ)의 ‘잘하다/*잘 하다’는 논리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 그렇지만 ‘못하다’와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잘하다’가 더 낫다. ‘잘하다’의 반대말은 ‘못하다’이다. (5ㄴ)의 ‘전 세계’의 ‘전’은 관형사이므로 붙일 수 없다. ‘지구 상’의 ‘상’은 구체적 장소일 때는 띄고 추상적 장소일 때는 붙인다(예: 전설상). (5ㄷ)의 ‘축하받다’, ‘칭찬받다’ 등도 붙여 써야 한다. 이들은 ‘축하하다’, ‘칭찬하다’의 피동적 상황에 쓰인다. (5ㄹ)의 ‘출장 중’은 띄어 쓴다. ‘출장 가는 중’과 같이 의존 명사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연중’은 예외적으로 한 단어이다. ‘화재 시’도 ‘화재가 날 시’와 같이 의존 명사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말 중에서는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와 쓰일 때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사측/노측, 학교 내/교내, 귀 회사/귀사, 고 흥길동/고인).

- (6) ㄱ. 한번/한 번, 큰소리/큰 소리
 ㄴ. 교육 과정/교육과정, 한국 교과서 연구 재단/한국교과서연구재단

(6ㄱ)의 ‘한번’은 ‘시도’의 의미일 때 붙이지만 수량을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 ‘두 번’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면 된다. (6ㄴ)의 ‘교육 과정’은 전문어인데 단어별로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관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고유 명사 ‘한국 교과서 연구 재단’도 두 가지가 가능하다.

- (7) ㄱ. 타깃/*타겟, 캐럴/*캐롤, 비커/*비이커, 케이크/*케익
 ㄴ. 드보르자크/*드보르작, 모차르트/*모짜르트, 세잔/*세잔느
 ㄷ. 뉴턴/*뉴튼,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 라브아지에/*라브와지에

외래어 표기 또한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국어 사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외국의 인명, 지명이 나올 경우 국어 사전을 찾아보아서 옳은 표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 (8) ㄱ. 자동차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ㄴ. 추에 실을 매달고, 실을 아래로 당겨 보자.
 ㄷ.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위의 예문은 의미 없는 쉼표를 찍은 경우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필요 이상으로 쉼표가 많

다. 구가 연결되거나 문장이 연결된다고 무조건 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2. 국어 표현의 문제

교과서 문장에서 국어 표현을 어색하게 한 부분은 국어 표기를 잘못 쓴 경우보다도 더 심하게 많다. 또한, 국어 표현은 글쓰기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3.2.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깨진 문장

글을 쓸 때 저지르는 잘못 중의 하나가 주어와 서술어 간에 호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져야만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

(9)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는 내가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어 매우 위독할 뿐 아니라, 감방 동료들에게도 전염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10) 그래서 이 물을 오랫동안 마셨던 사람들이 암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한다.

(9)는 앞뒤의 주어가 서로 다른데도 뒷부분은 주어가 빠졌다. ‘폐결핵을 앓아 위독하다’의 주어는 ‘내가’이지만, ‘전염될 위험이 있다’의 주어는 ‘내 병’(폐결핵)이다. ‘폐결핵’이 만성 전염병이므로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주어인 ‘내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10)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3.2.2. 접속 관계를 잘못 쓴 문장

단어나 그 이상의 단위를 나열하고 접속하는 데에도 부적절한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 둘 이상을 접속하거나 나열할 때에는 그 대상

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접속 관계가 부적절한 문장은 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문맥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대상을 동일시하여 구분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11) 구성원들은 소외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제 해결과 한번 결정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12) 주변 나라들과 상호 방위 조약이나 집단 안전 보장 기구를 만들었으며……

대등한 내용이 연결되는 ‘A와 B’나 ‘A—고 B’와 같은 구성에서는 구성 요소인 A와 B의 형식이 대등해야 한다. (11)은 명사구와 동사구를 연결하고 있다. 앞부분의 ‘문제 해결’과 뒷부분의 ‘한번 결정한 것’은 대등하지 않다. 앞부분의 ‘문제 해결과’를 ‘문제를 해결하고’로 바꿔 양쪽의 형식을 일치시켜야 자연스럽다. (12)는 명사구와 명사구의 연결이므로 ‘상호 방위 조약’은 ‘만들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으므로 ‘상호 방위 조약이나’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거나’로 바꿔야 한다.

3.2.3.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부적절한 문장

문장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는 분명해야 한다. 만약, 이들 관계가 분명치 않다면, 글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엉뚱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다.

(14) 부적절한 학생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13)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이

‘자유와 평등’을 수식하는 것은 이상하다. 뒤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 다음에 쉼표를 넣어야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자연스럽다. (14)에서 ‘부적절한 학생 행동’은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어색하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바뀌어야 자연스럽다.

3.2.4. 조사나 어미를 잘못 쓴 문장

조사나 어미를 잘못 쓴 문장은 용법을 잘못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조사는 체언 뒤에 와야 하며, 어미나 선어말 어미도 어간 뒤에 와야 한다.

- (15) 일본과 우리 나라와는 예부터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16) 한글 소설로는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들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혀지고 있다.

(15)은 ‘우리 나라와는’에서 ‘와’를 빼야 옳다. (16)은 ‘작품으로’와 ‘읽혀지고 있다’가 어울리지 않는다. ‘작품으로’는 조사 ‘으로’를 ‘인데’로 고쳐야 하고, ‘읽혀지고’는 이중 피동 형태이므로 ‘읽히고’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이중 피동 형태의 서술어로 ‘나뉘어지다’, ‘되어지다’, ‘바뀌어지다’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다.

3.2.5.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 문장

글을 쓸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에 군더더기를 붙이거나 이미 언급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되면 오히려 정보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 (17)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 (18) 국어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국어 활동 전반에 관련된다.

(17)에서 ‘농산물’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농작물’로 바뀌어야 옳다. (18)에서 ‘활동’은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의미이므로 ‘국어’ 뒤에는 적절치 않다. ‘활동’을 ‘생활’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3.2.6. 외국어 투 표현, 순화 대상 용어를 사용한 문장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어 투 문장은 상당히 많다. 우리말을 영어나 일본어 투로 직역해 놓아 이상한 문장이 되었다. 또한, 순화 대상 어휘인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문장도 상당히 눈에 띈다.

- (19) 산업의 발달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20) 16세기 말에 조선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에의 출병으로 명의 국력은 더욱 쇠약해졌고……

(19)는 ‘……을 필요로 한다’라는 영어 투 서술형을 썼다. 영어 ‘need’의 타동사적 용법을 써서 표현하였다. ‘……이 / 가 필요하다’로 고쳐야 우리말답다. (20)은 조사 ‘에의’가 외국어 투 문장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임진왜란에 출병하여’로 바뀌어야 자연스럽다.

4. 맺음말

한 나라가 얼마나 문화 선진국인가를 알아보는 문화의 척도를 국민들의 글쓰기 능력에 두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어학자가 있다. 모든 국민이 높은 글쓰기 수준을 갖추었다면 그 나라는 결코 문화 후진국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쓰기 수준을 평가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 바로 그 나라의 교과서 문장이 될 것이다. 교과서 문장은 바로 우리 문장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 주기 때문이다. 교과서 문장은 대부분 지식인들의 손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도 오류가 지적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집필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한 출판 관계자나 편수 관계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과서 문장을 작성하는 집필자는 다른 글에 비해 좋은 글, 바른 글을 써야겠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어 사전을 참고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어 사전은 어문 규범은 물론, 바른 문장의 기초까지 제공해 준다. 또한, 집필자는 완성된 글을

집필자 자신이 여러 번 검토를 해야 하지만, 남에게 보여 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교과서 문장이므로 출판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출판 관계자나 편수 관계자들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과서 문장의 상황은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잘못된 문장이 있을 때, 왜 그 문장이 잘못된 문장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문장인지 충분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교과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24

밀레니엄 시대의 교과서

(기술 교과 중심)

신 동 한 (경남 밀양중학교 교사)

1

내게는 교과서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잊혀지기는커녕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도 생생한 장면들이라 마치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곤 한다.

내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며칠 전부터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그만 두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듣는 즉시 잊어버린 채 만화책도 보고 친구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그 날도 비가 몹시 내리는 토요일이었지만 하룻길에 친구 집에 들렀다. 잡담하며 만화책을 보다 보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걱정스러워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 내리며 도둑 고양이처럼 내 방에 들어갔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버지께서 내 방에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네 가방 어딤?”라고 물으시면서 내게 전혀 관심 없다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방을 찾고 계셨다. 나는 겁에 잔뜩 질려 턱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을 찾으신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내 가방을 집어 들더니 방문을 확 열어제치시고는 마당으로 힘껏 집어 던지셨다. 나는 그 순간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아! 이제는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구나.

아버지는 방문을 확 닫으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방으로 들어가셨다. 그 뒷모습이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바위산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방을 나가시고 나서도 한참이나 멍하니 있었다. 얼마 후에야 이것이 현실이고 내게 닥친 절망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서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는 거대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방을 챙기러 나간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머니라도 빨리 나와서 가방을 챙겨주길 바랐지만 안방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빗속으로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둠보다 더 무거운 집안 분위기가 날 꼼짝도 못하게 찍어누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밖에 흩어진 내 책들과 공책을 쳐다본다는 것은 더더욱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방에 들어 있던 교과서들은 마당에 흩어진 채 빗물을 흠뻑 흡수하다 못해 해지고 찢겨졌을 거라는 생각과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눈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찢겨진 창호지 문틈 사이

로 빼꼼히 마당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 그 책을 주섬주섬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이제 되었다.’라는 안도감보다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져 내렸다.

월요일 아침, 내 가방 속엔 부뚜막에서 정성껏 말린 쪼그라들고 흙 묻은 교과서들과 따뜻한 도시락이 여전히 들어 있었다. 흙 묻고 쪼그라든 교과서들이라도 내겐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교과서는 곧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아찔한 생각이 들곤 한다.

나는 이 시기의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계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로 또, 교과서 집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2

요즘 교실을 둘러 보면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소중하게 챙기는 일이 거의 없다. 교실의 여기저기에 주인없이 아무렇게나 뒹구는 교과서들이 한두 권이 아니다. 교과서를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 사물함이 나 책상 서랍에 놓여진 교과서들은 구겨지고 찢어지고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학년이 마쳐진 2월 말이면 가져가지 않은 책들이 교실을 가득 메운다. 학생들의 가방 속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은 아예 구경할 수 없다. 학생들이 가방에는 도시락, CD 몇 장, 냉장고에서 열린 물, 공책 몇 권 등 잡다한 물건들만 들어 있다. 집에서는 공부를 무엇 가지고 하느냐고 물으면 “집에서 공부 안 해요. 학원 가요.”라는 대답이거나 “집에는 참고서들이 있어요.” 또는 “CD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하루는 내가 가르치는 ‘기술 산업’ 교과서를 들여다보다 정말 학생들이 교과서를 업신여길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30여 년 전의 교과서나 지금의 교과서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교과서의 크기, 흑백 인쇄, 변함 없는 교과서 내용 등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할 수 없는 여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 동안 문화적 가치가 변했고, 시대를 주도해 가는 기술적 도구와 매체들이 변했다. 30년 전의 학생들이나 현재의 학생들이 집에서 산다는 의미는 같을지 몰라도 어떤 집에서 사느냐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0년 전의 교복의 질과 현재의 교복의 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30년 전의 천을 이용해서 교복을 만들어 현재의 학생들에게 입히면, 그들이 교복을 업신여길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서점에 나와 있는 인쇄 매체들을 보라. 현재의 교과서와 같은 인쇄본들이 있는가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외형 체제라도 벌써 달라져야 하지 않았을까?

3

우려 속에 다행한 일일까? 목마름 속에 고대했던 물 한 모금일까? 그 동안 교과서의 외형 체제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교과서 모습으로 선을 보였다. 2001 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들이 전시되는 순간 너무도 화려한 모습이라고 환호성을 올렸다. 아마 그 동안 너무도 초라했던 모습에 대한 심리적 상승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한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교과서의

판형이 국판(148×210mm)에서 4×6 배판(187×257mm)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색도에 있어서도 다색도 및 컬러 사진이 삽입되었다. 책을 구성하는 지질이 고급화되었고 활자의 모양과 크기에 있어서도 판독률 및 속독률을 향상시켰다.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책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변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제7차 중학교 1학년 교과서들이 공개되던 날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고급 잡지’처럼 업그레이드됐다.”(조선일보, 2000. 10. 26), “종이를 고급화하고 사진이나 삽화를 컬러 인쇄하는 등 화려하게 꾸며졌다.”(동아일보, 2000. 10. 26)는 반응을 보여 외형적인 변화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 못지않게 질 높은 내용 체제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에는 충족시키지 못한 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기술 교과에 대한 우려들을 떨칠 수 없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4

학생들에게 천대받고 교실 구석에 버려진 교과서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교과서=교육과정이라는 등식이 무리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1994. 함수곤)이고 ‘교과서는 교육 실천의 절대적 힘’이라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떤 국가를 형성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기술과 가정을 병합하여 한 교과로 묶고 단일

교과서로 ‘기술·가정’을 발행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기술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과목이고 중요시 여겨져야 할 교과이다.

우리 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고 희망을 갖기 위한 유일한 길은 기초 기술 능력 및 기술적 사고를 기르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부흥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중등 교육과정에서 기술 교육을 강조했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각 기업의 기술적 핵심을 이루고 이끌어 가는 세대들, 그들은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강화된 기술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고 그들이 우리 나라 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결코 우연한 성장이거나 기적이 아니라 기술적 태도와 사고 능력의 교육이 그 밑바탕을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미래 사회의 국가간 경쟁은 결국 기술 경쟁일 수밖에 없다. 이념적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국가 간 종속적 관계가 경제와 기술의 무한 경쟁 체제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고 볼 때, 이제 힘과 무력에 의한 식민화보다 기술과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나라가 겪었던 IMF 체제에 대해 경제 식민을 당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1차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 우위 기술을 기르는 길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교 우위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전 국민의 일반적 기술 능력이 향상될 때 가능해지며 이는

국민의 보통 교육인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술 교육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가정과 병합함으로써 기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은 기술을 경시하는 국민적 풍조와 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기반 부족 등 많은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술 교과와 교과서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5

우리 나라에서 기술 교육의 활성화를 태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활성화를 이루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술 교육 이론과 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들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되고 연구된 이론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현장 접근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교육과정에서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소비자들로부터 기술 교육을 배워야 할 절실한 이유를 깨우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즉, 기술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이론적으로는 강조하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과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최전방에서 만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교육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발전 방향의 모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기술 교과서 내용이 아직도 2, 3차 교육과정기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송 기술’ 단원의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교육과정,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마치 변함 없는 진리인 것처럼 들어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수송 기술의 대표적인 내용이고 꼭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전(前) 교육과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범위에서 교과 내용이 편성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편성시 교과서 집필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할 수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기술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기술 교과서의 외형 체제나 내용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학처럼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처럼 이미 있어 왔던 사실들을 나열하여 가르치는 교과도 아니다. 기술은 인류의 역사이며, 현재이고, 미래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 중등 기술 교육이 생활 기술을 강조한다면 1970년대의 생활 모습이 다르고, 1980년대의 생활 모습이 다르고, 2000년대의 생활 모습이 다르듯이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1980년대의 기술 교과서 내용을 복사하듯이 1990년대에 가르치고, 또다시

2000 년대에 그 내용의 일부만 수정하여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는 떨어질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술이 인간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다면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기술 교육의 발전과 기술 교과서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기술 교육은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과 똑같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교과서 절대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교과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안내 역할과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가장 좋은 참고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술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즉, 종래의 교과 내용이 진리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빨리 탈피하여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동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 평가와 연구에 있어서는 교과의 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외형 체제, 구조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과서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전자 교과서 개발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1 세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과서의 개념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교과는 정보 통신 기술을 선도해야 할 교과로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현재와 같이 교과의 정체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대

한 관심을 갖고 앞서 나갈 발판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6

학생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학창 시절은 학생들이 소유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어떤 미래를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기르느냐에 달려 있으며, 교과서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의 능력을 기르는 교과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학생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속에서 국가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를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레니엄 시대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 23

아랍국가의 교육제도의 원칙과 현실

이 희 수

한양대학교 교수

1. 아랍 교육의 근간으로서 이슬람

아랍 국가의 교육 근간은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가치관에 몰입되어 있다. 정교 일치적 성향이 강한 이슬람이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양태인 문화의 모습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20세기 들어 아랍권의 이슬람 세계는 서구의 가혹한 경제적 침탈을 경험하고 첨단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군사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 이게 된다. 그것은 서구 문화에 대한 수용과 교육이라는 당면 과제였다. 동시에 서구적 가치관을 이슬람의 가치에 적대적인 대상으로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조화로운 협력과 절충의 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아랍 국가 엘리트들의 일관된 관심사는 ‘교육을 통한 서구화와 이미 전통 가치로 굳어진 이슬람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힘든 과업은 지금도 끊임없는 내적 도전을 받으며 현재 진행형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랍의 교과 과정은 전통적인 이슬람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병행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최근에는 이슬람 과학의 재해석과 복원 노력을 통해, 이슬람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분야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논리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많은 아랍 국가에서는 전통 가치의 고수와 서구 이론에 바탕한 근대 교육의 개념이 상존하면서 보수와 혁신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과 절충을 거듭해 가는 과정에 있다.

2. 이슬람에서 교육의 개념과 교육 철학의 원칙

교육(education)에 해당되는 아랍어 용어는 ‘tarbiya’이다. 이 용어는 ‘raba’, ‘yarbu’에서 파생되었는데, 모두 ‘성장’, ‘증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통 이슬람 사상에서 ‘tarbiya’의 의미는 ‘완성과 성숙(kamal)으로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슬람 교육의 의미는 개인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이슬람의 가치관에 따라 계발하여 심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완성된 인

격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슬람에서 교육은 인간의 지적 정보의 극대화나 기술적 훈련을 넘어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행위와 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동 아랍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육 철학의 원칙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일신 사상

이슬람은 일원론적인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을 그 모태로 하기 때문에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은 유일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의 유일성에 입각한 개인 교육 및 사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지식의 원칙

이슬람 교육에서 지식이야말로 모든 문화적 진보의 대들보이다. 지식이란 의미의 일름('ilm)은 이슬람의 핵심으로 경전인 코란에서도 두 번째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이다. 나아가 이슬람 지식은 종교적인 개념과 신앙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적 현상과 물질적 지식 탐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 지식은 다양한 과학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다. 사상의 자유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이슬람은 다른 사상,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적이고 적극적인 외래 과학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역동성을 갖추었다. 이슬람 문명이 번성하던 중세가 바로 가장 적극적으로 바깥 문화를 받아들여 지적 논의가 활발한 시기였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리스 고전이 번역되고, 자유로운 의사와 지식의 발현을 통해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진보와 철학적 사조가 폭넓게 소개된 시기였다. 사상의 자유를 막는 전통에 대한 맹종과 박제된 지식에 대한 거부는 코란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코란 2 : 170, 7 : 179, 17 : 36, 6 : 148).

라. 아말('amal) : 실천의 원칙

지식과 실천의 연계야말로 이슬람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칙이다.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한 행위와 지식의 실천이야말로 고양된 인간의 정신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본다. 나아가 노동과 지성적 행동은 노예 상태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고 인간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주는 덕목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아랍 철학자 알-가잘리(Al-Ghazali)는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라. 유용성이란 지혜와 실천의 합치에서 나온다.”는 말을 남겼다.

마. 인간의 평등 원칙

인종적 차별, 직업, 귀천, 신분을 가리지 않는 신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 개념과 그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한다.

바. 사회성의 원칙

이슬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간은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를 습득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가치를 고양하는 자이다. 즉, 사회를 위해 자신을 양보하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행위를 지향한다. 사회적 권리 요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 균형이 바로 정의라고 규정한다.

모든 국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의 산물인 그 나뭇의 신념 체계와 원칙과 철학이 있다. 따라서, 인간가치의 보편적 원칙을 제외하고 동양과 서양의 서구의 특정 이론에 자국의 교육을 맞추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가치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이 서구식 교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슬람의 가치와 아랍 국가들의 역사적 축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서구식 교육 제도와 교육 철학이 자국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폐해를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4. 아랍 국가 교육 정책의 목표와 현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교육 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 ① 교육과 훈련을 적절히 배분하여 인재 양성에서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효율성의 극대화
- ② 다양한 계층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
- ③ 동기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경험의 자유로운 선택

물론, 이 세 요소를 각기 독립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절충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문제와 교육 인구의 과잉, 정책의 시행 착오로 교육의 효율성과 동등성, 자유 선택이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효율성 측면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교육 제도는 교육의 동등성과 자유 선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간과되었다. 교육 인구의 폭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 경험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체계적이고 인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효율성의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리비아에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훈련된 인원을 필요로 하고, 배출된 인적 자원이 거의 대부분 흡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 선택 요소가 무시되었어도 커다란 반발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교육 목표의 세 요소가 비교적 적절히 배분되어 시행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우선, 이 나라는 풍부한 자원과 현대식 교육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교육 정책을 원칙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또, 교육 효율성 문제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했고, 동등성 문제도 취학 전 교육에서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국비로 교육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해결되었다. 물론 대학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입학의 제한하였다. 오히려 입학의 제한은 대학을 돈 들이지 않고 단순히 간판이나 따는 곳에서 치열한 연구와 학습을 요구하는 명실상부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집트에서는 대학 교육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하여 교육 동등성 기준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취업하지 못하는 대량의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하향 평준화된 대학 졸업자들은 교육적 자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단순한 정부 업무를 위해서도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취업 전쟁을 치러야 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은 대학 입시에 치열한 경쟁 체제가 도입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졸 실업자 문제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에게 극도의 난제를 던져 주며 오늘날 이집트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아랍 국가 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심각한 고민은 세속 교육의 강화와 종교 교육의 소홀로 야기되는 문화적 갈등과 보수·혁신 세력 간의 갈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근대식 교육 과정에 강력한 이슬람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충격과 전통 가치의 변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고등 학교 교과 과정에서 종교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필수적인 과제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종교 교육의 철학은 이슬람이 영적인 훈련과 실천적 행위의 장려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학문적으로 균형잡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코란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집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는 고등 학교와 대학에서의 종교 교육이 매우 미미하고 제한되어 있다. 종교 과목이 필수가 아닌 교양 과목으로 분류되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특히, 아랍 근대 교육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교육의 명문인 알 아즈하르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종교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당 부분 외국의 제도와 자원에 의존한다. 아직도 문맹률이 높고, 교육 여건이 낙후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국민 교사와 교수 요원들이 양성될 때까지 외국의 교육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동시에 많은 사우디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위해 유학을 선택한다. 아랍 국가에서 근대 교육이 막 시작된 1959~1961년 사이에 당시 아랍 국가를 대표하던 이집트의 해외 유학생은 3,739명, 이라크는 1,862명이었다. 1975년에 와서 이집트, 이라크의 해외 유학생은 둔화된 반면, 신흥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였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유학생 수는 5,158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의 0.85%에 해당되었다. 같은 기간 이집트와 이라크의 해외 유학생 인구 대비는 각각 0.1%, 0.2%였던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많은 수이다.

최근 들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아랍의 엘리트 계층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첨단 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도 이슬람 교육과 인문학은, 보수적인 아랍학자들이 방법론과 학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랍 국가의 주도적인 교수 요원

으로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출신들이다. 이슬람적인 도덕률 속에서 서구와 경쟁하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야말로 아랍 국가 교육 정책 입안자들에게 부과된 지상 과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두 마리 토끼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결론

이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한 선험적 우월감으로 인해 힘의 논리에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서구와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서구는 이러한 이슬람 세계의 도전을 테러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위협으로 호도하면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략과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국지적 분쟁에 이슬람권이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서구는 이런 현상을 이슬람의 호전성으로 신나게 선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민족적 긍지와 종교적 가치를 무참히 유린당한 당사자들의 응어리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 가고 있다. 나아가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구의 침탈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슬람 국가의 절박한 외침도 최근 들어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이다. 외래 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심화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곧바로 교육 제도의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전통 교육의 바탕 위에서 서구의 물질적 혁신과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시장 경제의 세계적 흐름에도 진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종교적 가치만 가르치던 교육 기관은 점차 쇠퇴해 가고 학교 교육에서 과학과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랍 국가들의 테크노크라트들의 절대 다수가 이공계 출신으로 외국에서 유학한 자들로 구성되고 있는 점이 아랍 국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더 이상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가치의 우월성에 빠져 있는 문화권이 아니다. 이슬람적 가치야말로 현대적 학문의 흐름과 과학적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상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인식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오염된 물질 가치 중심의 서구 문화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 29

종이로 된 교과서의 운명

김 만 곤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요

즈음 e북이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과연 현재의 종이로 된 교과서가 언제까지 살아 남아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종이로 된 교과서를 만들던 사람으로서 얼른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심정을 갖기도 한다. 어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직은 교과서 편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들 중에 e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 곁에서 “e북” 한다면 누구나 얼른 이쪽을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의 예측

컴퓨터의 황제라는 빌 게이츠(1996)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¹⁾

“미국의 평균적인 초·중등 학교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평균적인 미국 기업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집에서는 휴대폰, 뽀뽀, 컴퓨터를 쓰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기껏해야 칠판과 영사기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리드 헛트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이 나라에는 수백만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면서도 전화기를 쓸 수 없고, 케이블 TV도 볼 수 없으며, 또 제대로 된 통신 시설 하나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 수만 개나 있다. 바로 학교라는 곳이다.」(중략)

벽걸이 비디오 모니터는 교실에서 칠판을 몰아낼 것이다. 수많은 교육용 그림, 애니메이션, 사진, 비디오가 그 화면에서 다양한 활자체와 화려한 그래픽으로 표현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문서는 지금의 교과서, 영화, 시험, 그 밖의 교육 자료가 깔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떠맡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문서는 정보 고속 도로의 서버들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의 ‘신뢰로운’ 이 문장을 보면 교실에서 칠판이 사라질 것은 분명하고, 종이로 된 교과서의 일부 역할을 멀티미디어 문서가 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나라 I 종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정책을 계속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e북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게 되었고, 어쩌면 ‘관심’ 정도가 아니라 ‘현안 사항’이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과서’라고 하면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줄 아는 국민이 아직도 많다. 또, 교과서에 담겨진 지식은 모두 암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은 더욱 많다. 이 기회에 함께 말하면, 지금은 당장 전자 교과서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 할 때라는 것은 모르고, 국가에서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교재)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이미 1998년의 이 규정 개정시에 반영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바뀐 지 오래 되었으며, 지금도 그 개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의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만약,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 중 한 사람이 교과서는 성전(聖典)이 아니며, 수업은 교과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교과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일 뿐이라는 설명을 해 주면, 다 듣고 나서 “그래도 교과서인데, 실제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많다. “교과서가 이렇게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배우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많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습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학습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미국 교과서는 더 두껍다.”라고 대답하면 “우리과 미국은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말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구분(초등 학교)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직도 당연히 읽고 베끼고 외워야 할 내용이 가득한 종이책에만 머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²⁾ 제 2조(정의)를 보면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보완	<table><tr><th>교과</th><th>교과서</th><th>지도서</th><th>보완 교재</th></tr><tr><td>바른 생활</td><td>8</td><td>4</td><td>—</td></tr><tr><td>슬기로운 생활</td><td>4</td><td>4</td><td>—</td></tr><tr><td>즐거운 생활</td><td>4</td><td>4</td><td>교사용 녹음 테이프 4</td></tr><tr><td>국 어</td><td>30</td><td>12</td><td>교사용 녹음 테이프 12</td></tr><tr><td>도 덕</td><td>12</td><td>6</td><td>—</td></tr><tr><td>사 회</td><td>14</td><td>8</td><td>지역 교과서 16</td></tr><tr><td>수 학</td><td>24</td><td>8</td><td>—</td></tr><tr><td>과 학</td><td>16</td><td>8</td><td>—</td></tr><tr><td>실 과</td><td>2</td><td>2</td><td>—</td></tr><tr><td>체 육</td><td>4</td><td>4</td><td>—</td></tr><tr><td>음 악</td><td>4</td><td>4</td><td>교사용 전통 음악 테이프 4</td></tr><tr><td>미 술</td><td>4</td><td>4</td><td>—</td></tr><tr><td>외국어(영어)</td><td>4</td><td>4</td><td>학생용 녹음 테이프 4 교사용 CD-ROM</td></tr><tr><td>특별 활동</td><td>—</td><td>5</td><td>—</td></tr><tr><td>정보 통신 활용 지도 자료</td><td>—</td><td>1</td><td>—</td></tr><tr><td>계</td><td>130</td><td>82</td><td>학생용 4, 교사용 24</td></tr></table>	교과	교과서	지도서	보완 교재	바른 생활	8	4	—	슬기로운 생활	4	4	—	즐거운 생활	4	4	교사용 녹음 테이프 4	국 어	30	12	교사용 녹음 테이프 12	도 덕	12	6	—	사 회	14	8	지역 교과서 16	수 학	24	8	—	과 학	16	8	—	실 과	2	2	—	체 육	4	4	—	음 악	4	4	교사용 전통 음악 테이프 4	미 술	4	4	—	외국어(영어)	4	4	학생용 녹음 테이프 4 교사용 CD-ROM	특별 활동	—	5	—	정보 통신 활용 지도 자료	—	1	—	계	130	82	학생용 4, 교사용 24
교과	교과서	지도서	보완 교재																																																																		
바른 생활	8	4	—																																																																		
슬기로운 생활	4	4	—																																																																		
즐거운 생활	4	4	교사용 녹음 테이프 4																																																																		
국 어	30	12	교사용 녹음 테이프 12																																																																		
도 덕	12	6	—																																																																		
사 회	14	8	지역 교과서 16																																																																		
수 학	24	8	—																																																																		
과 학	16	8	—																																																																		
실 과	2	2	—																																																																		
체 육	4	4	—																																																																		
음 악	4	4	교사용 전통 음악 테이프 4																																																																		
미 술	4	4	—																																																																		
외국어(영어)	4	4	학생용 녹음 테이프 4 교사용 CD-ROM																																																																		
특별 활동	—	5	—																																																																		
정보 통신 활용 지도 자료	—	1	—																																																																		
계	130	82	학생용 4, 교사용 24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이런 정도의 다양성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다만, 일부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나온 전자 도서라 할 만한 것들이 비록 연구 기간은 몇 년씩 되었다 하더라도																																																																				

<p>실제로는 학습 목표의 달성보다 전자 도서의 흥내를 낸 것에 지나지 않거나, 쉽게 확보한 자료를 단순하게 연결한 자료, 또는 학생들의 단순한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를 무작정 넓힐 수만은 없는 한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자료 개발 보급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p>	<p>종류에 교과서를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주로 소설에 관심을 둔 소설가로서의 생각을 쓴 글이므로, 이 글을 읽고 “아, 그렇다면 종이책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구나.” 한다면 너무 경솔한 판단이 될 것 같다. 생각해 보자. 교과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교과서가 결코 가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감각적인 기쁨을 선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극히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교과서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며, 교과서는 우리의 빛을 잡아 앗히는 책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설사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종이로 된 교과서를 만들자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p>
<p>종이책은 이래서 죽지 않는다</p>	<p>종이로 만든 교과서에 대한 예측</p>
<p>얼마 전 신문에서 ‘종이책은 이래서 죽지 않는다’는 존 업다이크(미국의 소설가)의 매력적인 글을 읽어 보았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미 독서 시장에 등장한 마이크로 소프트 시스템의 전자 텍스트 출현으로 종이와 폴로 제본한 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제 책은 홀렛 팩커드에서 제조한 포켓용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갔다.”라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리움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⁴⁾</p>	<p>그러나 종이로 된 교과서에 대한 애정이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야기가 얼마 전 신문에 실렸다.⁵⁾ 그 기사에서 교과서에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 눈에 띄는 문장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p>
<p>—가구로서의 책(땀을 따뜻하게 하고, 형성 중에 있는 정신의 과정을 나타내며,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한다.)</p>	<p>—“e북과 종이책은 분명 서로 다른 역할로 출판 시장을 나눠 가질 것이며, e북은 출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뉴욕 맨해튼의 옥스퍼드대 출판사 고문 에드워드 베리⁶⁾는 진단했다.</p>
<p>—감각적인 기쁨을 선사하는 책(보통 크기의 책은 손에 들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유혹적인 감각을 준다.)</p>	<p>—전자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관심사는 ‘맞출 출판(POD: Point On Demand)’이다. 로버트 벤치 뉴욕 주립대 출판학과 교수⁷⁾는 “전자 출판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맞출 출판’이고 이는 출판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책 한 권 중 원하는 부분만 고</p>
<p>—기념품으로서의 책(개인의 장서 목록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상징한다.)</p>	
<p>—우리의 빛을 잡아 앗히는 책(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단지 한 세트의 영상 장면으로 화해 버릴 것이다.)</p>	
<p>그러나 존 업다이크의 이 글은 ‘종이책’의</p>	

<p>르거나 여러 서적에서 읽고 싶은 곳만을 추천해 내는 개인용 출판이다.</p>	<p>고전을 책의 형태로 읽는다. 하지만 그 당시 그</p>
<p>—출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자책과 종이책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자책은 요리책, 관광 가이드, 어학 교재, 백과사전 등 실용서에 적합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문자 텍스트뿐 아니라 동영상과 음성 등이 결합된 디지털 문자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p>	<p>고전들은 책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위에 씌어져 있었으며, 지금의 책에서 보는 마침표, 문단, 색인, 띄어쓰기 등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고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그 내용만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글쓰기 공간에 예전의 글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책의 형태로 씌어진 글들을 하이퍼 텍스트 공간에서 새롭게 읽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선형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종이책에 익숙했던 독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다양한 가능성과 길들이 펼쳐져 있다.”</p>
<p>더욱 중요한 것은 전자책이 서구 모더니즘의 근간인 선형적(기승전결 구조를 갖춘 형태)인 글쓰기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 저자와 독자가 엄격히 구분되는 종이책과 달리 하이퍼 텍스트로 이뤄진 인터넷상 문서는 누구나 읽고 쓰면서 자의적인 편집도 가능하다.</p>	<p>또 있다. 덴마크 經總 교육 책임자 매츠 랭스터드는 “IT 혁명 이후의 교육에서 교과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⁹⁾</p>
<p>자, 이 정도이면 종이로 된 교과서도 당분간은 살아 남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희미한 징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와 생사를 가름할 만큼 우리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하이퍼텍스트를 연구하는 한 학자의 글을 보자.⁸⁾</p>	<p>“ICT 시대에는 교과서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이미 덴마크에서는 종이 교과서 대신 교실에서 프로젝터를 적극 사용하는 등 전통적 의미의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해 왔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 아래 인터넷과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접하며 스스로의 교과서를 각자 만들어 가고 있다. 교사들은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한다.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시험이 치러진다. 인터넷 혁명 이후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새로운 ICT 교육 방식을 완전히 익히고 수업 방식을 개발해야 학생들을 적성과 진도에 맞게 이끌 수 있다.”</p>
<p>“데리다가 책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하이퍼 텍스트는 그 책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글쓰기이다. 책의 은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이퍼 텍스트는 새로운 책이다.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책이다. 《조종》이 기존의 종이책에 대한 가한 상처가 하이퍼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훈장이 된다. 하이퍼 텍스트는 비선형성을 강조한다. 어떤 경로를 정해 주지도 않는다. 경로를 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p>	<p>“교육은 이제 캠퍼스와 강의실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하</p>
<p>하이퍼 텍스트는 과거의 글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읽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p>	

<p>지만 초등 학교와 중등 학교는 다르다. 초등 학생들에게는 교실이 매우 중요하다. 덴마크 가정의 90%가 맞벌이다. 어린 아이들을 낳시 간대에 학교가 돌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중등 학생들도 교실에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협력을 통해 인터넷의 바다를 헤쳐 나가 원하는 지식을 얻도록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실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물론 이제는 한 교사에게서가 아니라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교사로부터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실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p> <p>변해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른 기사도 얼마든지 눈에 띄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열려라 책!’ 하면 신기하게도 모니터에 보이는 책의 곁장이 저절로 넘어간다. 마술이 아니다. 종이책은 눈속임을 해야할지 모르지만, 전자책은 그런 것 없이도 ‘묘기’가 가능하다.”로 시작되는 기사도 보이는데, 이것은 한 전자책 업체가 음성인증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¹⁰⁾</p> <p>따라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어느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전자화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부분을 전자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자화하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편집하며 배우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둔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동안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교과서가 다시 ‘聖典’ (공정적 의미에서의 교과서의 위상)이 될 수 있을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빌 게이츠·이규행 감역(1996), 「미래로 가는 길」, 270 쪽. 2) 대통령령 제 16841 호(2000. 6. 19. 제 17 차 개정). 3) 존 업다이크, ‘종이책은 이래서 죽지 않는다’, 문화일보, 2000. 6. 20. 7면(뉴욕 타임스와 의 특약에 의한 해외 논단) 4) () 안의 설명은 필자가 요약한 것임. 5) 양성희 기자, ‘다가온 전자 출판 시대’, 기획 시리즈: 제 4의 물결-IT 빅뱅 그 후, 문화일보 2001. 3. 19. 9면. 6) “전자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하고 물었을 때, 베리 옥스퍼드대 출판사 고문은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10년 간 레퍼런스 북, 저널, 교과서의 상당 부분이 전자화했다. 원격 교육으로 교재나 전문 서적 등의 전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인터뷰 기사: 문화일보, 2001. 3. 19, 9면). 7) “전자책에 대한 기대가 거품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상용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컴퓨터 모니터보다는 종이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컴퓨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세대가 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개발한 타입폰트는 e북을 보다 손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라고 대답하였다(인터뷰 기사: 문화일보, 2001. 3. 19, 9면). 8) 배식환(2000), 인터넷, 하이퍼 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문고·우리 시대 011), 뒷표지의 글을 전재. 9) 최형두(기자), “한 과목 여러 교사에 배워, ‘홈스쿨링’ 이젠 현실화”, 문화일보 2001. 4. 26. 11면. 기자는, “덴마크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교과서 없는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매즈 랑스터드(여·52)씨는 덴마크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책임자로 일하며 지난 15년간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의 정보화 정책을 만들어 왔다. 최근 덴마크경영자총협회(DA)에서 교육 정책 담당 총책임자를 맡기 전에는 5년 동안 덴마크 정부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정보 교육 센터를 이끌었다.”라고 소개하였다. 10) 오승훈(기자), “음성 인증 전자책 서비스 : 종이 책을 넘어서”, 문화일보, 2001. 3. 28. 19면.
---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역사 인식의 문제

이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장

일본 교과서 왜곡의 문제 인식

일본 문부 과학성은 지난 4월 3일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합격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에서 만든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련된 내용을 현행 교과서보다 대폭 축소하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피해 당사국인 한국·북한·중국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일본 역사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시의 집권 세력은 교과서 검정 제도와 교과서 조사관의 권한 강화에 의한 관권이 개입하여 역사 교과서 통제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관권의 통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32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는 ‘이에나가(家永) 교과서 재판’ 소송이 제기되어,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권의 통제를 날로 강화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마침내 국제적인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파동이 1982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다.

1982년 6월에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고교용 24종)상에 한국 침략을 ‘진출’로, 3.1 독립 운동을 ‘폭동’으로, 신사 참배 강요를 ‘장려’로 기술하는 등 과거사 관련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982년 8월 우리 정부는 이를 외교 문제로 제기, 일제 침략 등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한 수정을 일본측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외교적 쟁점이 되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은 내정 문제’라는 논지로 항의에 대응하였으나, 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의 ‘역사 교과서에 관한 담화’(1982. 8. 26.)와 문부대신이 자체적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배려’(이웃 아시아 국가와의 근·현대사 역사 관계를 기록할 때는 국제적 이해 협조를 배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담화를 발표(1982. 11)하면서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1차 교과서 왜곡 파동은 일본의 승복으로 끝나면서 실제로 교과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는
일본 정부의 왜곡 시정의 약속과 근린 제국 조항을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검정 제도 운영을 완화하는 데 있다.**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에 유명한 『신편 일본사』(原書房)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2차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가 편집한 고등 학교 역사 교과서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사실을 은폐하는 논지를 담고 있었다. 그 해 5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항의하였다. 이 때 후지오 문부상이 “한일 합병은…… 양국의 합의 위에 성립되었다. 설사 어느 나라가 침략당했다고 치자. 침략당한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망언을 하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대립을 격화시켰다.

한국측의 계속되는 항의에 못 이겨 결국 일본 정부는 후지오 장관을 사임시키고 나카소네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후지오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침략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대립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나카소네의 발언도 기본적으로 ‘외교 전략상’의 필요성에 의한 발언이었다. 문제의 『신편 일본사』 교과서는 4회에 걸친 수정을 거쳐 1987년 7월에 출간되었다. 결국 2차 교과서 사건도 한국측의 공세에 일본이 일정 정도 응함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 왜곡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또다시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검정 기준을 무시하고 과거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

당화하여 항일 독립 투쟁을 축소하고,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삭제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과거의 일본 국수주의, 군국주의가 일본에 불가피했던 역사적 당위로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는 일본 정부의 왜곡 시정의 약속과 근린 제국 조항을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검정 제도 운영을 완화하는 데 있다. 또한, 역사 교육의 문제를 학문과 교육 차원에서 바로잡아야겠다고 나선 양심적인 교과서 저자들의 노력과 이 뜻을 받은 교과서 출판사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오던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야기된 교과서 왜곡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협력이나 평화 공존에 방해가 되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임’측
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

전체적으로 일본 중학교 현행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보다 검정 합격본이 상대적으로 보다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수업 시

<p>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982년 ‘교과서 파동’ 이후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관련 내용의 분량과 서술의 깊이가 심화되었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출판사(기존 7종)에 따라 한일 양국의 의견 차이가 심한 고대사 부분에서 한반도 문화가 일본 문화 발달에 기여한 점, 근대 이후 식민지화 과정, 그리고 식민 통치의 피해 등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확인되기도 한다.(敎育出版) 그리고 식민지화 과정을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연결하여 조선 및 한국과 맺은 각종 조약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노동력 동원의 강제성도 언급하고 있다.</p>	<p>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구 침탈·임진왜란·제암리 학살 등을 누락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p>
<p>그러나 아직까지도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을 간접적으로 서술(東京書籍, 大阪書籍)하고 있거나 근대사 부분에서도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거나 특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축소시키는 등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동일한 주제라도 교과서 저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별로도 서술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p>	<p>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침략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 자체가 잘못이라는 반성이 없고 오히려 시혜를 베풀듯이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철도와 관개 시설 등 수탈을 위한 개발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에 의한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 전쟁시 조선에서 군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일본 위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갈등 및 전쟁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 협력이나 상호 이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p>
<p>특히, ‘모임’측에서 검정을 신청하여 합격한 후소샤(扶桑社) 중학교 사회(역사) 교과서는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를 미화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는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강화도 사건이나 한국 강점(한국 병합)의 원인이 마치 한국측</p>	<p>예를 들면, 가야 제국과의 평화적인 교역이나 조선 시대의 통신사 왕래 등 우호적 교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서양의 백인종과 동양의 황인종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침략을 위하여 일으킨 러·일 전쟁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하여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p> <p>이 교과서가 137곳을 수정하였다고 하지만 표현 형식만 완화하고 자구만 고쳤을 뿐, 침략 전쟁을 일으킨 국가 체제를 옹호하고, 일본의 황국사관, 군국주의 부활 내용 등은 본질적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컨대,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고 강요에 의한 국권 침탈을 ‘한국 내에서 합방</p>

한 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역사 인식이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에 바탕한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을 수용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든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라고 하여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교과서가 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북한, 중국 등 주변국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 교과서가 채택되어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은 우선 일본을 비롯한 당시 제국주의의 제3세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강점이 합법적이고 당시 국제 사회가 승인했으며 일본에 이익된 것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한국민의 저항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치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후 국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군대 위안부나 강제 동원을 당한 당시 조선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가 수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역사 교과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왜곡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21세기
 한일 우호 협력 위해 노력해야**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서술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데 인색했었는데, 진보적인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임’측의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 크게 후퇴하여, 20년 전의 내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아직도 ‘진출’을 ‘출병’으로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시킨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역사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 전체에 흐르는 역사관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판단(과거사에 반성)이 애매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역사 인식이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에 바탕한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는 잊혀질 수는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다. 양국 간의 불행했던 시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한 극복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신뢰성 있는 참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p>일본 스스로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반성의 주된 노력으로서 이후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그대로 가르치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p>	<p>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 동아시아의 선린 이웃으로서 바람직한 미래를 공유할 수 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한일간의 과거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정본을 주시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역사 교과서의 침략에 맞서려면 되풀이된 논리로 안 되고 일본인들의 폐부를 꿰뚫는 압도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22</p>
<p>우리도 철저한 학문적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p>	
<p>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도 철저한 학문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20여 년 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이 문제는 후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결부된 역사 왜곡을 이웃 나라 일본의 내정 문제로 지나쳐 버릴 순 없다.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위해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이나 날조를 바로잡는 데 역사학계가 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견본본이 전시가 되면, 역사학계가 나서서 철저한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철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당장의 한일 관계만을 염려하여 역사 왜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추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p>	
<p>우리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교과서 정본이 출판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종 견본본이 제출되더라도 정본이 인쇄되기 직전까지 마땅히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수정하게 해야 한다. 일본은 스스로 약속했던 ‘근린 제국 조항’ 검정 규정이나 각종 선언의</p>	

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개혁되어야 하나?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편집 레이아웃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외국 교과서에 비하여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역사가 짧고 아직 편집 레이아웃에 대한 인식이 일반 도서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교과서의 특성상 학습 내용이 중요시되는 도서라는 관점에서 편집자 중심의 출판 문화와 교과서 편집 레이아웃에 종사하는 아트디렉터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맞물려서 교과서 편집 레이아웃의 심미적 발전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림과 더불어 편집 레이아웃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심미적 접근과 기술적 운용의 낙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편집 레이아웃의 조형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의 미숙함이 외국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우리 나라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을 개선하여 질 높은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과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및 사진·그림 등에 대해 개선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II. 창의적인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있어, 외국의 초·중등 교과서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매우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며 독자와의 상호 친숙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한결같이 일정한 레이아웃의 틀 속에서 일관되게 통합된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합이란 시각 요소가 서로 분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1단(전단짜기) 위주 그리드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또 그리드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레이아웃의 통합을 방해하고 제한시킨다는 역기능의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경우 표지 디자인에 있어서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프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긴장감에 흥미로움을 더하고 있으며

<p>판면의 지면 속에서 입체의 공간 효과를 표출하는 레이아웃의 기법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리고 전면을 과감하게 사진으로 바탕 처리하여 학습자로부터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으로의 전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의도된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이기도 하다.</p> <p>그리고 본문의 레이아웃의 경우, 독자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배려한 다단식 그리드와 변형 그리드의 적절한 혼합 활용이 돋보이고 있다. 그리드는 결국 시각적 통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사용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긴장감 있고 일관되게 통합된 레이아웃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p> <p>이렇듯 보이지 않는 그리드로부터 가시화된 표지와 본문의 외적 형태는 결국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으로의 전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흥미로움과 긴장감, 적정한 동기 유발을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완성이 곧 레이아웃의 최종 목표이고 학습자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며 목적이기도 하다.</p> <p>또, 레이아웃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형 요소는 편집 공간에서 비례와 균형, 조화와 대비, 동세와 리듬감을 배려하여야 하며, 이들이 최종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조형성 있는 레이아웃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p> <p>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학습자를 조형적 측면에서 배려한 흔적을 찾기가 어려우며, 학습자에 대한 교과목의 특성에 걸맞는 동기 유발과 흥미에 대한 만족도, 즉 황금 분할에 의한 비례의 균형감, 대립감, 요소들에 대한 조화로움, 단조롭지 않고 리듬감 있는 동세들을 활용한 긴장감 있는 레이아웃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p>	<p>특히 여백(white space)의 경우, 한국은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 빈 공간인 점에 비추어 외국의 경우는 긴장감 있고 조형성 있는 여백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레이아웃과 조형성에 대한 자료가 바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p>
<h3>Ⅲ. 다양한 편집 디자인</h3>	
	<p>편집 디자인은 사전적 의미로(모을편, 수집할집)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서적이거나 잡지, 책 등을 만드는 것을 뜻하나, 요즘에는 기본 베이스인 디렉션을 축으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와 갖가지 요소(factor)를 연출하여 지면의 공간에서 독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조형의 완성을 뜻한다.</p> <p>교과서 역시 독자(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용 도서이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의 완성은 일반 도서의 경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서 편집 디자인 기법이 체계적으로 편찬, 현장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p> <p>그러나 한국의 교과서는 이러한 편집 디자인의 기술적 완성을 무시하고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시각적 흥미 유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습자에 대한 편집 디자인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비교·참고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p> <p>우선, 한국 교과서의 경우 여백을 활용함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외적 형</p>

태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드가 1단(전단)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1단 전단이 여백이냐 아니냐는 극단적인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1단은 다단에 비하여 구성 요소의 배치에 융통성을 저해하게 되는데 이는 수학에서 정의되는 ‘경우의 수’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드의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성 요소의 어떤 요소로부터 다른 구성 요소로의 위치 이동 가능성은 더욱 다양해지고, 이는 결국 비례와 균형, 대비와 조화, 그리고 긴장감을 연출하는 융통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선진 외국의 교과서는 대부분 다단(2단 이상)의 그리드에 의한 편집 디자인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여백의 효과도 독자로부터 매우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교과서는 포맷이 매우 단조로운 대칭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백을 비롯한 장식성과 기능성 두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 앞에서 학습 도구로서 일방적이고 강제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Ⅳ. 조형성 있는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글자(활자)에 의한 마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의미하며 글자를 주제로 한 디자인을 모두 가리킨다.

글자의 모양은 예술과 과학에 바탕을 두고 창조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글은 구문자나 한자에 비하여 역사가 짧고 역사적 관점에서 발전이 늦어서 조형적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로, 글꼴의 심미성에 대한 비교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으나, 최근 들어 한글 글꼴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심미성 높은 글꼴의 사용 환경이 매우 편리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교과서 편집에 종사하는 편집자나 디자이너들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와 조형적 해결 방법의 연구가 미흡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타입페이스(글꼴, 서체)와 그들 사이의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외국 교과서의 경우, 제목과 본문, 본문과 본문 제목, 본문과 캡션, 정체와 이탤릭체, 기타 요소에 대한 글꼴의 다양한 선택과 각각의 글꼴에 대한 시각적 통합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식적이고 가독성 높은 편집물을 가시화하는 데 편집자와 편집 디자이너가 함께 노력한 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독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지루하지 않도록 시각적 흐름을 고려한 타이포그래피의 과학성과 리듬감의 유·무가 우리 한국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는 그림과 일러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롭게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서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글줄에 있어서도 한국의 교과서가 양끝맞추기 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드를 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드에 얽매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과목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글줄을 일관되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한 과목에 다양한 글줄을 사용하여 각 내용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p>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허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교과서는 이에 대한 통합을 적절히 유도하여 오히려 독자가 내용을 구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타이포그래피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p>	<p>피와의 조화가 매우 깊이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트리밍 기법도 매우 우수하다.</p>
<p>특히 표지 디자인에 있어 한국의 교과서가 거의 양끝 또는 중심맞추기 형식으로 통일된 점에 비하여, 외국의 교과서는 거의 뒤흘리기 또는 앞흘리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훨씬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의 교과서가 불문율처럼 본문용의 주된 서체로 명조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하여, 외국의 교과서는 고딕체의 사용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p>	<p>일러스트의 표현 기법에 있어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교과서 삽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새롭고 신선한 변화와 욕구를 교과서가 수용하지 못해 교과서 일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교과서 내용에 걸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 기법을 학습자 중심에서 판단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편집 디자이너 등 관계자 모두가 시각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p>
<p>Ⅴ. 기능적인 사진·그림 등</p>	<p>Ⅶ. 맺는 말</p>
<p>그림과 일러스트는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주로 사용의 목적이 있지만, 그림 한 장의 정보 전달 효과는 만 단어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정도로 편집 디자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서 편집 디자인 기법에 있어 일러스트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p>	<p>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일별해서 다른 도서와 구별될 정도로 획일적이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교과서는 체제면에서 또한 편집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즉, 교과목에 따라 판형을 달리하여야 하고, 지질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고 교과목에 따라 교과 특성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 서체는 주된 글자 크기만을 교육당국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하고 가독성 중시 측면에서 서체의 다양화 사용에 과감한 개혁이 요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 등은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㉞</p>
<p>외국의 교과서에서 그림은 물론 사진 한 장 한 장에도 심도 있는 연구와 제작으로 게재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특히, 프랑스 교과서의 표지에 나타난 사진의 질적 우수성은 일반 상업 광고 사진의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로 그 창의력이 뛰어나며, 공간감과 타이포그래</p>	

화학과 교과서편

김 동 식

전 세문중학교장

제 3 차 고등 학교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공포되었다. 이 시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격변기를 맞이할 때였다. 유신이란 강력한 국가 주도로 모든 정책을 펴 나갔으며, 국민 소득 5,000불, 수출 100억 불이란 당시 생각으로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빈곤 타파, 절약 정신의 고취 등 일선 학교 교육에까지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였다. 화학과 교육과정은 국내적인 이런 상황에 더하여 과학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요정에 따라 물리, 생물, 지구과학의 다른 분과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제 3 차 교육과정 개편 작업은 1971년 6월부터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고, 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 여론 조사, 원고 작성, 심의 토론을 거치는 3 개년 동안 필자는 일선 고등 학교에서 화학을 담당하며 부분적인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그러다 당시 언론에서 과대 포장된 편수국 사건으로 편수관 모두가 물러나고 편수관 진용을 짜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 필자의 편수 업무의 시작이었다. 즉, 1977년 6월 10일 편수국 화학 담당 교육연구관으로 첫발을 댄게 되었다. 마침 물리에 문찬호, 생물에 정완호 연구관이 함께 일하게 되어 편수 업무에 몰두하게 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교육과정 개편시 밖에서 본 일들

1960년대 한국은 아직 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항상 UN 산하 기구인 UNICEF(유엔 아동 기금)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학생 과학관은 경상북도 도청 옆자리에 세워졌고, 여기에 유니세프의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중 얻은 Land Rover 자동차로 과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한 일이 아직 눈에 선하다. 당시 과학과 연구사와 경북대학교 사범대 과학 교수들과 함께 산골 학교에 가서 유니세프로부터 제공받은 실험 기구를 나누어 주며 교사들의 과학 재교육을 실시한 것이 제 3 차 과학 교육 개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때 과학 담당 편수관이 가끔 출장 나와 신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며 새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물론 중후한 인격에 때로는 부러움과 존경이 갔다. 아쉬운 것은 필자와 전공이 같은 화학 담당 편수관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지금도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화학 담당 편수관은 최영복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1971년에 그만 두신 후 공석이 된 것이다. 고 황벽 선생님께서도 화공을 전공한데다 당시 공업 교육에 힘겨운 일을 맡아 하셨으니 화학 교육을 위하여 지방 출장은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차츰 유니세프의 원조가 줄어 그 짚차는 경비 부족으로 폐차시키고 말았다.

여기서 잠시 제 3차 화학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을 준 다른 나라의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존심 강한 미국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크게 낙담한 나머지 과학 교육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이 시작되었고, 화학 분과도 다른 물리, 생물, 지구과학 등과 동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생활 중심 교육이 학문 중심 교육으로 그 기본 철학이 바뀔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 재교육, 교육과정 개정, 학습 자료 개발 등 방대한 예산이 요구되었다. 초등 학교 과학 교육 과정으로는 ESS, SAPA, SCIS, 그리고, 중학 과학으로는 IPS, PS II, 물리의 PSSC, 생물의 BSCS, 지구과학의 ESCP 등이 조직되고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화학에서는 CHEM Study, CBA Project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영국의 Nuffield Chemistry, 그리고 호주의 SS Chemistry 등이 우리 나라 제 3차 화학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CHEM Study Pilot Course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경향 각지의 사범대와 학생 과학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가속되었다. CHEMS는 전체적으로 과학적 방법론과 동적이고 거시적인 화학 반응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CBA는 현대 화학의 중심 개념인 미시적 구조, 화학 결합 및 에너지 계열로 물질의 본성에 역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교육과정들에 의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결과 제 3차 화학과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 3차 과학과 교육과정이 국내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화학과에 큰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선택으로 미미한 존재였던 지구과학이 물리, 생물, 화학과 함께 꼭 같은 무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과학 교육 혁신 운동이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우주 경쟁에서 비롯하였다고 하지만 지질학,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 물리 등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묶어 고등 학교에서 지구과학이란 교과를 제정한다는 자체에 무리가 따랐다고 본다.

필자는 당시 문교부 후원으로 실시한 지학 교사 양성 강습회에 참석하여 240시간 지학 내용을 이수한 바 있다. 지금은 지구과학 교육학과가 많이 증설되었고 물리, 화학, 생물과 함께 과학의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구과학 교과 신설로 제 3차 교육과정을 시행한 결과 문과 학생이 과학을 선택할 때 물리나 화학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역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시 다시 I과 II로 나누고 문과에서는 I의 4개 교과를, 이과에서는 I과 II 모두 8개 교과를 이수하는 부담을 주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교과 이기주의의 입에 틀림없다.

시간의 축소, 내용의 축소 등 내 교과서의 범위는 감축시킬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 교과 담당자는 다짐하며 임한다. 심지어 이를 조정해야 할 담당 편수관들부터도 작업이 굳어질수록 한치의 양보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편수 업무를 시작하며 맨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다.

3. 중학교 과학과 교과서 개발과 화학 교과서 검정

편수국 사건 이후 새로 구성된 편수관들은 출근과 동시에 회의, 연수, 작업 등 생소한 새 업무에 여념이 없었다.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교과서 개발이었다. 온통 문교부 편수국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로 얼룩져 있으니 여기서 만든 교과서는 그 표지라도 바꾸어 공급하는 것이 학생들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는 당시 편수국장의 강한 의지에 누구도 반론을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그대로인데 교과서만 개편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작업임엔 틀림없었다 물론, 도서에 관한 규정을 바꾸어 지금까지 검정 교과서인 중학교 과학을 1종 도서(국정 교과서)로 개발하게 되었지만 내용, 방법, 평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만 다시 개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편수관이 바뀌었고 과거 중학 과학 교과서에 대한 불만이 많아 교과서 심의위원회까지 사직한 교수계는 다행한 일이었다. 주로 실험이 잘 되질 않거나 수준이 높은 내용, 여러 가지 오류 등 과학 교사 재교육시 많은 수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에 새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위탁하자는 데 우리 세 명 편수관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그간 여러 가지 과학 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로 소원한 여러 과학 교육 교수님을 한데 묶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침 당시 과학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과학과 실험 연구 학교의 운영은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후 이를 장학실 쪽에서 제의한 연구 학교와 실험 학교 간의 모호성으로 연구 학교로 통합하고 이를 장학실에서 주관함에 따라 실험 학교에 대한 지도는 편수관들로부터 손을 떼게 되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 개발 계획을 마친 다음, 2종인 화학 교과서 검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화학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작성하는 일, 심사 과정의 계획을 작성하는 일, 검정 심사 기준을 만드는 일 등등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협의, 토론, 보완 수정 등의 끝없는 일을 계속하였다.

많은 고생 끝에 만들어진 몇 장 되지 않는 작품에 기쁨을 감출길 없이 다시 1종 도서 원고 심의, 수정, 보완 등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 고된 일 처리에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자기 교과에 대한 자긍심 하나만으로 지탱한 것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한구석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화학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공고한 뒤 많은 교과서 집필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나 서신을 받고,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편수관의 자긍심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편수관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교과서 집필자들과 만난다는 것이 매우 부자유스러웠다. 또, 편수관이 소신 있게 교과서 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일 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판사가 법 논리에 따라 소신껏 공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편수관 또한 소신껏 좋은 교과서를 심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과서를 위하여 존재하는 편수관들은 승진에서나 보수면에서나 손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직 초·중·고에 자기가 맡은 교과서 교육과정을 잘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일하고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항상 업무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처럼 여유를 가지고 가족을 대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늘 가지고 있었다. 결혼 30주년이라 모든 일을 다 핑개치고 연가를 얻어 흥도로 떠난 일이 있다. 2박 3일 작정으로 그곳에 편히 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홀에 사람이 많아 안방으로 모시질 않는가. 들어서 안방에 앉아 섬 특유의 음식과 함께 반주로 얼큰하게 취했는데, 바로 옆에서 자연책을 가지고 어머니께 묻고 있는 초등 학교 5학년 아들에게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하질 않는가? 이 때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사이에 끼어들었다. 달의 위상에 관한 것이라 자신 있게 잘 설명해 주었다. 하도 신통해서인지 홀에 있던 아버지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건다.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말이다. “과학을 담당하는 편수관입니다.”라고 하니 그래도 알지 못하고 편수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질 않는가? 자연책 끝 쪽을 보이며 내가 여기 적힌 이름의 장본인이라고 하니 “아!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이구면!” 좋아라 귀한 손님을 모셨다고 다시 술상을 봐 오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그 때 편수관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보았다고 할까?

4. 맺는 말

우리 한국 교육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제 3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 교육에서는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뒤진 반성으로 과학 교육 혁신 운동에 열을 올렸고, 이에 우리나라 과학 교육도 큰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생활 중심의 교육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으로 기본 철학이 바뀔에 따라 학교 과학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등 모두가 엄청나게 변하니 여기에 걸맞는 자료가 개발되고 지금까지의 낡은 교사들의 사고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경향 각지에서 과학 교육 개혁 운동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여 백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 교육에 몰두하였다.

당시 선봉에서 젊음을 다하여 우리 과학 담당 편수관도 열심히 뛰었다. 여기에 많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하여 준 교수, 교사, 장학사, 연구사,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과학 담당 연구원들께 참으로 감사한다.

정년을 마친 요즈음 한가한 시간이 많아 버릴 서가를 정리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당시의 자료들이 씁쓸하게 또는 웃으며 휴지통으로 행차하는 무상의 감회가 솟아난다. 편수관실 시절, 우리들에게는 젊음이 있었고, 내가 가진 교과가 있었다. 이제 편수국이 다시 부활하여 옛날처럼 한 곳에 모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감론을박하는 데 열을 올리는 시대가 오기만을 기대한다. 23

〈1977~1994년 과학 담당 편수관〉

음악과 교과서편

최 종 진

전 영등포중학교장

1. 창문을 열면서

1972년 말인지 1973년도 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에 몸을 싣고 퇴근하는 길에서, 방송으로 울려오는 뉴스의 한 토막이 “정부는 공석 중인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수석 편수관인 정세문씨를 승진 발령하였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이 얼듯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사실일까? 하고선, 달리던 버스에서 내려 광화문으로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선 “축하합니다!”라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킁킁한 음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흥분된 인사를 전화로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얼마 후, 문교부 편수국으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보니, 시내 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인, 동료 교사 두서너 명이 더 와 있었다. 그래 같이 안내되어 일정한 시간에 전공 과목과 영어과에 대한 시험을 보았다. 그 후, “문교부 편수국 자출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 통지를 받고, 종합 청사로 출근하게 된 것이 1973년 7월 1일자였다.

당시 음악과는 담당 편수관 없이 행정적인 책임은 미술과 편수관(이종학 씨)의 지휘를 받고, 내용적으로는 편수국장의 지도를 받아 업무 수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의 문교부 편수국 근무 15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순서를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시대별 사항별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펼쳐 보려고 하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창문을 열려고 한다.

2. 들판에 서서

1) “그것이 그것이다.”

1973년도 7월에 편수국에 들어가 보니 제3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1973년 2월 14일자로 확정·공포되어 일선 학교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었고, 그 후속 조치로 적용 후의 여론 수집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육과정도 이미 기초 원고가 완성되어 있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으로 여념이 없었다. 당시

를 돌이켜볼 때, 편수 업무의 ‘입문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내용을 주어진 일정에 따라 진행시키고 정리·정돈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기에, 교과 담당자로서의 뚜렷한 철학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강한 여론에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때라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정·공포하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쫓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8월 31일자로, 제3차 중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공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것을 확정·공포는 하였으나, 계속적인 여론 수렴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옛날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그것이 그것이다!”라든지, “일본식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선 학교의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식의 여론이 빗발쳤던 점에 아주 고민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역력하다. 어쨌든 1974년도의 고등학교의 개발 작업까지는 연계성과 계속성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사업부터는 국제적인 동향과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음악과의 기본 철학을 확실히 정립한 후,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과 수준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과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영역을 통합하고”, “교과 내용을 현장 학습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하였더니 과거와 같은 거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나타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미국식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자고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2) “어느 한 사람의 작품집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용 음악 교과서는 1972년도의 실험 기간을 거쳐 1973년도에는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도서를 작성하는 일과 4, 5, 6학년용 실험본을 제작하는 일부부터가 본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때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담당자가 바뀌니까 현장의 소리들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이를 검토·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 되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왜 교과서에 작사·작곡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었던 것이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넘어서야 할 커다란 난관이 있었다. 비유가 알맞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권 시절에 차기 대권주자가 용감하게 민주화를 외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과 여유를 갖고 검토와 토의를 거치면서 굳게 잠긴 빗장을 하나씩 하나씩 풀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용의 실험본 제작 과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교과서의 선곡도 한 사람의 작곡자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작사·작곡자의 이름도 제4차 교육과정 시절부터는 교과용 지도서부터 밝히기로 하고, 이어서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되는 시기부터는 교과서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난관을 넘어 설 때마다 높은 산에 올라와 긴 호흡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다.

교과서의 연구 개선점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악과의 현장 학습에 유익한 교과서를 제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계속된 연구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변화되어지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고 즐겨 부를 수 있는 악곡이 없다는 점과,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뜻을 갖고 악곡을 개발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몹시 안타깝기만 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히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그럴지가 못하였다.

어떻든 초등학교 4, 5, 6 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도 제 3 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1973 년도에 개발하여 1974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어서 제 4 차 교육과정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3) “한국 교육 개발원과 음악과”

1972년 8월에 창설된 교육 개발원은 초기에는 장학실의 정책 연구에만 치중한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연구도 맡게 되어 편수국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달라고 하였다.

“당초에는 기구를 띄워 교육 방송에만 치중한다고 하였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편수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라는 등등의 풍문이 돌기도 하더니만, 어떻게 질기고 질긴 인연이 된 것 같다. 어떻게 초기의 구조와 인적 구성이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학을 전공한 김재복 씨(현 인천 교대 총장)가 음악과를 맡게 되어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었다. 그러다가 1977년 이후 기구를 확대하여 예체능 연구실로 개편하고 선 연구원을 공모한 결과, 국악을 전공한 황병훈 씨(현 인천 교대 교수)가 부임하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모든 연구와 개발 사업에서 뿔레야 뿔 수 없는 동업자의 위치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8년부터 편수국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교육개발원이 주동이 되고, 편수국의 역할은 기획·조정하는 일에만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편수’라는 이름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4) “편수국 파동”

1977년 6월의 어느 날, 출근을 하니 사무실의 분위기가 대단히 무겁고 침통하였다. 설왕설래하던 풍문이 현실화된 모양이다. 그리고 얼마 후, 온 세상이 뒤집힐 듯하게 신문과 방송에서 요란한 기사가 터져 나왔으며,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즉, “문교부 편수국장 정세문 씨 구속”이라는 대문짝만한 특종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이다. 편수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바로 ‘편수국 파동’인 것이다. 일명 ‘검인정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그 후, 대략 일 년 동안의 시간을 정세문 씨의 옥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 후 편수국 수습 대책 위원들이 새로 임명되어 편수 직원들을 새로 모집하고 새로운 진영으로 다시 출발하면서 기구와 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편하여, 처음에는 한 사무실 안에서 교과 그룹끼리 모여 업무 추진을 하게 하더니만 얼마 후에는 아예 인문·사회·과학과 편수관실 등으로 사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도 말에는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 안에서 ‘편수국’이라는 뜻말은 아예 찾을 길이 없게 되고 만 것 같다.

5) “1 종 도서 연구 개발 기관”

1977년도 편수국 파동 이후, 전체 편수국 각 분야의 행정 조치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 관한 사항들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즉, 국정 교과서를 1종 도서로, 검인정 교과서를 2종 도서로 명칭을 바꾸고, 편찬 업무와 기능도 문교부가 주도적이었던 것을 외부 ‘연구 개발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1978년도부터 고등학교만 제외하고서 초·중학교 교과서와 지도서를 검인정하지 않

고, 모든 과목을 ‘1종 도서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음악과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당황하였던 때도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과가 예외 없이 ‘한국 교육 개발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당시의 음악과만은 내·외적인 형편으로 보아 그럴지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교육 대학교에 ‘음악과 1종 도서 연구 개발 기관’을 설치하고, 류덕희(작고) 교수에게 개발 위원장을 위촉하여 개발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교육 대학은 행당동에서 허허 별관인 서초동으로 옮겨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집필 총 책임자인 장창환(퇴임) 교수 연구실에서 수고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때에 장교수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순조로운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많은 집필 위원과 심의 위원들도 한결같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때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국악의 지도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김용진(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교수의 주도 하에 국악과 원로들과 현역들 20여 명으로 별도의 ‘국악과 심의회’를 구성하여 산만하였던 국악의 지도 내용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새삼 김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개발된 교과서와 지도서가 1979년 3월에 세상으로 나오게 되니 갖가지 비난도 많았다. 이 때는 그 동안 중학교의 검인정 교과서가 1960년대에는 7종 14권이었던 것이 1966년부터는 14종 42권으로 확대되면서 교과 내용이 각기 다르고 악곡의 배열도 어느 저자는 1학년에 있고, 어느 저자는 3학년에 있어 수준도 알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락과 리듬이 서로 다른 악곡이 많아 1970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출제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종 도서 개발을 통하여 모든 내용을 통일하고 수준도 조절하였으며 학년별로 필수 악곡을 20곡씩 지정하여 현장 학습에 부합된 교과서를 개발하였기에 갖가지 여론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 때의 1종 도서로의 조치는 중학교 현장 학습의 방향과 수준 제시로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좌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6) “즐거운 생활”

1980년도 초, 우리 나라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각 교과별로 되어 있는 교과 통합 작업이었다. 즉, 국어, 산수, 과학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목을 이름도 생소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의 3개 과목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당시를 돌이켜볼 때, 험난하고 격렬한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각 교과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대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그게 어디 메아리가 울려야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강한 대세에 밀려 음악, 미술, 체육과의 과목도 할 수 없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즐거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따질 겨를도 없이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시간 배당 기준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생활 습관을 기초로 하여 과거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단원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르는 제재를 연관지어 학습 내용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워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교과끼리의 영토 확장과 새로운 제재 창출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음악과에서도 억지로 만든 제재에 알맞은 악곡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 작사·작곡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악곡들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과서를 세상에 내놓게 된 후, 당황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새로운 이론과 학습 지도법을 강요하다시피 이해를 강조하게도 되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통합 교과서가 시작한 허술하고 미미하였지만 20여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안정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만들어진 ‘즐거운 생활’은 1981년도에는 실험본으로 연구 학교에 실험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1982년도부터 정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음악’이라는 교과가 사라지고 3학년에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7) “둥근 해가 떴습니다.”

1981년도 초에 갑자기 유아 교육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더니 급기야는 ‘유치원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2~3개월 안에 노래 교재를 완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서둘러서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에 개발을 위촉하고 서울 시내 유치원 원장들과 유아 교육과 교수들을 초청하여 기초 작업과 함께 악곡 선정을 위촉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곡 작업에서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는 곡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선곡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악곡 때문에 두서너 번 민원(한국 구강보건 협회) 처리를 한 때가 있어 관심 있게 분석하여 보니 가사의 내용에서 밥을 먹고 이를 닦아야 될 터인데, 이를 닦지 않고 유치원에 바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락도 검토한 결과, 이 노래는 일제 시대의 방송에서 울려 나온 ‘라디오 체조’의 가락이다라는 증언(나운영 씨)이 있어 차제에 수정·보완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이 너무나도 일선 유치원에 퍼져 있으니 그대로 하되, 가사의 내용과 작곡을 새로이 하자고 결론이 났다. 이리하여 새로 작사·작곡된 ‘둥근 해가 떴습니다’라는 노래를 본인에게 작곡을 위탁하기에 고심 끝에 새로운 곡을 작곡하여 세상에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유치원 노래집이 ‘어린이 노래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내용 구성은 생활 습관, 정서 순화, 사고 및 인지, 대인 관계 및 예절, 지역 사회, 나라 사랑, 동물 및 식물, 계절 등으로 되어 1981년 2월에 문교부 발행 유치원 노래집으로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절판이 되어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는 것 같다.

3. 창을 닫으면서

돌이켜 보면 격동기의 시절에 필자로서는 제 3차 교육 과정기를 ‘입문기’라 하고 제 4차 교육 과정기를 ‘탐색기’라 하면, 제 5차 교육 과정기를 ‘완숙기’라고 하고 싶다. 이번에 1981년도까지라는 한계가 주어졌기에 제한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기록을 남기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나라 음악과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인 제 5차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 24

〈1973~1987 음악 담당 편수관〉

수산·해운 교과서편

김 동 규

전 김화고등학교장

1. 썰렁한 편수관실

필자는 여수 수산 전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77년 6월 10일자로 교육부 편수국 교육 연구관 발령을 받고 편수국에 근무하게 되었다.

내가 편수국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1977년의 검인정 교과서 파동(탈세 사건)의 여파가 불행히도 편수국까지 미쳐 대부분의 편수관이 억울하게 그 직을 그만두게 되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일각에서는 억울하게 물러난 편수관들을 동정해서인지 우리들의 입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는 듯하였다.

발령을 받고 처음 교육부가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11층의 1호실인 편수관실에 들렀을 때의 썰렁한 분위기를 24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넓은 공간에 벽에 기대어 낡은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는데 캐비닛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고, 책상 서랍들은 어쩐지 스산한 느낌마저 풍기는 것 같았다.

전임 편수관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다. 그러나 과거 교육부 편수관으로 재직했던 홍웅선, 강우철 교수로부터의 직무 교육과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의 견학 등을 통하여 편수 업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당시의 편수관 수는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 6월 10일부로 발령을 받은 9명과 3월 1일자의 발령을 받은 공업계 편수관 및 1월 1일자의 이덕순 편수관과 기존의 연구사를 합쳐 모두 17명이었다.

우리들의 일과는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낼 정도로 회의가 많았다. 그러나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 박용진, 정태위, 박병호, 임덕순, 김동식, 이광복 편수관 등이 단연 돋보였고, 나를 비롯한 실업 담당 편수관은 그저 경청하는 쪽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서 교육학도 배운 적이 없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실업 교육만 18년 간을 하다가 편수관 시험을 보기 위해 약 2개월 간 교육학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두서 없이 읽어 본 것이 전부였으니 회의석상에서 교육 이론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개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다만, 회의가 시작되면 동료 편수

관들의 열띤 논조를 열심히 들으면서 조금씩 교육 이론을 익혀 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매일 회의만 할 수는 없었다.

교과서 파동의 여파로 종전의 국정, 검인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하여 새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1종 도서(교과서)로 규정되었다. 1종 도서는 그 발행을 교육부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소위 연구 개발형 교과서라고 이름 붙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위촉하여 개발하는 형식이었다.

1종 교과서의 개발 과정은 교육부에서 개발 책임자를 지정하면 그 책임자는 자기가 소속한 기관 내에 1종 도서 연구개발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이 위원장이 되고 그 산하에 집필자와 연구자(보통 10명 내외)를 구성하고 이들이 협의하여 교수요목(지도 내용)을 만들면 집필자는 이 교수요목에 따라 집필하도록 되어 있었다.

집필이 완료되어 원고본이 교육부에 제출되면, 교육부가 위촉한 1종 도서 편찬 심의회 위원(7~10명)을 소집하여 1~2차에 걸쳐 내용 체제 등을 검토 수정한 후 인쇄소로 넘기면 인쇄소에서는 이를 받아 가쇄본을 만들어 다시 교육부로 되돌려 준다. 편수관은 이를 받아 다시 편찬 심의회를 1~2차 소집하여 가쇄본을 검토 수정한 후 다시 출판사로 넘기면 출판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재본을 만들어 담당 편수관에게 전달하는데 편수관은 이를 다시 정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담당관의 결재를 얻어 출판사로 넘겨 인쇄에 회부하면 비로소 교과서로 출판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제3차 교육과정 개편(1973년)에 의해 정해진 교과목에 따라, 1979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선 검정 교과서로 기 발행되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개정이었다. 다행히 수산계의 교과서는 전부 국정이었어서 문제될 게 없었으나 통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중 통신 일반, 무선 측정, 무선 기기, 통신 영어, 교통 지리, 전파 법규, 통신 보안 일반이 검정 교과서였다. 그래서 내가 교육부에 들어와서 처음 개발한 교과서도 이 7책이었다.

2. 교과서 개발에 얹힌 이야기

개발할 대상 교과서를 확정하고 나니 교과서 개발을 위촉할 대학교와 집필자의 선정이 문제였다. 우선 검정 교과서의 집필자가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던 터에 하루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와 자기는 덕성 여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동대학의 출판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 모라는 자인데 교통 지리 교과서의 검정권자였노라고 하면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그나마 얼마씩 받아먹든 인지대를 못 받게 되었으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나이도 드신 분이 좀 딱한 생각도 들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연구형 교과서를 개발해 볼 생각이 있는냐고 물었더니 꽤히 승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현직 교수도 아니고 무엇보다 덕성 여대에는 “교통 지리” 교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도 없는 지라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확답은 하지 않고 다음에 연락 드리기로 했다.

그러나 어쩐지 불안한 생각은 가시지 않는지라 안전 장치를 취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즉, 개발 책임자를 오 교수로 하고 집필자는 항공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교수

하고 있는 이진(李珍) 교수와 오 교수 두 사람의 공동 집필로 하여 두 분이 단원을 나누어 집필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의 집필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였는데, 정식으로 개발을 의뢰한 지 3개월도 안되어 항공대학의 이진 교수가 얼굴이 상기된 채 찾아왔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덕성 여대의 오 교수로부터 장문의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왔는데 내용인 즉, 교과서는 국가 백년 대계의 학생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재이니 신중히 또 신중히 집필해야 하며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 2주 내로 원고본을 제출할 것이며, 만약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집필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로 대처하겠으니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기 바란다는 요지이고, 이 등기 우편이 두 차례나 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자기가 부지런히 작업을 했었기에 등기 우편에 명시된 기일 내에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고, 지금 원고를 오 교수에게 전달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며, 원고비를 독식하기 위한 비열한 짓이라고 분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원고본이 나와 1종 도서 편찬 심의회 위원들을 소집하여 내용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원들 모두 오 교수가 집필한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아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당사자는 한 번 심의회에 나온 후로는 얼굴도 비치지 않아 할 수 없이 항공 대학의 이진 교수가 그 부분까지 다시 보완하여 무사히 교과서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3. 수산·해양계를 수산·해운계로 고침

원래 해양학이라는 말은 해양 물리, 해양 화학, 해양 생물, 해양 기상, 해양 지질학, 항해, 수산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넓은 용어인데, 종래에 쓰여온 수산·해양계라는 말의 해양계는 항해, 기관, 항해 운용의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임 편수관이었던 허강(許江) 편수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산·해양계 고교는 수산·해운계 고교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소위 검인정 파동으로 물러나 이를 교과서에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후임으로 들어가는 나는 그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과서 편찬 심의회 때마다 과거의 해양계는 해운계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오늘날까지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로 바르게 통용될 수 있게 되었다.

4. 각종 학교(선원 학교) 교육 과정 제정

1977년도라고 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어 가던 시기였다. 수출물량도 급속히 늘어나고 이를 실은 우리 선박들도 오대양 육대주를 찾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국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반면 선원들에 의한 해외에서의 사고·사건들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예제는 일본 선원들과의 충돌 사고가 보도되는가 하면 오늘은 중국 선원들이 때를 지어 항구에 정

박 중인 어선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은 우리 국민의 얼굴이며, 선원 하나하나가 외교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고급 선원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자질과 국가관 및 애국심 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요는 일반 평선원이 문제였다. 그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주고 기술 교육과 더불어 교양 교육도 강화시켜 교양 있는 한국 선원이라는 인상을 세계에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해운 항만청에서 선원 학교 설립을 위한 선원 학교 교육 과정 제정을 의뢰해 왔다. 선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기숙사에 입사시켜 무료 교육과 무료 급식, 피복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우선적으로 선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전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엔 외항 선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선원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다.

교육부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걱정이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 과정을 전공한 정태위 편수관과 함께 부산의 모 여관에 방을 정하고 찌는듯이 더운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일 주간의 작업 끝에 1년제 각종 학교인 선원 학교 교육 과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면 관계로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후 부산과 인천에 선원 학교가 각각 1 개교씩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3, 4년이 지나자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1년제 각종 학교로서는 학생 모집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니 3년제 각종 학교로 개편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였다. 결국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실업 교육과의 김영식 주사가 찾아와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니 3년제 선원 학교 개편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결재 서류의 협조란에 서명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나는 애초에 1년제 선원 학교의 설치 취지는 순수한 선원의 양성이 목표이지 선박의 간부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부산엔 3년제 해양 고등학교가 있고 또, 만약 3년제가 되면 졸업 후는 모두가 선박의 기간 요원으로 갈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선원 양성 기관이 하나도 없게 되니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나의 의향을 물었으나 확고한 나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3년제 선원 학교는 그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가되었고, 교육 과정도 정식으로 마련되지 못한 선원 학교 교육이 수 년간 지속되는 기인한 현상이 일어났다.

5. 해양 탐구 교육의 강화

1981년 가을쯤으로 기억된다. 주일 교육관으로 계시다 장학 편수실장으로 부임한 황철수 장학관은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의 눈부신 해양 산업 발전을 목격하였다. 그는 일본의 해양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그들의 해양 교육 강화에 의한 해양 사상 고취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장학실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곧장 초등 교육의 주요 목표를 해양 탐구 교육의 강화에 두었다. 그 당시 인문 교육 담당관으로 재직한 김화곤 장학관이 이 일을 맡아 계획을 입안했었는데 그는 내 방에 자주 찾아와 해양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자기에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문을 구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황 실장님이 내 방에 찾아와 일본과 우리 나라의 해양 교

육 추진 실태를 비교한 자료가 필요한데 얻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국회 문공위에 제출할 자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대답하고는 마침 도서관에 있는 일본 초등 학교 전 교과서와 우리 나라 초등 학교 교과서를 몽땅 집으로 가져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해양 관련 내용의 쪽수를 교과목별로 분류하고 합계하여 보니 일본 교과서의 분량(쪽수)이 우리 나라 교과서의 분량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음날 황 실장님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를 받아 읽어보는 황 실장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온 얼굴에 희열이 가득차는 게 아닌가? 그리고는 나에게 몇 번이나 수고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밤새워 일한 보람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 신문지상에는 해양 교육을 강화한다는 머릿기사와 함께 내가 분석한 한·일 간의 해양 교육 비교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후 해양 탐구 교육에 대한 교육부 교육 정책(계획)은 대통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교 해양 대학과 부산 수산 대학을 합친 고차원적인 해양 종합 대학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짜여져 있었으니 그야말로 해양 교육 강화에 대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었다.

그 후 이 해양 탐구 교육 정책에 따라 각 도 교육청에는 해양 탐구 교실이 설치되고 해양 탐구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해양 탐구 교육 자료는 어떤 표준이나 통일성이 없이 각 도 교육청마다 오랜 연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장학 지도에 대비해 급히 제작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도 내용이 짜임새가 없고 부적합한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교육 자료의 개발에도 힘써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책을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맡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과장급 또는 장학관급 이상의 책임자의 임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황 실장님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전출되자 해양 탐구 교육 정책은 그 추진력을 잃고 지지부진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의 해양 사상 고취를 위한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 2

〈1977~1985 수산 담당 편수관〉

1977년 6, 7, 8월의 편수관실

박 용 진

충청문화재단연구원장

나는 1977년 정부의 편수관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1981년까지 당시 문교부 편수국 역사 담당 편수관 겸 수석 편수관(정부 직제상으로 수석 편수 관제는 없었으나, 통상 편수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편의상 운영되고, 직책상의 책무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도 보장되었다.)으로 보임되었다.

1978년에는 정부 조직상 편수 업무가 장학실 업무와 통합되어 장학 편수실로 개편되면서 장학관으로 전보되어 사회과 교육 담당관, 교육과정 담당관의 보직을 받아 편수 업무를 추진하였다. 1980년에는 다시 편수국이 부활되면서 교육과정 담당관 겸 임시 편수국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과 편찬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과정은 국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급별로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서, 국가 수준의 교육을 결정하는 이른바 국가 교육의 제일의적(第一義的)인 정책 과제다.

즉,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서 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를 망라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 정책 토론을 거쳐 학문 연구의 성과와 국가와 시대적·사회적인 요청을 수용하고, 교육이 지향할 비전 등을 담아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처진다. 그 전 단계에서 각론에 해당하는 교과별 교육과정의 심의와 수정·보완은 물론, 이해 당사자 간의 갑론을박한 문제 등도 제기된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문교부 장관이 고시한다.

따라서, 이를 총괄하는 수석 편수관 또는 교육과정 담당관의 투철한 국가관, 교육적인 신념은 교육계는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그 반영 여부를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보직이므로 항상 긴장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국가의 이익 추구하고 함께 세계의 교육 경쟁 체제에서 앞서 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교급별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현장 교원의 자질 수준 향상을 전제로 발전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8660호)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교과용 도서(교과서)를 연구 개발형의 1종 교과용 도서(국정 교과서)와 자유 경쟁형의 2종 교과용 도서(검정 교과서)로 분류하고,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마련하여 개발·편찬함으로써 교과서의 획기적인 체제 개편에 성공하고 그 발전에 기여했다. 당시 약 900여 종에 이르는 교과서 편찬을 주관하고 총괄하면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수준을 정선하고, 현행의 교과서 편찬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1980년 12월에는 초등 학교와 중·고등 학교의 교과서 지질을 신문지 용지에서 중질지(中質紙)로 개선하고, 초등 학교 교과서 중 1학년 3월용 교과서인 ‘우리들은 1학년’은 세계 교과서 사상 첫 사례로서 각 국가의 1학년용 교과서 개발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교과서의 편찬에 참여한 인사들을 실명제화(實名制化)함으로써 교과서 편찬의 책무성과 권위를 동시에 부여하고, 초등 학교 교과서의 삽화를 모두 원색으로 편찬하여 교과서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는데, 이는 장관을 비롯한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계한 모든 분들이 정부 예산 당국자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이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편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와 여러 편수관들이 24~25년 전에 경험하고 또 힘겹고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한 사례 몇 가지를 기술하여 회고하려 한다.

1977년 6월 하순 어느 날, 나는 청와대의 J특보(특별 보좌관)를 만났다. J특보는 나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하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고, 새 편수관들이 지혜를 모아 보다 좋은 교과서를 편찬해 줄 것인데, 교과서 편찬 업무는 일천하지만 전국 단위로 엄격한 공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 교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 업무를 감당할 것이라는 격려도 곁들였다. 또 다른 하나는 현직을 떠난 전임 편수관들에 대한 배려였다. 그것은 1977년 3월 한국 교과서 편수 업무 사상 가장 큰 수난을 겪어야 했던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른바 교과서 편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검정 교과서 출판업자측과의 불편한 관계로 편수관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사안이 있었다. 그러나 들리는 말로는 편수관들의 소유 주택이나 그 생활 정도가 서울 시민의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우수한 편수 인력을 잃게 되어 가슴아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재취업 알선이나 생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은 물론, 편수 업무의 자문을 구하는 등 교과서 편찬의 연계성 유지와 함께 일시적인 교과서 편찬의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새로운 편수 진용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각기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좀 벅찬 당부였다. 그러나 사안 발생 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한교과서(주) 및 대학과 연구 기관 등에서 교육과정 연구와 교과서 개발 업무에 전념해 주어 정부의 교과서 편찬 과정상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정보 교류와 활발한 연계로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개정 업무에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러나 전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나 어떤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나 능력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면서 장·차관이 임석한 실·국장 회의에서 그 고충을 설명하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음을 밝힌다.

그러니까 1977년 4월 문교부는 편수 업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수관들의 결원을 공채, 보충기로 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 당국에 편수 요원 공채 공고와 아울러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분야의 교과 전문직이 응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재직하고 있던 공주교육대학에서도 여러 교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응모하게 되었다. 당시 공주교육대학에서는 재학생 200명에 교수가 50여 명으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제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현직 교원들이 대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스카웃돼 나가고,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대학에 초등 교원 임시 양성소를 설치하여 대학 졸업자 중 초등 교원 지망생을 단기간에 연수하여 임용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초등 교원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 입학 정원을 줄이게 된 것이 1975년부터였다고 기억된다. 따라서, 일부 교수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학 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거나, 타 대학으로의 전출 또는 전직할 것을 권고받을 때였다. 그래서 각 교육대학에서는 문교부의 편수 요원 공채에 응모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 자격은 4월 말 현재 45세 미만에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교과 교육 전문가로, 기관장의 추천을 요구했다. 서류 심사 후 5월 중순경 당시 운현동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필답 고사를 실시했다. 출제 내용은 교육과정 관련 내용 100분, 일반 상식(총효의 개념과 그 구현 방안) 100분이었다.

비가 오는 날 모두들 진지한 자세로 시험에 응했다고 생각된다. 교과에 따라 경쟁률이 적게는 30대 1, 많게는 60~70대 1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말경에는 교과목당 3~7명에 대한 면접 고사가 시행되었다. 면접 당일에는 본인의 연구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고광득 차관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장인숙 기획관리실장과 장기욱 편수국장,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우철 교수(전 편수관 출신) 등이 면접관으로 임회하고, 이흥업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그리고 난 뒤 6월 10일자와 16일자로 편수관(당시 교육연구관)의 보임을 받았다. 교육학 및 윤리 담당에 정태위, 역사 담당에 박용진, 사회과 담당에 박병호, 수학 담당에 이광복, 물리 담당에 문찬호, 화학 담당에 김동식, 생물 담당에 정완호, 상업 담당에 송병선, 수산·해운 담당에 김동규 등이 신규 발령되었다.

모두 다 교과 교육의 전문 교수이거나 과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량급의 인사들이었다. 이어서 6월 하순경에 체육 담당에 이광섭, 영어 담당에 전동기, 미술 담당에 이태식이 보임되었다. 이러하여 선임자인 지리 담당 임덕순, 공업 계열의 기계·기술 분야 담당의 강기주, 양재면, 안상덕, 이상혁과 국어 담당의 이병진, 최현섭, 사회과 담당의 김용만, 김성환, 농업 담당의 정성봉, 음악 담당의 최종진 등과 합류하여 새로운 편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모두 다 담당 교과의 전문가들로 선발된 편수관들이기 때문에 개성과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 유지에도 남다른 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77년 7월 10일까지 새로 제정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펴낼 것을 지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과 시작과 함께 20여 명의 편수관들이 회동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주제를 걸고 일과 종료 시간까지 자율 연수를 겸한 논의와 토론을 거듭하였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문교부가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과제를 반복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며, 다시 속개되어 조정되거나 보완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그 성과가 컸다.

그리고 교과서란 무엇인가?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 교과별 교과서의 편찬 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가 약 15일간 연속되면서도 결코 지루하지 않고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하고 각자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교과서의 개념과 그 체제의 개발에 접근되어 갔다. 연수 과정에서 대선배 편수관이셨던 연세대학교의 홍웅선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우철 교수의 강론도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새로운 교과서 체제 연구에 도움이 컸다.

격론에 격론이 거듭된 연수 과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무척 성장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기약된 7월 10일은 이미 지났다. 업무 추진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 유기이거나, 무능, 무책임한 비생산적인 연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각자의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 빚어진 격론은 오히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공통의 개념과 통일된 인식을 도출케 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그 결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집필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구성 방향, 학교급별 목표 및 교과(목)별 목표의 반영,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한 분석과 기술, 학습 지도와 평가 등에 대한 편성 운영 지침의 적절한 수용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유의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과서 체제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교과별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구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편수관은 담당 교과목별 집필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편수관 전체 협의에 부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창의적인 안에 대한 적극 수용과 함께 보완할 것 등도 신중하게 논의하여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진력했다.

다시 말하면 새 편수 진용은 자율 연수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명감으로 6월, 7월, 8월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오직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몸부림은 한 달 남짓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과서 편찬 사상 처음으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이란 문서가 집대성되고, 이는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별로 분책되어 7월 22일 발간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교과서 집필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참여한 당시 편수관들의 각고의 노력의 작품으로 승화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 당시 편수 기구의 위기를 체감하고 계셨던 황산덕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님과 여러 실·국장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뜨거운 격려가 있었음은 편수관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거듭 감사드린다.

교과서 편찬 기본 계획의 한 과정으로 7월 29일에는 문교부 대회의실에서 교과서 편찬 사상 처음으로 2종 교과용 도서(검정 교과서) 출원자(출판사 및 저자 대표)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설명회가 전 편수관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 진지한 설명회가 약 3시간 동안 열렸는데, 교과별 담당 편수관들의 자신 있고 친절하 안내에 참가자들은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유의점에 충실한 교과서

를 개발할 것을 다짐했다. 성실하고 참신하며 교과서 집필의 분명한 방향 제시에 감동하고 새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날의 설명회는 매우 성공적인 모임으로 평가되고, 과도기적인 편수관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출하는 연구적이고 생산적인 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인상적인 회동이 되기도 했다.

이어서 8월 19일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이른바 1종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탁받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및 각 대학의 부설기관이나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연구소 및 민간 연구 기관 가운데 특수 분야의 교과교육연구회 등 80여 명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함께 연구 개발형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보다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편수관들은 1종 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과서마다 ‘집필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연구와 교과서 집필의 기획을 담당하는 연구진 구성, 연구진의 연구 기획을 충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필하는 집필진 구성, 그리고 이들을 심의하고 조절하며 보완하는 심의진 구성을 의무화하고 실명제화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새 교과서가 되도록 조치하였다. 이들 연구진과 집필진, 그리고 심의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회동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국내외 교과서와 비교 분석도 하면서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편수관들은 위탁 연구 기관을 선정하는 일, 또는 해당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 그리고 수시로 담당 교과서 개발 기관과 회동하고 협의 지원하는 일들에 진력하였다.

한편, 편수관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담당 교과와 관련된 학회 참석을 권장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 연구 성과는 물론 많은 전문적인 자원 인사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능력 있는 편수관이란 담당 교과와 관련된 전문 인사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적절히 활용하고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초등 학교의 삽화를 담당한 작가들이 적은 원고료 때문에 교과서 개발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 삽화 그 자체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활자화된 원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특별한 교과서 원고이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권위에 합당한 예우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의뢰해 보기도 하고, 교과서 삽화가를 양성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그러나 교육용 삽화, 교과서용 삽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작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서울 퇴계로에 있는 P호텔로 삽화가들을 초청하여 설득을 겸한 만찬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그 동안 교과서 삽화가 우리 학생들 교육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교과서 표지 또는 그 이면에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과 함께 삽화가의 작가명을 밝혀 예우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 삽화 전시회를 열었을 때 몇 명의 어린이가 와서 관람하겠는가? 교과서화된 여러분의 삽화는 적어도 100만 명(당시 학년당 학생수)

또는 600만 명(초등 학교 전학년)의 관람객이 고정된 고객으로 맞이할 것이다. 삼화한 점 한 점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질서를 지키며, 과학을 탐구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연출하며 그 속에서 꿈과 용기를 가꿀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삼화 원고료 이상의 명예와 긍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 편수관이나 저자와 같은 교육적인 신념으로 좋은 작품을 교과서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 결과 첫 대면했을 때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달리 작가의 명예를 걸고 좋은 작품으로 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울 뿐이었다. 교과서 개발은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감격한 편수관 특유의 희열을 경험한 것이다.

이리하여 1977년 초 편수 기구에 대한 우려와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전임, 선임 편수관을 비롯 편수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채로 채용된 편수관,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과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과 관련 대학, 전문 연구 기관 및 연구소, 대한교과서(주), 그리고 지혜를 모아 뜻을 함께하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3

〈1977~1981 역사 담당 편수관〉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0-2〉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학습이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대두된다. 이에 이러한 수준별·개별화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ICT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ICT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별·개별화 학습을 도와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가 전자 교과서의 개발이다. 전자 교과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인쇄 교과서의 형태를 전자화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과 컴퓨터 간에 학습 내용으로 상호 작용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학습자는 전자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고정된 인쇄 교과서가 주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화된 각종 참고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자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이 분명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해도 그 기술이 적용될 것은 교육과정상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각 교과목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 교과서의 개발은 자칫 ICT 활용 기술 측면으로 치우쳐 각 교과목의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각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 교과목별 전자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전자 교과서의 설계 지침과 모형을 개발하고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4개 교과목에 대한 전자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설계 지침과 그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전의 인쇄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풍부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충·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전자 교과서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 연구는 여운방(연구 책임자), 서유경, 서정희, 신성균, 조정우, 채보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한국 편수사 연구(I)

〈연구 보고서 2000-4〉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에 좌우되며,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는 국민 교육의 기본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 때마다 교과서를 편찬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편수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이론을 발전시켜 한국 교육의 민족적 편수의 관을 정립하며, 둘째, 편수 업무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현장 적용 및 평가 등을 종합 연구하며, 셋째, 한국 편수사의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인식과 철학이 뒷받침되도록 하며, 넷째, 앞으로의 편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첫째,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과 교육과정 제정과의 관련, 둘째,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 과정의 전체 구조의 변화 측면, 셋째,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평가의 변화 측면, 넷째,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방식의 변화 측면, 다섯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현장 적용과의 관련, 여섯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미래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1부>의 서론, <제2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개요, 그리고 <제3부>의 ‘한국 편수사 연구(I)’로 구분되며, 이 중 <제1부>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되며, <제2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등이 개요적으로 소개된다. <제3부>는 본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서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그 사실을 서술하고 분석·정리하였다.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허강(연구 책임자), 곽상만, 김용만, 정태범, 함수곤, 한명희, 이경환, 이종국이 공동으로 수행한것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운영

<http://www.kotri.re.kr>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연구 자료 검색 등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http://www.kotri.re.kr>)를 자체 제작하여 200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자료로서,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고, 내용과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의 정리 및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교

과서와 관련된 연구 정보는 물론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관련 기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기관 소개, 교과서 정보관, 교과서 연구지, 교과용 도서 공급, 자료실,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관 소개에서는 교과서연구재단의 설립 목적 및 연혁, 조직 소개, 주요 사업, 연구재단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 정보관에서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도서관인 교과서 정보관에 대한 소개, 이용 안내, 자료 보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 연구지에서는 교과서 전문 연구 간행물인 「교과서 연구」의 목차 정보와 전문(Full-Text)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데, 매호 간행물 전체를 html과 PDF 형식으로 제공한다.

교과용 도서 공급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공급 체계와 교과서를 개별 구입할 수 있는 상설 판매장, 교과서 판매 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 주문을 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목록 및 초록, 전문(Full-Text)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서 정보관 소장 도서 목록과 학년도별 교과서 목록 및 정가표, 시·도 인정도서 목록 등을 공개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각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관련 법규 정보도 제공한다.

1일 평균 100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NEWS

연구재단 소식

✳ 임원 동정

— 이상갑 이사 취임

정부 인사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상갑 실장이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이사로 2001년 3월 1일 취임하였다.

— 강원구, 김원찬 감사 취임

2000년 12월 13일 연구재단 이사회가 감사로 선임한 안건회계법인 전무이사인 강원구 공인회계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1년 1월 1일 취임하였다. 또한,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원찬 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2001년 1월 31일 취임하였다.

✳ 이사회 개최

○ 우리 연구재단은 2000년 12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정관 및 직제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2000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승인
- 2001 회계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감사) 선임
-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 추진 상황 보고

○ 우리 연구재단은 2001년 2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정관 중 개정 정관
- 2000 회계 연도 결산 승인
- 2001 회계 연도 예산서 총칙 중 개정 총칙
- 2001년도 기금 출연 금액 확정 보고

✳ 2001학년도 1학기 초·중·고 교과서 공급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 에 따라 종전 (주)대한교과서가 맡아 오던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 공급을 우리 연구재단이 맡게 되어 2001학년도 1학기용 교과서를 지난 2월 말까지 각급 학교에

공급 완료하였다.

이번 학기에 공급한 교과서는 약 104,200 천 부로, 초 등 57,400 천 부, 중등 46,800 천 부에 달한다.

폭설 등 기상 악화와 분배 작업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 행정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적기에 공급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2001학년도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 및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수집을 위해 발행사 및 시·도 교육청에 2001년 4월 16일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개발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외국의 교과용 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를 현지 교육관과 재외 한국학교의 협조를 얻어 구입하고 있다.

✳ 연구 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2001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교육부 정책 과제 및 자체 연구 과제를 확정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연구 사업은 6개 과제로서 연구비 지원액은 1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 재단 운영 및 결산 외부 감사 실시

우리 연구재단은 2000 회계 연도 운영 및 결산에 대하여 2001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건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재단 운영이 기업회계 기준과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함을 확인받은 바 있다.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 상설 판매장(공통)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1 동 826-14 진솔문고 내
- 전화 : (02) 3466-2528

* 한국2중교과서협회(초등 영어 및 중·고등학교용 2종 교과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1
- 전화 : (02) 3663-4292~3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 (02) 3663-5409~12
3663-9120~2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textbook.com>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초·중·고 1종 교과서)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344-12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 (02) 3475-3800
(031) 735-8105
(041) 861-3183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aehane.com>

* 향우산업주식회사(고등학교용 교련 교과서)

-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3
- 전화 : (02) 790-5947

※ 기타 지역별 개별 판매 서점 및 구입 신청 방법은 각 발행사에 문의 바랍니다.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otri.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 501-9103으로 문의 바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1,500	3,790	15,290
일반 자료	1,700	—	1,700
계	13,200	3,790	16,99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10:00~17:00
	11~2월	10:00~16:00
토요일	1~12월	10:00~12:00

*공휴일 휴관

교통편

*전 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로 나와 진솔문고, LG 주유소를 지나 우성① 사거리 코너 건물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동 하차, 33-1, 289-1 우성쇼핑센터 하차

*좌석 버스 ▶ 45, 45-2, 46, 736-1, 910, 916, 1005, 1005-1, 1005-3 역삼동 하차

